

익산^{益山}웅포^{熊浦},
진포^{鎭浦}대첩^{大捷}
학술대회



2021. 11

○ 학술대회 일정

사회 : 문이화(원광대학교)	
13:30~13:40	개회사 임승배(익산학연구소장) 환영사 박맹수(원광대학교 총장) 축사 정헌율(익산시장)
13:40~13:50	준비 및 휴식
제1부	
기조강연 13:50~14:20	익산 웅포의 덕성창과 진포대첩 양은용(원광대학교)
14:20~14:40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고려의 대응 양상 임형수(충북대학교)
14:40~15:00	조선 태종대 조운제 정비의 재정사적 맥락 - 전라도 조운제 정비와 득성창 개창 소순규(한국학중앙연구원)
15:00~15:20	준비 및 휴식
제2부	
15:20~15:40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문화콘텐츠 방향 이남희(원광대학교)
특별강연 15:40~16:00	진포대첩의 현장 김복현(전 익산문화원장)
16:00~16:20	준비 및 휴식
제3부	
좌장 : 이동희(예원대학교)	
지정토론 16:20~17:30	허인욱(한남대학교), 양정현(순천대학교) 김영애(에스앤아이팩토리/한국민화학교)

○ 목 차

기조강연	5
익산 응포의 덕성창과 진포대첩	
발표 : 양은용 (원광대학교)	6
 발제 1	27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고려의 대응 양상	
발표 : 임형수 (충북대학교)	28
 발제 2	43
조선 태종대 조운제 정비의 재정사적 맥락	
- 전라도 조운제 정비와 득성창 개창	
발표 : 소순규 (한국학중앙연구원)	44
 발제 3	65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문화콘텐츠 방향	
발표 : 이남희 (원광대학교)	66
 특별강연	81
진포대첩의 현장	
발표 : 김복현 (전 익산문화원장)	82
 지정토론	89
토론 : 허인욱 (한남대학교)	90
양정현 (순천대학교)	92
김영애 (에스앤아이팩토리/한국민화학교)	94

기조강연

익산 웅포의 덕성창과 진포대첩

발표 _ 양은용 (원광대학교)

- I. 서언
- II. 진포(鎭浦)와 덕성창(德成倉)
- III. 진포대첩(鎭浦大捷)의 전개와 그 전장(戰場)
- IV. 진포대첩의 유허(遺墟)와 현창사업의 방향
- V. 결언

익산 웅포의 덕성창과 진포대첩

양은용 (원광대학교)

I. 서언

익산지역은 호남의 관문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지정학상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중간지점으로, 서쪽의 남북을 흐르는 금강과 남쪽의 동서를 흐르는 만경강을 경계로 하여, 평야지대의 도작문화(稻作文化) 중심지가 되어 왔다. 고대의 금마에 위치한 마한 건마국(乾馬國)이나 백제 말기의 익산천도(益山遷都), 그리고 백제멸망 후 고구려 유민들을 아울러 이룬 보덕국(報德國) 등이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개화기 이후의 이리역을 중심한 호남선·군산선(1912), 전라선(1914) 철도의 건설이 또한 이 지역의 미곡생산과 떼어 수 없는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중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당연히 중세에도 미곡생산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를 1380년(우왕 6)에 일어난 진포대첩(鎭浦大捷)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는 익산 웅포(熊浦)에 위치한 조창(漕倉) 덕성창(德成倉)¹⁾에 집적된 미곡을 탈취하기 위해 침범한 500척의 왜구(倭寇)를 물리친 전쟁이었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는 주로 진포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과정, 경과 등 전체적인 규모를 드러내는 데는 소홀해

1) 덕성창은 德成倉 외에 德城倉·德勝倉이라는 이름이 시대의 흐름과 위치의 변동 등으로 불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德成倉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진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쟁의 총체적인 규모를 염두에 두고 전장(戰場)을 중심으로 이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현재의 금강하구에 위치한 진포의 의미와 역할, 그 위치를 군산지역·서산지역 등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덕성창의 문제, 패전 왜구와 그 주력부대의 퇴각로와 남원 운봉에서 전개된 황산대첩(荒山大捷) 등 관련사항이 드러날 것이다.

기존에 제출된 관련 연구성과는 주로 군산과 서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²⁾ 이 지역에는 관련 기념물들이 서 있다. 이에 대하여 익산에서는 여러 유적과 함께 다양한 자료가 산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연구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세곡이 집적되어 있던 용포의 덕성창 지역은 고창리(古倉里)라는 이름으로만 남아 있고, 군관들의 무용(武勇)을 기르던 덕양정(德讓亭)은 활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전물장병을 제사지내던 용왕사(龍王祠)는 휴식처로 바뀌어 있다. 또한 왜적선 500척을 묶어 미곡을 퍼다 싣다 최무선(崔茂宣 1325-1395)장군의 화포(火砲)를 맞고 초토화된 웅연(熊淵)의 강바닥에는 조사선을 한 차례도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조사연구나 관련된 현창사업이 이루어진 일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연구에 앞서 전제한다면, 진포대첩에 대한 연구는 전장을 중심으로 확대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고, 진포와 덕성창을 비롯하여 익산·군산·서천·부여 등 대첩 유적지 및 관련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필요로 한다. 지자체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지역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공동연구가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된다면, 관련 현창사업은 이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대는 주목되는 일대의 성지가 될 것으로 본다.

II. 진포(鎭浦)와 덕성창(德成倉)

금강은 예로부터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던 곳이다. 이 연선에 백제의 공주(475), 부여(538)에 천도한 이후는 군사적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백제를 멸망으로 이끌어난 660년 나당연합군과의 전쟁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선에는 군사진지인 진(鎭)이 다양하게 설치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가운데서도 해안에서 금강에 접근하는 하구의 중요성은 지대하고, 이에 설치된 진은 연선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방어진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대에서 전개된 전쟁을

2) 전라북도 군산항토사연구회 주최의 학술세미나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군산대학교, 2000.10.10.), 충청남도 서천군 주최의 「진포구 대첩 학술대회」(서천문화원, 2007. 11. 22) 등이 개최되었다.

진포대첩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면 어떠할까? 금강하구와 관련된 지역은 군산·서천·익산이 중심이 되겠지만, 부안·김제 등의 해안과 부여·논산 등의 내륙도 이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포의 위치는 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종래의 연구결과를 보면,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특정한 1개 지역으로 비정하는 입장을 주로 취해 왔다. 진포의 서천설과 군산설이 그것으로, 결국 진포대첩도 한 지역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을 가져오게 되었다.³⁾ 따라서 이는 사서 기록을 재검토하여 결론이에 서천먼저 서천지역으로 밝혀지는 경위이다.

- <1> 진포는 서천군의 남쪽 26리에 있으며 해포이다. 임천의 고다진에서 서천포에 이르는 포구들을 통틀어 진포라 하고, 그 사이의 여러 진과 포는 모두 진포의 도섭처이다.
 갈산포. 군의 동쪽 13리에 있다. 물이 저령에서 시작되며 진포로 들어간다.⁴⁾
- <2> 오포. 군 동쪽 11리에 있으며 월명산에서 발원하여 진포로 들어간다.
 아포. 군 남쪽 20리에 있는데, 서천군과의 경계이며, 진포의 하류이다.
 이상 여섯 나루는 모두 공주·웅진의 하류이다. 한산군에 들어가며, 진포가 된다.⁵⁾

이 자료 <1>·<2>는 이행(李荇) 등이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충청도 한산군과 서천군, 곧 현재의 서천군조에 나타나는 진포에 관한 기록이다. 이에 의하면 진포를 서천군 남쪽을 지정하거나, 금강의 부여군 임천에서 서천에 이르는 전 지역을 진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포라는 말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를 말하므로 금강의 하구일대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진(鎭)은 위치로 보면 서천군의 남쪽 26리에 위치하며, 그 관할지역은 해변 연안 포구에서 부여 임천에 이른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포를 군산 옥구지역으로 기록한 경우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 <3> 조종포(전에는 진포라 불렀다. 임피군 신성창이 여기에 있다)⁶⁾
- <4> 군산. 옥구현의 북쪽 진포에 있다.⁷⁾
- <5> 진포. 현의 북쪽 17리에 있다. 공주 웅진에서 부여에 이르러 남으로 휘어서 용안현의 동쪽에 이르

3) 이영,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일본역사연구』 15, 일본사학회, 2000, 17쪽 참조.

4) 鎭浦. 在郡南二十六里. 海浦也. 自林川古多津. 至舒川浦. 通謂之鎭浦. 其間諸津浦. 皆鎭浦之渡涉處. 吉山浦. 在郡東十三里. 源出渚嶺. 入鎭浦.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9, 忠清道 舒川郡 山川)

5) 朽浦. 在郡東十一里. 源出月明山. 入鎭浦. 芽浦. 在郡南二十里. 舒川郡地界. 鎭浦下流. (同 卷17, 忠清道 韓山郡 山川). 以上六津. 皆公州熊津下流. 入韓山郡. 爲鎭浦. (同 林川郡 山川)

6) 「朝宗浦(前號鎭浦. 臨陂郡鎭成倉在焉).」(『高麗史』 卷33 食貨, 成宗 11年)

7) 「群山. 在沃溝縣北鎭浦.」(『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

러 서쪽으로 흘러가 바다에 도달한다. 진포가 바다에 들어가는 곳이다.⁸⁾

진포 현의 북쪽 16리에 있다. 어량이 있다.⁹⁾

이 자료 <3>·<5>는 『고려사』와 『세종실록』,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라도 임피군, 군산 옥구현조에 나타나는 기록이다. 자료 <3>은 일찍이 고려초인 992년(성종 11)의 기록이므로, 군산일대가 임피군이었을 때부터 진포가 존재했고, 이에는 진성창이라는 조창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와함께 <3>·<5>가 다같이 금강하구의 군산지역에 진포가 존재했음이 드러난다. 서천조에서는 진포를 일정한 지점으로 말하면서도 해포 일대를 가리키는 데 대하여¹⁰⁾ 옥구현조에서는 오히려 특정지역 중심의 기술이 두드러진다.

과연 진포에 관한 위의 두 지역에 대한 기술대로 고지도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동여비고』(1682)에는 금강하구의 남쪽인 군산지역에, 『대동여지도』(1863)에는 북쪽인 서천지방에 표시되어 있다.¹¹⁾ 진포로 표시한 두 지역이 금강을 두고 남북으로 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포가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과 전라북도의 군산에 다같이 존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인지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6> (금강은) 오른쪽으로 임천의 남천을 지나고, 왼쪽으로 양교천을 지나 남당진이 되며, 오른쪽으로 상진포를 지나 서진포(西鎭浦)가 되고, 오른쪽으로 길산천을 지나 모포가 되며, 왼쪽으로 옥구의 전천(前川)을 지나 용당진이 되고, 서쪽으로 서천포에서 바다로 들어간다.¹²⁾

라 하여, 서진포를 말하고 있다. 이가 서북쪽인 서천지역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동남쪽인 군산지역에는 동진포(東鎭浦)가 있음이 간파된다.

1925년 경부터 군산지역의 고적을 조사해 온 타케나카 야스오(竹中康雄)은 경장리 해변을 조사하여 군산포영(群山浦營)과 군산창(群山倉) 및 관련 마을을 그리고, 그 서쪽(바다쪽)의 해변에서 산에 이르는 축성형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건너편 서천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8) 「鎭浦. 在縣北十七里. 公州熊津至夫餘. 折而南. 至龍安縣東. 匯而西. 而入于海. 鎭浦內入海處.」(『新增東國輿地勝覽』卷34, 全羅道 臨陂縣 山川)

9) 「鎭浦. 在縣北十六里.」(同, 沃溝縣 山川)

10) "(이들) 용례는 진포(금강하류)에서부터의 거리와 방향을 표시함으로써 舒川 · 韓山 · 沃溝(현재의 군산시) · 臨陂 · 龍安 등 금강하류를 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표시하고자 한 것으로, 결코 진포를 어느 한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영, 「진포구 전투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앞의 「진포구 대첩 학술대회 발표논문」, 24쪽)

11) 김종수,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전라문화연구』 12, 전북향토문화연구구회, 2000, 69쪽)

12) 「右過林川之南川. 左過良橋川爲南塘津. 右過上之浦爲西鎭浦. 右過古山川爲茅浦. 左過沃溝前川爲龍塘津. 西至舒川浦入于海.」(『增補文獻備考』卷20, 輿地考 8, 山川 2, 錦江)

<7> 현재는 장암이라 불리고 있지만, 옛날은 장암진(長岩鎭) 혹은 서천포라고 불리고 예로부터 군산과 서로 나란히 금강을 방비 경영하는 열쇠를 진 관방(關防: 국경의 방비)의 소재지였다. 현재도 은행 나무를 둘러싼 석축의 성곽이야 말로 지난 옛날을 말하는 유일한 실마리라고 해도 좋다.¹³⁾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과 서천이 금강하구의 방어라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 온 예부터 내려오던 진지가 진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 군사적 임무를 상기하면서 다시 『대동여지도』(<그림 1>)를 살펴보면, 진포를 육지가 아니라 금강하구의 해면에 표시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도에는 진포와 함께 덕성창이 있었던 옹포지역에 진성창이 나타나는데, 진포와 진성창이 이름에서부터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덕성창이 시대에 따라 지역을 옮기기도 하였는데, 김정호(金正浩, 1804-1866)가 『대동여지도』를 작성할 1860년대에는 진성창이라는 이름으로 옹포에 존재했다는 말이다.



<그림 1> 『대동여지도』의 진포와 덕

그러면 왜 이와같은 서진포 등의 기술이나 지도의 해면에 진포 표시 등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진포가 마을이름과 같은 행정 단위 형태로 파악한 데서 생긴 문제이며, 군사요새인 방어진지의 특성을 간과했음을 상기하게 된다. 군사적으로 보면, 금강하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진(鎭)이 강을 중심으로 남·북지역을 같이 방수(防守)하지

않으면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강의 양쪽에 다같이 진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한 쪽이 주진(主鎭)이 되면, 마주한 쪽에는 분진(分鎭)이 되고, 사람들이 이들을 모두 진, 곧 동진·서진 등으로 불렀다면 금강하구의 양안(兩岸)에서 진포의 존재가 나타나는 의미가 명확해진다. 또한 시대에 따라 주진과 분진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진에는 양안을 연결하는 나루(津)가 부설되고, 주위에 관련 마을(渡船部落)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조창 등 세곡(稅穀) 창고는 진(鎭, 津)과 가까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집적과 관리 등이 용이한 대로 진에서 관리가 가능한 곳에 두어졌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비로소 익산 옹포에 설치된 덕성창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조운창(漕運

13) 竹中康雄 著, 『群山開港前史』, 群山府, 1935. 최혜주 역, 『군산개항전사』, 전북연구원, 2009, 71쪽.

倉)이다. 조운창은 조창(漕倉) 혹은 조세창(租稅倉)으로도 불리며, 세곡의 수납 · 보관 · 운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익산지역에 있어서 이의 대표적인 형태가 고려말 이후 조선시대에 걸쳐 운영하던 것으로, 그에 유래하여 지금의 웅포면 고창리(古倉里)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 진포와 관련해서 익산 용안, 곧 웅포에 조세창을 설치하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8> 조선(漕轉)은 큰일이다. … 도관찰사 노송(盧嵩)은 무기(鉞)를 나눈 이래, … 좋은 계책을 세워 생민을 이롭게 하려고 바다를 좇아 살피고 그 지리를 살폈다. 전주 땅의 가장자리에 진포의 용안을 얻고, 나주 땅의 가장자리에서 목포의 영산을 얻었다. 모두 물가의 언덕진 곳으로 길게 뻗어 넓다.¹⁴⁾

이 자료 <8>은 1390년(공양왕 2)에 쓴 기록이다. 노송이 조창을 건설하기 위해 해로로 호남지방을 관찰하여 지상(地相)을 보아 용안과 영산 두 곳을 정했다는 내용이다. 용안지역은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이 함라·함열·용안 등 여러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는데, 현재는 함라산을 경계로 용안면과 웅포면으로 나뉘지만 용안현의 물가가 바로 웅포이다. 주목되는 바는 ‘진포의 용안’이라는 대목으로, 이는 ‘진포의 위수지역인 용안’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 덕성창에 대하여 조선초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9> 「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보고에 의하여 계하기를, “용안현의 덕성창은 본래 그 마을 이름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제 함열현의 피포로 옮겼사오니, 청하웁건대 덕성창이라 고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⁵⁾

<10> 「덕성창은 함열현 서쪽 피포에 있다. 함열·전주·남원·익산·고부·김제·금산·진산·순창·임피·옥구·만경·부안·정읍·금구·태인·임실·구례·운봉·장수·진안·용담·무주·고산·여산·용안 등의 조세를 이곳에 바친다. … 덕성창은 현의 서북쪽 10리쯤에 있다. … 덕성창의 수호군이 3명이다.」¹⁶⁾

이 자료 <9>·<10>을 통해 조선초기 덕성창의 실태가 파악된다. 자료 <9>와 같이 덕성창이 마을이름인 덕성창(得成倉)에서 유래했고, 고려시대에는 덕성창으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창고위치를 바꾸면서 덕성창으로 고쳤음이 드러난다. 자료 <10>의 함열현은 현재의 익산군 함열읍이 아니라, 현재의 하라면 함열리로, 피포는 <그림 1>의 지도에 나타나는 바

14) 「漕轉大務也. … 都觀察使盧公嵩. 自分鉞以來 … 欲立長策. 以利于民. 遵海而觀. 相其地利. 於全之界則. 得鎮浦之龍安. 於羅之界則. 得木浦之榮山. 皆有濱水之丘. 穹隆而曠.」(權近, 『陽村集』 卷11, 記類, 龍安城漕轉記)

15) 「戶曹啓. 全羅道監司報. 龍安縣得成倉. 本因里名爲號. 今移於咸悅縣皮浦. 請改以德成倉. 從之.」(『世宗實錄』 卷42, 世宗 10年 12月 22日 己亥)

16) 「德成倉在咸悅縣西皮浦. 咸悅全州南原益山古阜金堤錦山珍山淳昌臨陂沃溝萬頃扶安井邑金溝泰仁任實求禮雲峯長水鎮安龍潭茂朱高山礪山龍安租稅納于此. … 德成倉. 在縣西北十里許. … 德成倉守護軍三.」(『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 全州府)

와 같이, 용포지역에 위치한다. 아울러 이는 현재의 전북지역 일대의 26개소에 이르는 조세창의 미곡을 집적하는 도세창(都稅倉)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이 중에는 현재의 전라남도인 구례, 충청남도인 금산이 포함되며, 지리산과 노령산맥 북쪽 전 지역을 관할한다. 그리고 곡창지대인 현재의 익산 관내는 함열·익산·여산·용안의 4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전국의 조운창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표 1>¹⁷⁾과 같다. 이는 행정구역의 변화 등으로 『세종실록』의 내용과는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자료 <9>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다.

<표 1> 조선시대 조운창의 수세관할 지역

구분	조선전기			조선후기 변화			비고
	조창이름 (漕船數)	위치	수세관할지역	조창이름 (조선수)	위치	수세관할지역	
해운	공세관창(60)	아산	서산 등 35	공진창(15)	아산	온양 등 6	
	덕성창(63)	용안	전주 임실 남원 임피 김제 장수 금구 운봉 익산 만경 여산 금산 진산 태인 옥구 진안 고산 무주 함열 19	성당창 (12~14)	함열	익산 진산 고산 운봉 금산 용담 남원	
				군산창 (17~22)	옥구	진안 장수 금구 태인 임실 6	
	법성창(39)	영광	순창 등 15	법성창(28~31)	영광	순창 등 12	
	영산창(53)	나주	순천 등 17				
				마산창(20)	창원	함안 등 8	
				가산창(20)	진주	곤양 등 7	
				삼랑창(15)	밀양	현풍 등 5	
수운	가흥창(51)	충주	음성 함양 등 49	가흥창	충주	음성 등 15	
	흥원창	원주	횡성 등 5				
	소양강창	춘천	홍천 등 5				
	금곡포창	배천	해주 등 11	금곡창	풍천	신천 등 7	
	조읍포창	강음	평산 등 12	조읍창	황주	서흥 등 8	

이 <표 1>에 의하면 현재의 익산지역에 위치한 덕성창은 나주의 영산창, 영광의 법성창과 더불어 대표적인 조운창이었다. 이를 자료 <7>에 대비해 보면 고려말기의 흐름을 잇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덕성창에 전북지역의 전 조세가 모였다는 것은 이 지역이 도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의 중심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7) 이종범, 「익산지역의 조운창」 『익산향토문화』 5, 익산고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91~92쪽) 참조.

다만 진포대첩과 관련해 볼 때, 자료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덕성창을 수호하는 군사가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의문이 남는다. 조선초기에 이와 같았으니 그 전인 고려말기에도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인데, 군사 3명으로 창고수호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덕성창은 진포의 수호아래 있었기 때문에 진에 주둔한 병력이 외곽을 방어하고, 이들 3명의 군사는 오직 창고의 초병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진포대첩(鎭浦大捷)의 전개와 그 전장(戰場)

고려말기에는 대·소 규모의 왜구 출몰이 잦아, 남해안 각처 뿐만 아니라 내륙 깊은 곳까지 피해를 당하였다.¹⁸⁾ 그 대표적인 경우가 1380년의 진포대첩이라 할 것이다. 이를 사서에 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1> (우왕 6년, 1380) 8월海道원수 나세·심덕부·최무선을 파견하여 전함 100척으로 왜적을 추포하게 하였다. … 나세·심덕부·최무선 등은 왜적을 진포에서 쳐서 이기고, 포로가 된 334인을 탈환하였다. 김사혁은 남은 적을 임천에서 추포하여 46급을 참하였다. …(나세는) 우왕 초에 전라도 상원수 겸 안무사가 되었는데 왜선 500여 척이 웅연(熊淵)에 와서 머물다가 적현을 넘어 부령현에 침구하여 동진교를 무너뜨려 우리 군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늘 세가 변안열·조사민과 더불어 밤에 다리를 놓고 군사를 나누어 치니 적의 보병·기갑 천여가 행안산에 오르거늘 우리 군사가 4면으로 공격하니 적이 무너져 달아나는지라, 드디어 크게 격파하였다. … 또 (심)덕부·최무선 등과 더불어 전함 100척을 거느리고 왜적을 추격하여 잡으니 때에 적의 5백척이 진포구에 들어가 배를 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며 해안에 올라 주군에 흠어져 들어가서 불사르고 노략질을 방자히 행하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었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할 때 쌀이 땅에 흠어져 두께가 한자나 되었다. 세 등이 진포에 이르러 무선이 제조한 화포를 써서 그 배를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배를 지키는 자가 거의 다 타서 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 세 등이 진무를 보내어 전리품(捷)을 바치니 우왕이 기뻐하여 진무에 은 5십량을 주었고 백관이 하례를 베풀었다. (나세가) 돌아오매 미쳐 크게 잡희를 베풀어 맞이하였으며 세 등에게 금 각 5십량, 비장 정룡·윤송·최철석 등에게 은 각 50량씩 사하였다.¹⁹⁾

18) 李頌,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99; 허인옥, 「고려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 『전북사학』 46, 전북사학회, 2021, 91쪽 이하 참조.

19) 「八月, 海道元帥羅世·沈德府·崔茂宣等, 以戰艦百艘, 追捕倭賊. … 羅世·沈德府·崔茂宣等, 擊倭于鎭浦. 克之. 奪所虜三百三十四人. 金斯革, 追捕餘賊于林川. 斬四十六級. … (羅世)辛禰初, 爲全羅道元帥兼按撫使. 倭五十餘艘, 來泊熊淵. 踰狄峴, 寇扶寧縣, 毀東津橋. 使我兵, 不得進. 世與邊安烈·趙思敏等, 夜築橋, 分兵擊之. 賊步騎千餘, 登幸安山. 四面攻之. 賊徒奔潰, 遂大破之. … 又與德府·崔茂宣等, 領戰艦百艘, 追捕倭賊. 時賊五百艘, 入鎭浦口. 維船, 分兵守之. 登岸, 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穀于其船. 米棄地厚尺. 世等, 至鎭浦, 用茂宣所製火砲, 焚其船. 烟焰漲天. 賊守船者, 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世等, 遣賑撫獻捷. 禮喜. 賜賑撫銀各五十兩. 百官陳賀. 及換. 大設雜戲迎之. 賜世等, 金各五十兩. 裨將鄭龍·尹松·崔七夕等, 銀各五十兩.」(『高麗史』列傳 27, 羅世)

<12> 8월에海道원수 나세·심덕부·최무선을 보내 전함 100척으로 왜적을 쫓아 잡았다. 왜적이 공주를 침범하니 김사혁이 쳐서 쫓았다. 왜적의 배 500척이 진포 어귀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는 언덕에 올라 각 주·군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마음대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시체가 산과 들에 덮히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 땅에 쏟아진 쌀이 1자 부피나 되었다. 나세·심덕부·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처음으로 만든 화포를 써서 그 배를 불태우니,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넘쳐 적이 거의 다 타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 적이 포로한 자녀를 모조리 죽여 시체가 산같이 쌓여서, 지나는 곳마다 피의 물결이었다. 오직 3백 30여 명이 도망하여 왔다. 죽음을 벗어난 적은 옥주로 달아나서, 육지에 있는 적과 합세하여 이산·영동현을 불태웠다.²⁰⁾

<13> 경신(1380) 가을에 이르러 왜선 300척이 전라도 진포에 침입했을 때, 조정에서 최공(무선)의 화약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부원수에 임명하고 도원수 심덕부, 상원수 나세와 함께 배를 타고 화구(火具)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렀다. 왜구가 화약이 있는 줄을 뜻하지 못하고 배를 모아 묶고 힘을 다해 싸우려고 하였다. 무선이 화포를 발사하여 그 배를 다 태워버렸다. 배를 잃은 왜구는 육지에 올라와서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하고 다시 운봉에 모였는데, 이때 병마도원수(이성계)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왜구를 빠짐없이 섬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서로 잇달아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하였다.²¹⁾

<14> (심덕부는) 다시 서해도원수가 되어 나세 등과 진포에서 왜를 쳐서 첩을 올리니 우왕이 상을 후하게 내렸다.²²⁾

이들을 통해 1380년 8월에 일어난 진포대첩의 전후상황이 배경적 상세하게 밝혀진다. 이러한 전황에 대해 자료 <11>의 『고려사』 지리지에는 나세海道원수를 비롯한 고려 진압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술한데 대하여, 자료 <12>의 『고려사절요』에는 민간인들의 피해까지 담고 있어서 내용 보완이 가능하게 한다. 이들에 나타난 500척에 달하는 왜선에는 적어도 수 만명에 달하는 왜구가 승선했을 것이고, 금강하구에 위치한 진포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진포란 진포일대를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많은 병력이 배치되지 않았을 진포를 초토화시킨 왜구는 쉽게 진포 위수지역에 있는 익산 옹포의 덕성창을 장악했을 것이다. 왜구가 갖은 노략질을 행하여 ‘시체가 산과 들에 덮히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 땅에 쏟아진 쌀이 1자 부피’에 이르렀다고 한다. 시체가 산과 들에 덮혔다는 것은 지역들까지

20) 「八月, 遣海道元帥羅世, 沈德符, 崔茂宣, 以戰艦百艘追捕倭賊, 倭寇公州, 金斯革, 擊走之, 倭賊五百艘, 入鎮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遂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穀于其船, 米粟地厚尺, 羅世沈德符崔茂宣等, 至鎮浦, 始用茂宣所製火炮, 焚其船, 煙焰漲天, 賊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賊盡殺所俘, 子女山積, 所過波血, 唯三百三十餘人, 自拔而來, 賊脫死者, 趣沃州, 與登岸賊合, 焚利山永同縣, 金斯革, 追捕倭賊于林州, 斯四十六級, 羅世沈德符崔茂宣等還, 禡賜金各五十兩, 裨將鄭龍尹松崔七夕等, 銀各五十兩.」『高麗史節要』卷31, 辛禡 6年 8月)

21) 「及庚申秋, 倭寇三百餘艘, 至全羅道鎮浦, 朝議崔公火藥, 今可試矣, 內命爲副元帥, 與都元帥沈德符上元帥羅世, 乘船齎火具, 直至鎮浦, 寇不意有火藥, 聚船相維, 欲盡力拒戰, 茂宣發火具盡燒其船, 寇既失船, 遂登岸劫掠, 全羅以至慶尚, 還聚于雲峰, 上時爲兵馬都元帥, 與諸將殲盡無遺, 自爾倭寇漸息, 乞降者相繼, 濟海之民, 復業如舊.」『太祖實錄』권7, 太祖 4年 4月 壬午)

22) 「(沈德府)復爲西海道元帥, 羅世等, 擊倭于鎮浦, 獻捷, 禡厚可賞賜.」『高麗史』列傳 29, 沈德府)

살육을 당했다는 뜻이고, 백성들의 피와 같은 세미(稅米)가 적선에 옮겨지면서 길가에 30cm 나 쏟아졌으니 아비규환의 참상이 역연하게 드러난다.

고려조정에서 나세장군의 진압군을 파견한 것이 왜구침범으로부터 얼마 후의 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개경으로부터 해로로 군선을 이동하므로 많은 날자가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함이 100척이므로 대단위부대이며 특히 이 전쟁에서 처음 사용한 최무선장군의 화포(火砲)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함선에서 발사하여 왜선을 박살냄으로써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포로가 된 334인이 탈출하는 등 탈환했으니, 아마 짐을 나르고 노를 젓게 할 목적 등으로 붙잡힌 지역민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선박을 잃은 왜구들의 행동이다. 화포를 맞은 왜선은 화염에 싸여 많은 왜구가 불타 죽고 물에 빠져 죽었다. 특히 그들이 육로를 택하여 도망하면서는 닥치는 대로 인명을 살상하여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하니, 그 피해가 엄청났음을 말해준다.

왜적이 침범하여 전쟁을 치르고, 또 도망가면서 각처에서 분탕질을 일삼았으니, 이를 전장(戰場)개념으로 파악할 때 그 실상파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전장은 얼마나 확대되었을까?

우선 주(主) 전장은 위에서 밝혀 온 바와 같이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益山)·군산(群山)과 충청남도 서천(舒川)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서천은 진포가 위치한 금강하구로서 접적(接敵)이 이루어졌고, 익산 옹포는 덕성창이 있었으니 왜구들의 목적지였다.

부(副) 전장은 주 전장에 관련하여 전투가 이루어지고, 퇴각 내지 도망가던 잔당들이 국지전을 벌인 곳으로,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먼저 부령현 동진교에서는 변안열 등이 보병·기갑부대 1천여 왜구를 격파하고 있으니, 부령현은 지금의 부안(扶安)으로, 동진교는 김제(金堤)와 부안을 가르치르는 동진강변의 다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충청남도 부여(夫餘) 임천으로 달아나는 왜구 46인을 김사혁(金斯革, ?-1361-1385)이 참살하고, 공주(公州)에서도 왜구를 격살하고 있다. 또한 국지전은 멀리 충청북도의 옥천(沃川)과 영동(永同)에까지 미치고 있다.

또한 진포대첩은 자료 <13>과 같이, 연장(連繫) 전장으로 전라북도 남원 운봉(南原雲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패잔 왜구의 주력부대가 육로를 택해 일본 쪽인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황산에서 기다리는 이성계장군과 전쟁이 이루어진다. 이에서 이성계는 왜장 아지발도를 사살하고 왜병을 초토와 시켜 이른바 황산대첩(荒山大捷)²³⁾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서 살아남은 왜구 90명이 지리산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그 밖에 살아남은 자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된 진포대첩을 전장 중심으로 보면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23) 황산대첩에 대해서는 김덕진, 『황산대첩-이성계, 역성혁명을 마음먹고』(동서, 『전라도의 탄생 1 : 생활의 터전』, 선인, 2018); 김민규, 『황산대첩비 연구』(『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202쪽 이하) 참조.

〈표 2〉 진포대첩의 전장형태

구분	지역	전투	비고
주(主)전장	군산·서천	진포 방어전 등	기념탑·비·공원 건립됨
	익산	덕성창 미곡쟁탈 등 웅연 왜선 격침 등	용왕사·덕양정 건립됨기념시설 없음
부(副)전장	부안·김제	왜구 보병·기병 등 제압	국지전
	부여·공주·옥천·영동	퇴각 왜구 제압	
연계(連繫)전장	남원 운봉	아지발도 등 퇴각주려 왜군 제압	황산대첩

그렇다면 왜구를 무너뜨린 진포대첩의 주된 장소는 어디였을까? 바꾸어 말하면 왜구가 육로를 택해서 일본 쪽인 남으로 향하고 있는데, 쉬운 길이라면 전주를 거쳐 구례-하동으로 향하는 길이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주는 관찰사와 함께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피할 수 밖에 없다. 전주를 피하여 남하하는데 주력부대가 진포의 외곽인 김제·부안에 있었다면 구례-하동이나 영암 쪽을 택했을텐데 왜 남원 운봉으로 향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금강을 따라 옥천·영동, 혹은 경상도를 거쳐 남원으로 향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의문은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주력부대가 웅포에서부터 금강의 상류를 따라, 혹은 함라산을 넘어 전주를 피해 남원으로 도망갔을 것이라 추측해보지 않을 수 없다.²⁵⁾ 일찍이 웅포인 이갑세(李甲世) 웅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5> 웅포라는 이름은 금강변의 곰형상을 한 돌(熊像巖)에 연유했는데, 근년에 직선으로 도로를 넓히면서 이를 무너뜨렸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금강은 하구에서 강경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는데, 용왕사 앞의 넓은 해면(海面)이 웅연(龍淵)으로 이곳에 왜구 5백 선단이 위치해서 덕성창의 세미를 퍼다 실었다. 이곳에 최무선이 왜선들을 향해 화포를 쏘서 박살이 났으니, 강바닥에는 아직도 왜선의 잔재가 남아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이곳에 명주실에 돌을 묶어 놓으면 한 꾸러미가 다 풀리도록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²⁶⁾

그는 현장을 찾아 용왕사의 진포대첩 전몰인들에 대한 제사가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으며, 덕양정 옛 현판이 웅포경로당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주민들 사이에 진포대첩의 정신이 확실히 전승되는 지역정서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24) 이하 참조. 이를 증명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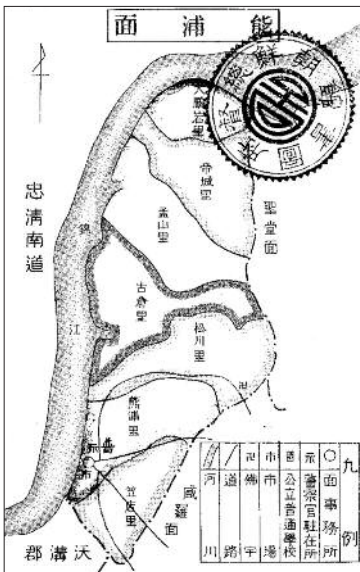
25) 익산문화원 편, 『익산향토지』, 익산문화원, 2005, 364쪽에서는 패잔 왜구의 주력부대가 충청북도 영동을 거쳐 내륙으로 들어 남원으로 향했다 하고, 충청남도 서천의 『海道元帥羅世鎭浦大捷碑』에서는 자료 <13>과 같이 경상도를 거쳐 남원에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26) 이갑세 웅은 익산군 의원을 역임한 분으로 몇 년전 작고하였다. 증언은 2019년 9월 18일 웅포면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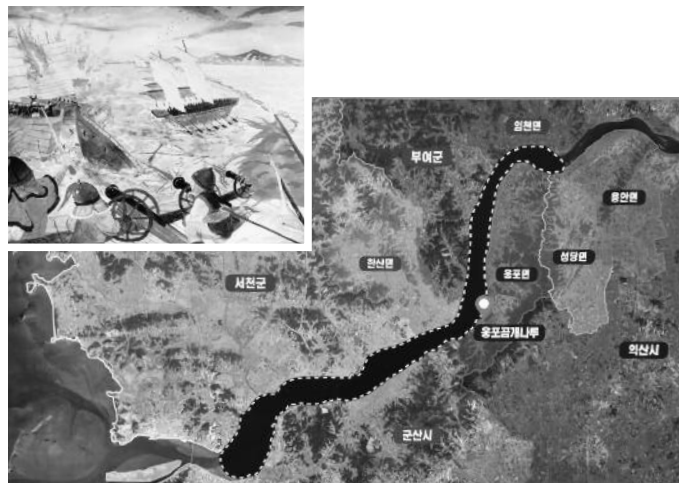
IV. 진포대첩의 유허(遺墟)와 현창사업의 방향

위의 자료 <14>는 진포대첩이 끝나고 고려조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후한 상이 내려움을 단적으로 전한다. 이색(李穡, 1338-1396)의 『목은집(牧隱集)』에는 권 25의 「나세·심덕부·최무선 세 원수참가섬 개선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 때문에 교외로 마중 나가지 못하다(聞羅世沈德符崔茂宣三元帥回。病不能郊迎)」 등 진포대첩을 비롯한 많은 왜구관련 시문이 전한다.²⁷⁾ 진압군이 대승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상찬(賞讚)이 계속되었지만 전장으로 화한 지역에는 아물기 어려운 피해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위무(慰撫)하고 방어체제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진포대첩의 현장은 오늘 어떻게 남아 있으며, 관련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현장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 일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포대첩과 관련된 웅포일대는 <그림 3-1>의 지도²⁸⁾와 같은데, 이 가운데 대첩 관련 유허 등이 존재한다. 웅포관광지 캠핑장의 진포대첩지 안내문에는 <그림 3-2>과 같이, 전장이 된 일대의 지도와 전투장면을 그려놓았다.



<그림 3-1> 웅포지역, 금강과 고창리



<그림 3-2> 진포대첩 전장과 전투도(익산웅포 캠핑장의 대첩안내도)

27) 「왜구관련 이색선생의 시(앞의 『진포구대첩 학술대회 발표논집』 부록) 참조. 이에는 무려 82편의 왜구에 관한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진포대첩·황산대첩 관련이 10여편에 이른다. 다만 이들에는 작시 일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압군의 움직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28) 木原壽 編『益山郡事情』朝鮮印刷株式會社, 1928, 大附錄 熊浦面 表紙. 1914년 행정구획 개편에 의해 익산·여산·함열·웅안의 4 개군이 익산군으로 통합기 전의 웅포는 웅안현에 소속되어 있었다.

가. 고창리(古倉里)와 덕성창(德成倉)



<그림 4> 덕성창이 위치했던 고창리

익산 옹포면 고창리는 세곡을 집적했던 조운창 덕성창(德成倉)이 위치했던 마을이다. 옹포면사무소의 북쪽에 위치하며(<그림 4>), 창고가 위치했던 곳에는 덕성정(德成亭)이 세워져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그 유허는 발굴된 적이 없다.

<16> 금무포. 관아에서 동쪽 5리를 지나는 곳에 있다. 옛날에는 덕성창이 있었는데, 후자는 덕성창이라고 부른다. 권근의 기록이 있다. 지금은 함열의 성당창으로 옮겼다.²⁹⁾

시대에 따라 창고의 이름과 장소가 다양하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이름이 시대에 따라 다른 장소를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나. 용왕사(龍王祠)와 덕양정(德讓亭)

원래 덕양정이 위치했던 금강변에는 용왕사(龍王寺)라는 절이 있어 전면 1칸, 측면 2칸으로 기와를 올려 사당의 형태를 띄면서 약 400여 년 동안 전승되었다고 한다. 군민이 이에 모여 순절한 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고 풍어(豐漁)를 기원하여 위령제제와 풍어제를 지냈는데, 1945년 심한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재건하였지만 관리소홀로 퇴락하였다.³⁰⁾ 『익산군사정』에서는 “용왕사(龍王祠)는 옹포리에 있으며 100년전에 건립되었다. 신당(神堂)이 있으며, 금강 연안일라서 풍경이 절승이다.”³¹⁾라 하였다. 이들 자료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후 절이 이루어져 전몰인들에 대한 천도재를 올리다가 절이 허물어지면서 제사를 지낸 사당만이 운영되었던 모양이다. 일제강점기 때에 제사가 폐지되고난 후, 1982년 퇴락한 용왕사를 허물고 그곳에 2층 육각정의 정자를 세운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그림 5>) 유허에는 표지가 세워져 있는데, 현재의 용왕사는 원래의 목적인 제사기능은 상실하고 주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29) 「金頭浦. 在邑東過七里. 舊有得成倉. 或稱德成倉. 有權近記. 今移成悅聖堂倉.」(『龍安縣邑誌』山川)

30) 익산문화원 편, 앞의 책, 379쪽 이하 참조.

31) 같은 책, 1쪽 名勝古跡. 이에 의하면 용왕사는 사당이 영·정조 이후에 건립되었다는 말인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덕양정은 사정(射亭)의 이름으로, 원래 현 웅포초등학교 뒤편 구릉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무예도장의 역할을 하던 곳이다. 조선 숙종대에 건립되어 250-26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의병이 이 지방에서 일어나자 의병의 양성소로 생각한 일본 헌병에 의해 폐쇄되었다. 1982년 이를 재건할 때 유허지가 아니라 금강변의 캠핑장 입구에 세워졌다.(<그림 6>) 현판은 이삼만(倉巖 李三晩, 1779-1845)의 문인 서흥순(護山 徐興淳, ?-?)이 썼는데, 현재의 현판은 이를 복제하여 걸었다.³²⁾ 원래의 현판은 웅포노인정에 있 보관되어 있다.(<그림 7>)



<그림 5> 재건된 용왕사



<그림 6> 재건된 덕양정



<그림 7> 서흥순 필 <덕양정 현판>

다. 웅연(熊淵)의 진포대첩지(鎭浦大捷址)

용왕사의 아래쪽, 캠핑장 강변에 진포대첩지 안내판이 서 있다.(<그림 8>) 그리고 그 앞쪽 해면이 『고려사』에 나오는 웅연으로 비정되는 곳이다.(<그림 9>) 덕성창에서 미곡을 퍼날라 왜선에 실었다고 했으므로, 그렇다면 왜선 500척을 연결시켜 묶은 곳이 고창리 앞인 이곳이었을 것이다.



<그림 8> 웅포의 진포대첩지 안내문

32) 같은 책, 379쪽 이하 참조.



<그림 9> 고창리 앞 해면 웅연

라. 군산의 진포대첩기념탑(鎭浦大捷紀念塔)과 진포대첩사적비(鎭浦大捷事蹟碑)

금강하구인 군산·서천에 진포가 위치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군산에서는 관련 현창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위에서 밝힌 학술대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새로 이루어진 도로명에 진포로(鎭浦路)가 생긴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현재 금강하구쪽 밖의 금강시민공원, 곧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77에 진포대첩기념탑(<그림 10>)이 서 있다. 군산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9년 높이 19.7m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조형물에는 최무선이 처음 사용한 화포 등이 갖추어 있고, 안내문이 갖추어져 있다.



<그림 10> 군산 금강시민공원의 진포대첩기념탑



<그림 11> 군산 금강시민공원의 진포대첩사적비

또한 진포대첩기념탑 옆에는 진포대첩사적비(<그림 11>)가 서 있다. 진포대첩기념탑과 같은 해인 1999년 11월에 건립되었다. 오석(烏石)의 4면비에 화강암으로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갖추었다. 그리고 진포대첩이 이루어진 과정을 한글로 작성하였는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짓고 서예가 권갑석(如山 權甲石, 1924-2008)이 썼다.

마. 군산의 진포해양테마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은 군산 부두의 뜬다리(浮殘橋) 근처, 곧 군산시 내항2길 32에 마련되어 2008년에 개관하였다.(<그림 12>) 진포대첩을 기념하여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육·해·공군의 퇴역장비 13종 16대를 전시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 4200톤급 위봉함을 비롯한 해경정, 수륙양용장갑차, F-86 전투기 등을 전시하였다.(<그림 13>)



<그림 12> 군산의 진포해양테마공원



<그림 13>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전시된 함정

바. 서천의 고려해도원수나세진포대첩비(高麗海道元帥羅世鎭浦大捷碑)

서천지역에 군산과 마찬가지로 진포가 있었음은 위에서 밝힌 바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산리 855번길 56-2, 금강하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해도원수나세진포대첩비가 서 있다.(<그림 14>) 군산의 진포대첩기념탑처럼 현재의 하구둑 밖에 위치하며 서천군수가 세웠다. 오석 4면비에 귀부와 이수를 잘 갖추고 있, 비문은 국한문 혼용인데, 제19대 해군참모총장 김홍렬(金弘烈)이 짓고, 나세 후손 서예가 나동균(羅東均)이 썼다.

이렇게 보면, 진포대첩의 현창사업은 특히 익산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분명해진다. 그 가운데 군



<그림 14> 서천의 고려해도원수나세진포대첩비

산에서 세운 탑과 비, 그리고 해양테마공원, 그리고 관련 학술대회가 실질적이었다는 말이다.

현창사업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예로 황산대첩비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남원 운봉 현지에는 1577년(선조 10)에 비를 세우고(<그림 15-16>), 1667년(현종 8) 비각을 세웠으며, 1882년(고종 19)에 비를 다시 세우고 비각을 고쳐지었다.<그림 17> 그리고 옛비는 파비각(破碑閣)을 마련하여 깨어진 비를 정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그림 18> 다만 대첩비를 세운데 그치지 않고 안과 밖을 널리 조성하여 성역화하고 있는 것이다. 황산대첩은 큰 전쟁인 진포대첩에 연계된 전쟁인데, 그 현창사업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5> 황산대첩의 원경



<그림 16> 황산대첩의 삼문



<그림 17> 황산대첩의 비각



<그림 18> 황산대첩의 폐비각

그러면 익산 웅포에 있어서 진포대첩의 현창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관·학·연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³³⁾

첫째, 진포대첩 관련지역의 공동학술연구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지역 중심으로 연구하면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움은 물론 지역이기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익산을 비롯하여 군

33) 김민영,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와 재현행사 활성화방안」, 『韓國島嶼연구』 28-3, 한국도서학회, 2016, 7쪽 이하에서는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포대첩 재현행사 활성화방안으로 화포의 무기 등 소품의 재현, 군복 및 기타 복식의 재현, 축제와 공연을 위한 스토리텔링, 진포대첩의 영화화 방안, 상설 체험공간 마련 및 기타 연계 실천방안 등을 제기하고 있다.

산·서천 그리고 남원의 황산대첩에 이르기까지 연계해서 다루어진다면 전체적인 파악이 용이해진다. 특히 진포를 금강하구의 방어진지로 그 위수지역의 덕성창과 관련해서 전투가 벌어졌으므로 군사학(軍事學)을 비롯하여 지질학·민속학 등 관련 전문가를 섭렵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덕성창을 비롯한 진포대첩 관련지에 기념관·구조물 등 시설을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 유허에 대한 발굴작업이 선행되어야겠지만, 규모를 갖추어서 국비 등의 공비(公費)를 확보하는 일도 아울러져야 할 것이다. 그 일단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웅포지역의 진포대첩 기념물

관련지역	시설물		비고
덕성창지(德成倉址)	기념관 건립	락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및 전수교육관 기능	각 유허에 표석·안내판, 안내지도 설치
용왕사지(龍王祠址)	용왕사	위령제·풍어제 거행	
덕양정지(德讓亭址)	현 덕양정	국궁(國弓) 등 무예기능	
진포대첩지(鎭浦大捷址)	기념탑·사적비 건립	공간을 확보하여 화포 등 시설물 건립	
고창리(古倉里)일대	테마공원 조성		

셋째, 진포대첩을 되살리는 축제가 이루어져 이상의 여러 사항을 유기적으로 살려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관련 콘텐츠개발이 요청된다. 이웃지역과 연계가 된다면, 금강하구를 준설하여 진포에서 덕성창까지, 혹은 군산-서천-익산-부여를 잇는 유람선을 띄울 수는 없을까? 의견을 모아보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V. 결론

이상에서 진포와 덕성창에 유의하면서 진포대첩에 대하여 일별하였다. 고려말인 1380년(우왕 6)에 일어난 진포대첩은 500선단을 이끌고 익산 웅포에 위치한 덕성창의 세미를 탈취하기 침범한 왜구를 격퇴시킨 전쟁이었다. 종래 이에 관해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향이 주로 진포의 위치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는 자칫 특정지역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로 흘러가는 경향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전장(戰場)개념으로 접근하므로써 총체적인 상황을 직관하고자 하였다.

이는 물론 앞으로 관련 연구나 현장사업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미인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진포는 현재의 군산과 서천에 설치되어 금강하구 일대의 방어진지라는 점이다. 이는 금강을 출입하는 선박 뿐만아니라 양안(兩岸)을 동시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진이 두 곳에 동시에 두어져 본진(本鎭)과 분진(分鎭)으로 나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진포에는 포영(鎭營)과 마을, 축성 등을 갖추고 나루(津)를 관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수지역 안에 덕성창(德成倉)이 있었고, 이를 수호하는 외곽업무를 담당하므로써, 덕성창에는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었다.

둘째, 덕성창은 현재의 익산 옹포 고창리(古倉里)에 위치하는 조운창(漕運倉)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20여 곳의 세미를 집적하므로써 나주의 영산창과 영광의 법성창과 함께 3대 도창(都倉)이었다. 따라서 그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왜구에게는 노략질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관리나 지형의 변화 등으로 시대에 따라 창을 옮기고 이름을 달리하기도 했다.

셋째, 1380년(우왕 6) 8월, 왜구들은 500척의 선단을 꾸며 덕성창의 세미를 탈취하기 위해 침범하였는데, 고려조정에서海道원수 나세(羅世)를 비롯하여 심덕부(沈德符)·최무선(崔茂宣) 등을 지휘관으로 한 진압군을 전함 100척에 실어 보내 격파하였다는 점이다. 왜구는 500척의 선단을 묶어매어 창고의 쌀을 탈취해 실었는데, 특히 최무선이 고안한 화포(火炮)를 처음 쏘아 선단을 박살냄으로써 왜적을 격살하고 대승을 거두었으니, 이를 일러 진포대첩(鎭浦大捷)이라 부른다.

넷째, 왜구와의 전투는 진포를 침범할 때부터 그들이 패전하여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는데, 편의상 이를 주(主) 전장과 부(副) 전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진포에서 덕성창까지의 군산·서천·익산지역을 본 전장으로 본다면, 진포 밖 동진강지역의 부안·김제, 쫓겨가던 부여·공주, 그리고 옥천·영동 등은 부 전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 전장개념으로 보면, 패전 왜구의 주력부대가 육로를 택하여 퇴각하다가 남원 운봉에서 이성계장군의 부대에 의해 왜장 아지발도가 죽는 등 크게 격살된 황산대첩(荒山大捷)이 이루어졌으니, 이는 연계(連繫) 전장이라는 점이다. 이 황산대첩은 이성계의 정치적 지위의 이동, 곧 조선건국으로 이행되는 그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어서 학계에서도 주목해 오던 바이다.

여섯째, 진포대첩의 현장사업은 주 전장이 되었던 군산·서천·익산이 연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연합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해서 무방하며, 현장사업 역시 그러하다. 현재 군산과 서천에는 기념탑·비·공원 등이 갖추어졌고, 남원 운봉에도 또한 그러한데, 익산 옹포의 현지에는 용왕사·덕양정 등 외에는 안내판만 존재할 뿐 이렇

다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덕성창이 위치했던 고창리를 중심으로 목적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또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왜구는 정규 일본군은 아니겠지만 그 주력부대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와 침범은 어떠했는가? 고려의 진압군은 어떤 규모였으며, 그 지휘관들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고려의 군함은 어떠했으며, 최무선이 쏜 화포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진포 등의 산성이나 방어진지는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덕성창의 이동 등 그 역사는 어떠한가? 진포대첩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떠했으며, 왜구 주력부대의 퇴각은 어느 곳을 경유했는가? 용왕사의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경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군사학·지질학·민속학 등 전문분야 연구자의 참여 내지 공동연구가 요청된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스토리텔링 등 문화콘텐츠의 개발이나 현창사업의 전개 등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본다.

1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고려의 대응 양상

발표 _ 임형수 (충북대학교)

1. 머리말
2. 진포의 위치에 대한 재해석
3. 왜구의 진포 침입과 대응 양상
4. 진포대첩 이후의 전황
5. 맺음말

경우 道⁴⁾ 또는 州縣⁵⁾을 단위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실제 왜구의 침입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으로 번져나갔으며 때로는 수백리가 넘는 지역을 휩쓸었기 때문에 행정 구역별 검토와 함께 광역 단위로 묶어서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약탈자의 입장에서 충청이나 호남과 같은 지역 경계는 그다지 구애받지 않았을 것이다. 왜구는 선박을 이동 수단으로 삼아 고려의 해안에 접근한 뒤 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육지를 가로질러 내륙 깊숙이 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에 있는 포구, 하구, 곳, 섬 등이 그들 침입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금강 하구인 鎭浦와 금강 유역에 주목하였다.

진포는 예나 지금이나 전라와 충청의 경계이고 바다에서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다름없으므로 그 방어 여부에 따라 금강을 끼고 있는 여러 군현의 안위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사서에 “왜구가 진포로부터 양광, 경상, 전라 지역을 횡행하면서 군읍을 분탕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니 3도가 소란스러웠다.”⁶⁾는 기록은 바로 그러한 정황을 보여준다. 또한 왜구가 진포에 정박하면서 인근 주군을 노략질하자 禡王이 사람을 보내어 전라와 양광의 2도에 방비 조치를 취하게 한 일⁷⁾, 그리고 양광도 林州(扶餘郡 林川面)에 침입한 왜구를 全羅道兵馬使와 知益州事가 함께 싸워 물리친 일⁸⁾ 등은 적어도 왜구의 침입만 놓고 봤을 때 금강 이북과 이남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고는 진포를 주요 침투 경로로 설정하고 금강 유역이라는 광역 단위를 무대로 왜구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 양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2. 진포의 위치에 대한 재해석

금강 하구인 진포는 1380년(우왕 6)에 고려 수군이 화포를 사용해 왜구를 크게 물리친 진포대첩의 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간 진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도출되었는

4)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 손승철, 「고려시대 강원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 『江原史學』 24 · 25, 2010 ; 이정란, 「왜구의 충청 지역 침구의 시기별 추이와 고려의 대응」, 『史林』 52, 2015 ; 허인욱, 「고려 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全州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6, 2015.

5) 李領,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 李在範,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軍史』 58, 2006 ; 윤용혁, 「고려 말 보령지역의 왜구와 金成雨」, 『역사와 담론』 66, 2013 ; 윤용혁,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역사와 담론』 69, 2014 ; 정영현, 「여말선초의 濟州와 倭寇」, 『한국민족문화』 75, 2020.

6) 『고려사』 권137, 열전50 신창 원년 9월 경신.

7) 『고려사』 권137, 열전50 신우 14년 5월.

8) 『高麗史節要』 권30, 신우 2년 6월.

데 크게 忠南 舒川과 全北 群山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진포대첩의 현장인 ‘鎭浦口’를 ‘서천~금강 어구’(또는 ‘서천, 금강 어구’)⁹⁾로 대략 언급하다가 근래 들어 각종 사료와 현장 답사를 통해 서천군 長項郡 일대¹⁰⁾로 비정하고 있다. 후자는 금강 하구 내지 금강에 인접한 옛 沃溝 지역¹¹⁾이나 군산시 聖山面,¹²⁾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12漕倉의 하나인 鎭城倉의 위치를 기반으로 성산면 倉梧里¹³⁾ 및 羅浦面 羅浦里¹⁴⁾ 등을 진포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는 대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위시한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실려 있는 지명과 거리 등 각종 지리 정보를 저마다 근거로 삼고 있다. 아울러 자주 인용되는 사료로 고려시대 기록인 『고려사』 食貨志의 992년(成宗 11) 朝宗浦 기사와¹⁵⁾ 서천설의 기원이 되는 18세기 英·正祖代의 『東史綱目』에 실린 주해¹⁶⁾ 등은 진포대첩이 일어난 해로부터 앞뒤로 무려 400백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다. 이로 인해 14세기 후반의 지리 인식과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변수가 많아 모종의 요인이 작용하여 의미상 변화를 불러일으켰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무엇보다 당대의 지리 인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간행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진포의 위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가장 먼저 진포로 비정되는 지역과 가까운 韓山郡 출신의 당대인으로 李穀(1298~1351)—李穡(1328~1396)—李鍾學(1361~1392) 3代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 시를 지어 누차 고향의 정취를 노래한 바 있는데 간혹 진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색은 “진포에 은퇴할 기약 저버린 지 이미 오래라(鎭浦鷗盟久已寒),”¹⁷⁾ “나 또한 돌아가서 진포의 배를 타 볼까나(我亦歸乘鎭浦船)”¹⁸⁾라고 하였으며 아들인 이종학 역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데가 어디인가, 진포에 있는 남시터라네(思歸何處是, 鎭浦有漁臺)”¹⁹⁾라며 시를 읊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진포는 대첩의 장소로 비정되었던 서천군이나 옥구현 등이라기보다

9) 李鉉淙, 「왜구」, 『한국사』 8, 탐구당, 1984, 223쪽; 金庠基, 『(新編)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636쪽; 朴龍雲,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7, 628쪽.

10) 李嶺 앞의 논문: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157쪽.

11) 金중수,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 『전라문화연구』 12, 2000: 『군산의 역사와 인물』, 2021, 72쪽.

12) 羅鐘宇,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410쪽.

13) 金중규, 「군산~강경의 수운(水運)과 나루터·포구의 유형」,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강(江)과 수운(水運)의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 선인, 2006, 47쪽.

14) 박영철, 「鎭浦와 鎭城倉」, 『전북사학』 44, 2014, 39쪽.

15) 『고려사』 권79, 志33 食貨2 漕運 成宗 11년, “朝宗浦, 前號鎭浦, 臨陂郡鎭城倉在焉.”

16) 『東史綱目』 제16상, 우왕 6년 8월, “入鎭浦口, 浦在今舒川郡南二十六里.”

17) 『牧隱詩藁』 권10, 蒙賜田有感.

18) 『목은시고』 권5, 次金月塘所寄詩韻.

19) 『麟齋遺稿』 關東錄 十九日曉吟二首.

저들의 고향인 한산군 일원²⁰⁾이라고 보는 쪽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이색이 고향 한산의 훌륭한 경치를 알리기 위해 지었다고 밝힌 八詠詩 가운데 「진포귀범(鎭浦歸帆)」²¹⁾이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한편 이색은 자기 고향을 말할 때 진포 외에 鎭江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내 집이 진강 가에 있고 성흥산과 거리가 겨우 30리이다(予家鎭江上, 距聖興山僅一舍),”²²⁾ “우리 집은 진강의 어귀에 자리 잡고 있어(吾家住鎭江口)”²³⁾라고 하였다. 또한 “진강에 또 원산이 있으니, 봄 조수 따라²⁴⁾ 나의 배 띄우기 좋으리라(鎭江有箇圓山在, 好逐春潮動我舟)”라고 하여 금강에 나갈 일이 있으면 원산에서 자기 소유의 배를 탔다. 그의 부친 이곡도 진강 원산에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부여 낙화암까지 갔다는 기록²⁵⁾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색의 詩題를 보면 “옛날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진포로부터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灌足寺 법회에 참여...(생략)…”²⁶⁾라고 하여 배를 탄 곳을 진강 원산이 아닌 진포로 서술한 사례가 있다. 혹시 14세기에 한산이씨 3대가 말한 진포는 원산을 가리키는 것일까. 위의 사료를 종합한다면 한산에 포구로서 또 다른 진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진포와 진강은 동일한 의미, 즉 금강 하류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가1) 진포: (서천)군 남쪽 26리에 있는 海浦이다. 林川 古多津(扶餘郡 世道面 頌詔院里)부터 舒川浦까지 진포라 통칭하는데, 그 사이 여러 津과 浦는 모두 진포를 건너는 곳이다(권19, 忠淸道 舒川郡 山川條).²⁷⁾

가2) (仇郎浦, 古多津, 江景津, 菁浦津, 南堂津, 上之浦津) 이상 6津은 모두 공주 웅진의 하류이며 한산

20) 이곡의 집은 한산군 北古村(韓山面 竹村里)이었다(韓永愚, 「稼亭 李穀의生涯와 思想」, 『韓國史論』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3쪽). 이색은 어린 시절을 한산에서 보냈고 崇井山(麒麟面 黃寺里)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으며(『목은시고』 권17 讀書處歌 并序) 금강으로 나갈 때는 圓山(華陽面 玉浦里)에서 배를 탔다(본문에 후술). 따라서 이들 3대가 한산에 머물 때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은 한산면, 기산면, 화양면 일원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본고에 인용된 이색의 작시 연대는 대략 1354~1379년(이익주, 「부록: 『牧隱詩藁』 작품 연보」,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으로 진포대첩 이전에 해당한다.

21) 『목은시고』 권3, 吾家韓山雖小邑 以予父子登科中國 天下皆知東國之有韓山也 則其勝覽不可不播之歌章 故作八詠云.

22) 『牧隱文藁』 권1, 此君樓記.

23) 『목은시고』 권4, 扶桑吟.

24) 금강하굿둑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窺巖津(扶餘郡 窺巖面 窺巖里)까지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풍향까지 가세할 경우 선박의 주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한다(김민영, 「금강 수운과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강(江)과 수운(水運)의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 선인, 2006, 136쪽).

25) 『稼亭集』 권5, 舟行記己丑之歲仲夏既望 自鎭江圓山夜半登舟 泝流至龍淵 天猶未明 已有松亭田居士與林州潘使君候于岸上 與之俱行 折旋而北 晚泊古城 明日至扶餘城落花岩下.

26) 『목은시고』 권24, 僧有辦來壬戌歲灌足寺彌勒石像龍華會者 求緣化文 既筆以與之 因記舊日陪慈堂自鎭浦浮舟而上 獲與是寺法會 癸卯冬 降香作法 皆如夢中 作短歌以記之.

27) 鎭浦, 在郡南二十六里海浦也. 自林川古多津至舒川浦, 通謂之鎭浦. 其間諸津浦皆鎭浦之渡涉處.

군으로 들어가 진포가 된다(권17, 忠淸道 林川郡 山川條).²⁸⁾

가3) 진포: (임피)현 북쪽 17리에 있다. 공주의 熊津이 부여에 이르러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가 龍安縣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며 바다로 들어가는데, 진포는 곧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다(권34, 全羅道 臨陂縣 山川條).²⁹⁾

위의 사례 가1)을 보면 진포는 고다진부터 서천포까지의 금강 줄기를 말하며 가2)는 한산군부터, 가3)은 금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으로 다소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데 금강 하류 또는 금강 하구를 의미한다고 대략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전라와 충청을 가리지 않고 금강에 접한 한산군과 옥구현, 또 하천 물줄기가 금강으로 들어가는 礪山郡 등에서 진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전남의 영산강 하류를 당시 錦江津, 錦川, 木浦, 南浦 등으로 불렀다는 기록³⁰⁾이 확인된다. 보통 ‘浦’는 지명과 관련 있는 글자가 앞에 붙을 경우 배가 정박하는 포구로 간주하기 쉽지만, 위의 여러 기록을 통해 당시에는 조수가 드나드는 강의 하류 내지는 하구의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실 선행 연구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분석을 통해 이미 언급된 바³¹⁾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서천과 군산 중 어느 한 편에 자리 잡은 특정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진포가 금강 하류와 특정 포구를 가리키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녔다고 귀결되었다. 진포를 특정 지점으로 상정할 경우 부득이 전라와 충청의 어느 한 군현을 비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연히 사료 해석을 두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진포를 서천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당장 1395년 崔茂宣의 卒記³²⁾에 나오는 ‘全羅道鎮浦’라는 문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³³⁾ 반대로 군산이라 보는 경우 龍安縣(益山市 龍安面)에 등장하는 진포를 설명하기 어렵다.³⁴⁾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참고 된다.

28) 已上六津皆公州熊津下流, 入韓山郡爲鎮浦.

29) 鎮浦, 在縣北十七里. 公州熊津至扶餘折而南, 至龍安縣東匯而西, 以入于海, 鎮浦乃入海處. 又見沃溝縣.

3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全羅道 羅州牧 山川條, “錦江津, 一名錦川, 一名木浦, 或云南浦, 卽廣灘下流, 在州南十一里”.

31) 이영, 앞의 책, 146~149쪽 ; 김중수, 앞의 책, 65~69쪽.

32) 『太祖實錄』 권7, 4년 4월 19일 임오.

33) 진포를 서천 방향으로 보는 연구에 의하면 전년에 양광도를 충청도로 개칭하여 당시 조정 관료들에게 충청도라는 지명이 익숙하지 않았고, 조선왕실의 고향인 全州府가 중시되면서 금강의 남안이 북안보다 더 주목받게 되었기 때문에 ‘전라도’라는 관형어를 붙였다고 이해하였다(이영, 앞의 책, 153~154쪽).

34) 진포를 군산 옥구로 보는 연구에 의하면 옹안 진포가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옹안과 진포가 동일한 지역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진포가 전라도 영역 안에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설명하였다(김중수, 앞의 책, 62~63쪽).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한 바대로 조선초기 실록에 ‘全羅道鎮浦’라는 문구가 몇 차례 등장하고 있어서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공주에서 금강이 되며…진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公州爲錦江…至鎮浦入于海)’, ‘군산진은 옥구현 북쪽 진포에 있다(群山在沃溝縣北鎮浦)’, ‘진포가의 옹안과 옥구(鎮浦之邊龍安沃溝)’ 등과 같은 말이 확인되므로 여전히 특정 지점이 아닌 금강 하구 일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라도 경계 진포(全羅道境鎮浦)’와 조운할 때마다 진포에 이르면 충청도 선군이 말아 京江에 수송하고 배는 진포로 돌아가 전라도 사람에게 주자는 건의 등을 보아 조선시대에 금강 하구인 진포는 전라도에서 관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고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나1) 都觀察使 盧嵩이 이곳을 말아 내려온 이래로 민생의 이득과 병폐를 빠짐없이 따져서 계획을 세우는데 漕轉에 더욱 뜻을 두었다. 장구한 계획을 세워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바다를 따라 보면서 그 땅의 이로움을 살폈다. 전주의 경계에서는 곧 진포의 용안(鎭浦之龍安)을 얻었고 나주의 경계에서는 목포의 영산(木浦之榮山)을 발견하였으며, 모두 물가에 언덕이 있는데 (가운데가) 솟아올랐고 (주위가) 활짝 트였다.³⁵⁾

나2) 용안에서 비바람에 막히어 벽상의 운을 써서 적다.모악산 바람이 심히 노했으니진포에 비가 막 갠 때로다…(중략)…맑은 새벽에 휘장 걷고 앉았노니처마에 빗소리 깊기도 하여라조수는 아득히 바닷가(浦)에서 나오고새는 어두운 숲을 지나는구나.³⁶⁾

위의 사료 나1)은 權近(1352~1409)이 지은 「龍安城漕轉記」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1390년(恭讓王 2)년에 전라도도관찰사 노승이 진포 용안과 목포 영산에서 조창의 입지를 찾았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용안의 경우 1390~1428년간 조창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1417년(太宗 17)부터는 得成倉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포와 목포는 각각 금강과 영산강의 하류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원문에 분명히 ‘鎭浦之龍安’라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반대로 ‘용안의 진포’라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진포를 금강이 아닌 포구로 파악하여 진포의 용안, 다시 말해 진포에 있는 용안으로 풀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2)는 金宗直(1431~1492)이 용안에 왔을 때 지은 시이다. 여기에 등장한 진포는 용안현 내에 있는 나루로 볼 수도 있지만 시의 구조상 전주의 모악산과 대구를 이루며 자연지물로서 금강을 의미한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뒤 부분의 내용은 새벽에 금강으로 조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浦’를 특정 지점, 즉 배로 강을 건너는 나루로 해석하면 여기에서 조수가 나올 리 없으므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상의 간략한 분석을 통해서 진포는 금강 하류를 가리키는 말로 남북 양안의 임천, 한산, 서천, 용안, 임피, 옥구 등 군현에 접해 있고 한산이씨 3대의 고향 및 진포대첩의 전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만약 당시 진포를 특정 지점으로 비정한다면 다수의 진포가 출현하는 상황을 면하기 어려우며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정리해둔다.

35) 『陽村先生文集』 권11, 龍安城漕轉記, “都觀察使盧公嵩自分鉞以來, 民生利病, 悉究悉圖, 其於漕轉, 尤致意焉. 欲立長策以利于民, 遵海而觀, 相其地利. 於全之界則得鎭浦之龍安, 於羅之界則得木浦之榮山, 皆有濱水之丘, 穹窿而曠”.

36) 『佔畢齋集』 권22, 龍安阻風雨用壁上韻記之, “母山風怒甚, 鎭浦雨晴初…褰帷坐清曉, 屋霤雨聲深, 漠漠潮生浦, 冥冥鳥度林…”.

3. 왜구의 진포 침입과 대응 양상

왜구는 1350년부터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왜구의 침입은 경상, 전라, 양광 3도의 도서와 해안에 집중되었고 아직 내륙지역까지 미치지지는 못하였는데, 진포를 경유한 금강 유역의 침공은 한 차례 정도 확인되고 있다. 1358년(恭愍王 7)에 왜구는 금강 하구의 남북 양안을 침입하여 韓州(한산)와 임피 진성장을 약탈하였다. 그 여파로 全羅道鎭邊使 高用賢의 요청에 따라 연해에 위치한 창고를 내지로 옮기는 조치가 있었다.³⁷⁾ 이외 왜구는 진포를 공격하거나 강을 거슬러 진입을 시도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1375년(우왕 1)에 全羅道元帥 金先致로 하여금 무리를 거느리고 내투한 왜인 藤經光을 살해하게 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으로 인해 왜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잔인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사서에 의하면 “처음에 왜구가 주군을 노략질하면서 사람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격노하여 매번 들어와 노략질할 때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도살하였으니, 전라와 양광의 연해 주군이 황량해지고 텅 비게 되었다.”³⁸⁾라고 한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왜구의 진포 침입도 종전과 달리 격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376년에 왜구는 6~7월 두 달 동안 林州(餘郡 林川面), 扶餘, 公州, 石城(扶餘郡 石城面), 連山(論山郡 連山面), 朗山(益山市 郎山面), 豐堤(益山市 龍東面), 鴻山(扶餘郡 鴻山面) 등을 휩쓸고 다녔다. 당시 왜구는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장차 돌아갈 듯이 행세하면서 몰래 정예 수백 명을 깊이 보내어 약탈을 자행했으며,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감히 상대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한다.³⁹⁾ 사료 상에는 임주를 시작으로 침입이 이어지지만 위의 군현이 대부분 금강에 인접해있고 사람들을 배에 태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왜구가 진포로 들어와서 금강의 수운을 활용해 각지를 침구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려는 柳滌을 전라도원수, 柳實을 전라도병마사에 각각 임명하여 내려 보냈다.⁴⁰⁾ 그들이 임주, 낭산, 풍제에서 적을 물리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부 거두었지만 공주목사 金斯革이 공주 鼎峴에서, 양광도원수 朴仁桂가 연산의 開泰寺로 향하는 적을 막다가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최영은 왜구의 기세가 올라 전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휘하를 거느리고 내려갔고 홍산에서 싸워 승리를 거둠으로써 금강 유역에서 왜구의 모습은 잠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석 달이 되지 않아 왜구는 10월부터 다시 진포로 들어와 한주를 약탈하였다. 이후 인

37) 『고려사』 권39, 世家39 공민왕 7년 4월 정유.

38)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원년 7월.

39) 『고려사』 권113, 열전26 崔瑩.

40)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2년 6월.

근 지역을 침탈한 기사가 나오지 않으므로 더 이상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지는 않은 듯하다.

1377년 10월부터 왜구는 금강 유역에 대한 침구 활동을 재개하여 咸悅(益山市 咸悅邑)을 시작으로 부여, 定山(靑陽郡 定山面), 홍산을 차례로 노략질하였다. 이듬해 3월에 진포 지역인 한주와 임주를 치더니 9월에는 공주, 尼山(論山郡 魯城面), 연산, 懷德(大田市 大德區), 珍同(錦山郡 珍山面), 沃州(沃川郡 沃川邑), 청산(沃川郡 靑山面)⁴¹⁾ 등 점점 금강 상류의 내륙 지역으로 밀려 들어왔다. 고려는 왜구와 싸운 경험이 풍부한 韓邦彥과 李琳을 각각 양광도와 전라도의 助戰元帥로 임명하였다.⁴²⁾ 10월에 다행히 한방언이 그들을 공격해 전과를 거둔⁴³⁾ 뒤로는 주변에 별다른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잠잠해진 것으로 보인다.

1379년의 경우 『고려사』 세가와 『고려사절요』 등 정사의 연대 자료에는 왜구가 진포와 금강 유역을 약탈한 기사가 나와 있지 않다. 『牧隱詩藁』를 보면 “楊二相이 회군하여 廣州에 이르렀다가 적이 진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즉각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다.”⁴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목은시고』가 거의 날짜 순서대로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시기를 계산해보면 1379년 5월 19~25일⁴⁵⁾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楊二相, 즉 贊成事 楊伯淵은 이해 5월 晉州에서 왜구를 물리친 일⁴⁶⁾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목은시고』의 시제로 보아 그는 회군하던 도중 왜구가 진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토벌을 위해 도로 내려간 것이 된다. 이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으므로 쌍방의 교전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진포의 사태는 그대로 일단락되었다.⁴⁷⁾

위와 같이 왜구는 1375년 등경광 사건으로 인해 더욱 흥포해진 이래 1376~1379년 동안 매년 진포를 침입하였다. 비록 문헌 자료에 그해 왜구가 진포를 침입했다는 기사가 없더라도 진포 지역에 해당하는 군현이나 배후에 있는 금강 수계의 군현 중 여러 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포를 통해 금강 유역으로 들어오는 침입 방식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진포를 침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는 왜구가 진포를 침입해 주변의 여러 군현을 유린하면 그때 가서야 양광도와 전라도에 장수를 파견하여 금강의 북안과 남안을 각각 방어하게 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태를 일시적이거나

41)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4년 9월.

42)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 9월.

43)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 10월.

44) 『목은시고』 권16, 聞楊二相回軍至廣 聞賊在鎮浦 卽刻南下.

45) 이정란, 앞의 논문, 153쪽.

46)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5년 5월.

47) 선행 연구에서도 양자가 매우 짧은 기간 싸웠거나 아니면 아예 교전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고려군이 도착할 때가 되면 왜구가 이미 바다로 나아가 싸워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하였다 (이정란, 앞의 논문, 154쪽).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진포에 수군을 주둔시켜 상시 틀어막지 않는 한 금강 유역으로 쇄도하는 왜구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려에서는 도해하는 왜구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책으로 공민왕대부터 이미 水戰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⁴⁸⁾ 이 무렵에 崔茂宣의 건의로 火燭都監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고 군사들에게 화포 쏘는 법과 수전을 익히게 하는⁴⁹⁾ 등 海防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었다.⁵⁰⁾ 이러한 노력은 다음의 진포 대첩에서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1380년 7월에 왜구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와서 西州(서천)를 시작으로 부여, 정산, 雲梯(完州郡 雲州面), 高山(完州郡 高山面), 儒城縣(大田市 儒城區), 靑陽, 新豐(公州市 新豐面), 홍산, 錦州(錦山郡 錦山邑), 옥주, 함열, 풍제, 공주 등 금강 유역의 동서남북 각지를 대거 침입하였다. 당시 왜구는 배 500척으로 鎭浦口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주군으로 흩어져 들어가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였으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고 배로 곡식을 운반하면서 땅에 버려진 쌀이 한 자나 쌓였다고 전한다.⁵¹⁾ 우선 진포를 침입한 왜구 선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문헌별로 1천척,⁵²⁾ 5백척,⁵³⁾ 3백여척,⁵⁴⁾ 1백척⁵⁵⁾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자못 혼란을 주지만 정확한 수효가 어찌되었든 간에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많은 수에 속하며 그때까지 진포에 들어왔던 왜구 규모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반영하듯 한 달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포부터 유성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침입하였다.

당시 왜구 선단이 주둔한 진포구가 어디인지를 두고 종래 연구에서는 서천과 군산의 어느 한쪽이라고 보았다. 이는 진포대첩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수백 척을 한 번에 연결하던지, 수십 척으로 나누어 연결하던지 간에 어느 한 편만 왜구가 주둔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맞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상

48) 『고려사』 권83, 志37 兵3 船軍 공민왕 22년 5월; 권113, 열전26 鄭地; 권115, 열전28 李穡.

49)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3년 10월·4년 3월.

50) 고려의 화약 개발과 수군 육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였다. 許善道,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歷史學報』 24, 1964; 鄭義然, 「고려말 정치와 최무선의 남해 관음포대첩」, 『慶南鄉土史論叢』 VI, 慶南鄉土史研究協議會, 1997; 金琪燮, 「高麗後期 崔茂宣의 생애와 화약제도」,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이재범, 「고려 후기 왜구와 해양방어대책」, 『이순신연구논총』 13, 2010; 신성재, 「고려 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3, 2015.

51)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倭賊五百艘入鎭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遂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穀于其舶, 米棄地厚尺”.

52) 『東文選』 권117, 特進輔國崇祿大夫靑城伯沈公行狀.

53) 『고려사』 권114, 열전27 羅世; 권126, 열전39 姦臣2 邊安烈;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태조실록』 충서 신우 6년 8월.

54)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4월 19일 임오.

55)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3일 계미, 1380년 5월에 진포대첩을 앞두고 왜선 1백여 척이 結城과 洪州를 침입한 적이 있다. 이들이 그대로 진포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장 후대의 기록이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상력을 발휘하면 금강하굿둑처럼 강을 통째로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혹은 금강 하구의 여러 곳에 주둔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애초에 양광과 전라의 경계지대인 진포 수역이 전장이기에 어느 한 편에서만 싸움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이상하며,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왜구가 어느 한 편에 주둔해서 그 방면만을 공략할 리가 없다. 이는 기록상 왜구의 첫 번째 침입 지역은 서천이지만 곧이어 양광과 전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군현을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서 입증된다. 또한 ‘鎭浦口’라는 기록에 의존해서 단순히 서천 장항이라고 비정하기도 어렵다. 이색이 자기 집이 있는 한산을 ‘鎭江口’⁵⁶⁾라고 서술한 바 있으므로 진포구의 범위는 그보다 더 넓을 수 있다. 따라서 진포대첩의 전장으로 어느 한 지점을 지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일단은 간단히 말해 금강 하구 일대, 세부적으로는 지금의 인식보다 좀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 개념이라고 정리해둔다.

고려는 금강 유역의 여러 군현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왜구의 근거지가 되어 버린 진포를 평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羅世, 沈德符, 최무선 등이 전함 1백 척을 이끌고 내려갔으며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크게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나세 등이 그대로 귀환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이외 용안에서 한 차례 더 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경신년(1380)에 왜구가 전함 1천척으로 우리나라 남쪽 변방을 침입하여 지나는 곳마다 남김없이 부수었으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막을 수 없었다. (왜구가) 싸우면서 龍安鎭浦에 이르니 그 세력을 매우 떨쳤다. 僞主(우왕)가 공(심덕부)에게 명하여 樓船 40척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다. 적 이 배를 네모나게 모아 진을 치고 칼날과 화살촉을 부딪치니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공은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일거에 다 섬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다시 날뛰지 못하였다.⁵⁷⁾

위의 사료 다)는 『東文選』에 실려 있는 심덕부(1328~1401)의 行狀이다.⁵⁸⁾ 그의 사후 다소 시간이 흐른 뒤인 세종대에 孫壻 姜碩德이 작성하였다. 만약 위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龍安鎭浦, 즉 용안의 진포 수역에서 심덕부가 40척의 배를 이끌고 왜구와 접전하여 싸워 이긴 것이다. 이보다 시기상 앞서는 최무선의 줄기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추측을 낳게 한다. 그러나 내용상 진포대첩과 유사한 면이 많고 심덕부의 전공을 과장

56) 각주 23) 참고. 진포와 진강이 동일한 의미임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다.

57) 『동문선』 권117, 特進輔國崇祿大夫青城伯沈公行狀, “庚申, 倭寇以戰艦千艘, 侵我南鄙, 所過殘滅靡遺, 諸將皆不能禦. 轉鬪至龍安鎭浦, 其勢甚張. 僞主命公將樓船四十往討之. 賊方舟而陣, 鋒鏑磨戛, 聲振天地, 公略無懼色, 一舉盡殲. 自是倭寇不復跳梁”.

58) 『太宗實錄』의 심덕부 줄기에 유사하나 축약된 기록이 있다(권1, 1년 1월 14일 갑술, “庚申, 倭寇我南鄙, 其勢甚張, 德符將樓船四十艘往討之, 寇不復跳梁”). 심덕부의 행장과 줄기 중 시기상 무엇이 먼저 작성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감도 없지 않아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와전된 기록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없으므로 널리 알려진 진포대첩 안에 추가적인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만 남겨두고자 한다.

4. 진포대첩 이후의 전황

진포대첩에 대한 평가는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지만,⁵⁹⁾ 그 보다는 아무래도 『고려사절요』의 기록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왜구가 진포의 패배 이후 군현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살육과 약탈을 마음대로 하니 적의 기세가 더욱 거세졌으므로 3도의 연해 지역이 황량하게 텅 비었다. 왜구의 환란이 있는 이후로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⁶⁰⁾라고 서술하였다. 진포의 왜구는 패배에 앙심은 품은 채 사로잡은 자녀들을 거의 다 죽인 다음,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옥주에서 다른 지역에 있던 부대와 합세하였다.⁶¹⁾ 그리고 내륙을 가로질러 利山, 永同, 黃澗, 禦侮, 中牟, 化寧, 功城, 靑利, 尙州, 善州, 京山, 沙斤乃, 南原, 雲峯, 引月 등을 지나오며 맹위를 떨치다가 결국 荒山에서 크게 패하였으며 지리산에 들어가 숨었다가 뗏목을 타고 겨우 1백 명 남짓 정도가 살아서 돌아갔다.⁶²⁾ 이처럼 진포대첩 직후 고려가 최종적으로는 황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타고 돌아갈 배를 잃은 왜구가 금강 상류에 집결해 내륙을 종단함에 따라 여러 군현을 휩쓸면서 갖은 만행을 저지르는 부작용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왜구는 진포를 통해 금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기존 전략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1382년(우왕 8) 2월에 왜구는 임주를 침입하여 진포 침입을 재개하였고, 다음 달인 윤2월에는 다시 임주, 부여, 석성을 차례로 침입하였다. 그해 10월에는 왜선 50척이 대거 진포로 들어오자 이전부터 해양 방어와 수군 육성을 주장해오던 海道元帥 鄭地가 해전을 벌여 격퇴하고 群山島까지 추격하여 4척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⁶³⁾ 특히 이듬해 5월에 정지는 관음포(南海郡) 해전에서 화포를 사용해 왜구를 크게 무찔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59) 『태조실록』 권7, 4년 4월, “壬午自爾倭寇漸息, 乞降者相繼, 濱海之民, 復業如舊”는 최무선의 절기이며 태조의 황산대첩과 함께 그 전공을 기리고 있어서 진포대첩만 오로지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3일 계미, “自是以後, 莫與兵船抗拒, 往往雖寇邊, 有同鼠竊, 不得安然留泊深入爲寇”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황산대첩과 관음포해전을 함께 고려한 평가이다.

60)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賊自鎮浦之敗, 攻陷郡縣, 奮肆殺奪, 賊勢益熾, 三道沿海之地蕭然一空, 自有倭患, 未有如此之比”

61)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62)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9월;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3일 계미.

63)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8년 10월.

왜구의 전략에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라) 왜적이 더욱 깊이 들어와 계해년(1383) 여름에는 원주, 춘천을 지나 철원의 경계를 범하였고 양주, 광주를 침입하였다가 공주의 수령을 살해하였다. 그 왜구들이 모두 여기 靑山島로부터 들어왔는데, 한 고을이 수비를 잃자 3도가 화를 입었으니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듯 이와 같이 참혹하였다.⁶⁴⁾

위의 내용은 왜구가 동해안의 경상도 寧海府 축산도를 근거로 삼아 원주, 춘천, 철원, 양주, 광주, 공주 등지를 침입했다는 기록이다. 그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고려사』를 보면 관음포 해전이 벌어진 직후인 6~8월 동안 대략 安康(慶州市 安康邑), 杞溪(浦項市 杞溪面), 永州(永川市), 大邱(大邱市), 京山(星州郡 星州邑), 仁同(龜尾市 仁同洞), 知禮(金泉市 知禮面), 金山(金泉市) 등을 거쳐서 마침내 옥주와 報寧(報恩郡 報恩邑)까지 육박했음이 확인된다.⁶⁵⁾ 다시 말해 동해안에서 경상도 내륙을 횡단하여 금강 상류지역을 침입하고 있는 것이다.⁶⁶⁾ 이는 금강 유역을 침입하는 새로운 전략이기는 하지만 내륙을 관통해야 하고 더욱이 진포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⁶⁷⁾ 1384년 2월에 왜구는 진포에 다시 출몰하기 시작하였다.⁶⁸⁾ 앞서 정지에게 패배한 뒤로는 침탈 행위를 자제하고 사태를 관망하며 틈을 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1387년 10월부터 왜구는 임주를 시작으로 한주, 서주, 홍산 등을 공격함⁶⁹⁾으로써 침입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때 도순문사 王承寶가 응전하였으나 당해내지 못하였다. 1388년 5월에 왜구는 요동정벌을 기회 삼아 80척을 이끌고 진포에 정박한 뒤 인근 고을을 노략질하였다.⁷⁰⁾ 이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반대하며 제시한 4불가론의 하나인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왜적이 허점을 노려 침구할 것입니다.”⁷¹⁾가 현실화된 것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무진년에 우리나라가 요동을 치는 일이 있어서 전함이 비어 있음을 알고 진포에 와서 정박하고 경상도까지 들어와 노략질하고 돌아갔다.”⁷²⁾라고 하였는데, 『고려사』 등을 보면 실제로 왜구

64) 『陽村先生文集』 권11, 寧海府西門樓記, “至癸亥之夏, 歷原春而犯鐵原之界, 侵楊廣而害公州之倅, 其寇皆自茲靑山島而入, 一邑失守, 三道被禍, 唇亡齒寒”

65) 『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9년 6월·7월·8월.

66) 관음포해전 이후 왜구의 축산도 침입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 된다.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埴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이영, 「진포구(鎭浦口)·남해 관음포(觀音浦) 해전과 고려 말 왜구 침구 양상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64, 2021.

67) 1383년 6~8월에 경상도를 침입한 왜구 일부는 무주와 임실을 거쳐 전주까지 침입하였다(허인욱, 앞의 논문, 106~108쪽). 이 정도가 진포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것이다.

68) 당시 왜구는 주변 군현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사로잡은 부녀 25명을 작은 배에 싣고 와서 돌려보냈다(『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10년 2월).

69) 『고려사』 권136, 열전49 신우 13년 10월.

70)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5월.

71)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4월.

72)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3일 계미, “歲戊辰, 賊知我國有攻遼之役, 而戰艦空疎, 乃來泊鎭浦, 歷至慶尙, 入寇以歸”.

는 금강 유역의 연산, 청주, 유성, 진잠 등을 공격하고 이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경상도의 상주, 옥주, 황간, 영동 등을 침입하였다.⁷³⁾ 요동정벌 때 왜구의 진포 침입 사건은 뒤이어 거행된 쓰시마 정벌의 발단이 되었다.⁷⁴⁾ 고려가 한동안 수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상륙을 모두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아 있는 가장 효과적 금압 방법은 그들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일이었다.

요컨대 1380년에 진포를 침입한 왜구는 진포대첩 이후 잔당을 모아 육지에서 맹위를 떨치다가 황산에서 궤멸되었으며, 2년 뒤 다시 진포 침입을 재개하다가 이번에는 정지의 수군에게 패배하였다. 곧이어 관음포 해전 이후 왜구는 동해안의 축산도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입하는 전략을 취하였는데, 1387년부터는 다시 진포를 침입하고 있다. 즉 왜구는 진포에서 고려 수군과 두 차례 싸워 모두 패배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진포에 대한 침입 빈도가 줄어드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생기면 진포를 재차 공략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왜구가 진포를 침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임피 진성창을 거론할 수 있다. 진성창의 수세구역은 전주, 임피, 진례, 김제, 금구로 대부분 금강이 아닌 만경강의 충적평야에 해당하며 인근의 안흥창에 비해 광범위하였다.⁷⁵⁾ 또한 전라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개경로의 향해 거리가 짧은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육로 및 하천 수운의 이용 등 교통 조건이 양호하였다. 왜구가 침입 초기부터 곧장 진성창을 공격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창을 내지로 옮기고 조운을 중지한 뒤에도 진포의 남안은 곡창지대였으므로 계속해서 왜구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강을 거슬러 올라갈 경우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376년에 고려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뱃길이 막히자 조운을 중지한⁷⁶⁾ 시기를 전후하여 왜구는 진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금강 수계를 따라 인근 지역을 약탈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경상도 옥주까지 진입하였다. 진포대첩처럼 왜구의 대규모 선단이 침입한 것은 경상과 전라 등 타지에 비해 개경과 가까워 중앙에서 파견되는 토벌군을 의식한 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역시 금강 유역이 넓고 중간에 논산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그만큼 약탈해서 실어 나를만한 물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73)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8월.

74)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3일 계미, “惟我太祖在潛邸, 握兵機, 赫然有怒, 翌年己巳, 謀遣邊將, 率兵船往泊對馬, 焚賊船數十而返”.

75) 한정수,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2013, 191~193쪽.

76)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2년 윤9월.

5. 맺음말

지금까지 진포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 진포대첩의 전장과 용안에서의 전투, 진포대첩 이전과 이후의 침입 양상, 왜구의 진포 침입 목적 등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였다. 몇 가지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14~16세기 문헌 자료에서 진포는 특정 지점이 아닌 금강 하구, 또는 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일종의 범칭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금강 하류로만 해석할 경우 조선시대의 사례에 한하여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는 추후 논고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진포대첩 직전에 왜구가 서천과 군산 중 어느 한 편만 주둔했다고 보는 견해에 의문을 갖았다. 이는 왜구가 양광과 전라를 가리지 않고 침입한 점과 이색이 한산을 ‘진강구’라 서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장을 어느 한 지점이라 지목하기 어렵고, 다소 모호하나 지금의 인식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금강 하구 일대 정도로 이해하였다. 한편 심덕부 행장에 기재된 용안진포 싸움은 진포대첩에 추가적인 전투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어서 일단 나중의 문제로 남겨두었다.

세 번째로 진포에 대한 왜구의 침입은 등경광 사건 이후인 1376년부터 격화되었으며, 진포를 통해 금강 유역을 거슬러 올라오는 방식으로 주변지역을 약탈하였다. 고려는 그때마다 장수를 파견하여 방어하는 대응책을 취하였는데 바다에서 오는 적을 막아내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화포를 개발하고 수전을 익히게 하는 등 해양 방어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친 진포의 수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왜구의 침입은 다소 주춤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틈을 노려 침입하는 왜구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1389년(창왕 1)의 쓰시마 정벌로 이어지게 되었다.

네 번째로 왜구가 진포를 침입한 이유로는 만경강 충적평야의 집산지인 진성창과 그 수세구역의 경제적 이점, 금강 수계를 통한 내륙 진입, 금강 유역에 위치한 군현의 풍부함 등을 짧게나마 제시하였다.

왜구의 활동을 광역 단위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침입 사료를 일정한 개연성을 갖고 연결하는 일이 관건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료가 군현 단위의 명칭만 간단히 나오고 다수 지역이 열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항상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발표문을 작성하느라 진포의 위치에 대해 천착하지 못하였고 또한 중간 중간 논증 단계에서 추정에 의존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질정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조선 태종대 조운제 정비의 재정사적 맥락

발 표 _ 소순규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2. 태종대 재정정책의 특징과 조운제도의 정비
3. 전라도 지역의 조운제 정비와 특성창의 개창
4. 맺음말

② 발제 발표문

조선 태종대 조운제 정비의 재정사적 맥락 ; 전라도 조운제 정비와 특성창 개창 과정을 중심으로

소순규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전통시대 조운은 국가의 유지,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였다. 해운과 강운을 통한 수송을 통해 정치적 중심지로 국가 수취물을 집중시키는 조운제도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수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산업화 이전 시대 육로 수송의 기술적 한계가 크고, 국가에 의한 물류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원활한 조운 운영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전기까지 국가 재정에서 화폐의 비중은 미미했고, 현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장 주요한 현물인 미곡은 다른 물화에 비하여 가치대비 부피와 무게가 컸고, 이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수송하는 조운체제가 여타 지역에 비하여 훨씬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 건국 후 태조가 새로운 수도 입지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조운의 편의를 고려하였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나타내어 준다고 할 수 있다.¹⁾

한국사에서 조운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조운과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고려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한 13조창체제의 정비 과정, 고려 후기 조운제도의

1) 『태조실록』 권3, 2년 2월 9일 갑신.

해제와 각읍 단위의 조운제 운영 양상, 왜구 침략으로 인한 조운체제의 교란, 조선 건국 이후 조운제도의 재건 과정, 관선조운제에서 사선운임으로의 전환, 지역별 조운제 성립 과정 및 조창별 창고의 치폐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²⁾ 이를 통해 조운제도의 전모, 시기별 변화과정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상세히 그 윤곽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운제도 정비 과정이 국가의 재정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파악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의 재정 정책이 조운 제도의 정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재정 정책의 방향 및 특징이 조운 제도의 구조와 운영상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반대로 조운 운영의 제약 및 난관이 국가 재정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등에 대한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사의 미비는 고려~조선전기 기간의 재정사 연구가 아직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여말선초, 특히 조선 태종대 조운 제도의 정비가 재정 정책과의 강한 연관성 아래 이루어졌음을 살피고,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전라도 지역의 조운 제도 정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전라도 조운제 정비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던 진포의 덕성창³⁾의 기능과 재정적 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조운제의 정비가 태종대 이르러서야 시작된 배경, 태종대의 재정 정책이 국가의 조운 제도에 미친 영향, 그 안에서 전라도 지역 조운제 정비의 중요성 등을 검토해 볼 것이다. 구체적인 조운제도의 정비 과정등은 이미 기존연구에서 매우 상세히 고찰한 바 있으므로, 필자는 본고에서 조운제의 정비가 재정 정책과의 관련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의 고찰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조선의 조운제 정비가 태종대 이르러 본격화된 원인이 태종대 재정 정책에 있음을 살피고, 그러한 재정 정책과 조운제 정비가 가장 첨예하게 맞물려 이루어

2) 본고에서 조운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모두 주석으로 호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주요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최완기, 「조선전기 조운시고」 『백산학보』 20, 1976 ; _____, 「고려조의 세곡운송」 『한국사연구』 34, 1981 ; 손홍렬, 「고려조운고」 『사총』 21·22, 1977 ;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漕倉制について」 『朝鮮歴史論集』 上, 1979 ; 六反田豊, 「李朝初期の田稅輸送體制—各道單位にみたその整備變遷過程—」 『朝鮮學報』 123, 1987 ; _____, 「高麗末期の漕運運營」 『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 2(國際文化學科編), 1993 ; _____, 「李朝初期の漕運運營機構」 『朝鮮學報』 151, 1994 ; _____, 「朝鮮成宗代の漕運政策論議(上·下)」 『史淵』 136·137, 1999·2000 ; _____, 「朝鮮初期における田稅穀の輸送・上納期限—漕運穀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64, 2005 ;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의 연구와 교재화」,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2012 ;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2013.

3) 得成倉은 태종 17년 용안현에 설치되었던 조창이고(『태종실록』 권34, 17년 11월 8일 기미), 德成倉은 이 덕성창을 세종 10년에 인근 함열현 피포로 옮긴 조창을 지칭한다(『세종실록』 권42, 10년 12월 22일 기해). 따라서 덕성창과 덕성창은 별개의 창고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 두 창고는 모두 전라도 진포 지역에 위치한 조운창으로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고 시기별로 위치가 달랐을 뿐이었다. 이후 성종대에는 다시 덕성창이 조창으로 활용되었고(『성종실록』 권243, 21년 8월 14일 갑오),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의 조창이 군산창으로 변화하기도 하였으나(『중종실록』 권16, 7년 9월 27일 무술 ; 『선조실록』 권21, 20년 3월 2일 신묘),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시기에 따라 덕성창과 덕성창을 구분하여 서술할 계획이나, 시기를 통합하여 '전라도 진포 지역에 위치하여 전라도 북쪽 지역의 조세를 집결하여 운송하는 조운창'을 통칭할 때는 덕성창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덕성창이 덕성창에 비하여 존속한 기간이 더 길고, 『경국대전』에도 수록되어 있는 만큼 더 대표성이 있는 용어라 생각되지만,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태종대에는 덕성창이 존재했던 기간이기 때문이다. 문맥에 따라 덕성창이 진포 지역의 조창 전체를 표현하는 용어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지는 경상도 지역의 조운제 정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후 장을 바꾸어 전라도 지역의 조운제 정비 과정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조운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진포의 덕성창의 기능을 살펴보고, 조세 수납의 범위 및 세곡 운송량 등을 통해 덕성창이 가지는 재정적 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조선초 조운제 정비가 단순히 왕조개창에 따른 자연적 수순에 의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당대 재정적 목표와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태종대 재정정책의 특징과 조운제도의 정비

고려 말, 특히 1350년부터 본격화된 왜구의 침략은 정상적인 조운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고려전기 제도적으로 완비된 조운제도는 몽고와의 항전, 강화 천도로 인하여 와해되었고, 고려후기에는 각 고을이 자체적으로 사선을 통해 개경으로 조세를 운반하는 각 군현별 조운이 운영되고 있었다. 고을에 따라 높은 지역에 조전성을 수축하고 조세를 집결 시킨 뒤 배를 통해 조운하였다. 각 군현별 조운제는 집약적인 수송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송 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고, 조전성은 방어 목적이었기에 배의 선적과 하역에 불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민력이 그만큼 소모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 군현별 조운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항시적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고려의 국가 재정 역시 난항을 겪고 있었다.⁴⁾

1392년 조선의 건국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태조는 건국 당시 천도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조운의 편의를 가장 큰 요건으로 꼽았다.⁵⁾ 안정적인 국가의 재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적인 물류란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양이 최종후보지로 결정되었고, 태조 3년 전격적인 천도를 단행하였다.⁶⁾ 새로운 왕조 조선은 한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운제도를 정비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천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운제도의 정비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 고려왕조의 조운 시스템이 그대로 기능하고 있었다. 태조는 재위 말년에 서강에 거둥하여 한양으로 올라온 조운선을 시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조운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

4) 고려 말 조운의 운영 양상에 대해서는 한정훈, 앞의 책, 제 5장 및 한정훈, 「조선 건국기 조운체제의 정비와 그 의미」 『진단학보』 120, 2014 참조.

5) 『태조실록』 권3, 2년 2월 9일 갑신; 『태조실록』 권6, 3년 8월 12일 기묘; 『태조실록』 권6, 3년 8월 12일 기묘.

6) 『태조실록』 권6, 3년 12월 3일 무진. 해당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날자는 태조 3년 10월 25일이었다.

다. 물론 한양 천도가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궁궐 및 도성의 수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태조는 7년 재위 기간 동안 특별한 조운제 정비에 착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종 원년에는 조운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조운을 폐하고, 조세를 육지로 수송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하였다.⁷⁾ 육로 수송이 수운에 비하여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로 수송은 조운제 정비와는 정반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점은 현재 개설서에서 그리고 있는 조선 건국 과정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의아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개설적 설명에 따르면 조선은 건국 직전 대대적인 양전을 시행하고 구래의 사전을 폐지한 이후 새롭게 관료들에게 과전을 분급하였다. 이러한 전제개혁을 통하여 불법적 혹은 편법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던 전조가 국가로 공수되면서 국가 재정이 튼튼해 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왕조 개창의 물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항상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던 고려 말에 비하여, 전제개혁을 통해 집권한 조선에서 중앙으로 운송되는 세곡의 양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⁸⁾

그러한 정황에 비해 조선 건국 이후 사료에서는 조운의 정비나 세곡의 운송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아울러 조운선 사고를 빌미로 육로 수송까지 결정하게 된 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결국 조선건국 전후에 이루어진 전제개혁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제개혁으로 조선 건국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중앙 재정에 필요한 세곡이 원활히 수취, 수송된다고 한다면 과거 고려시대의 조운체제는 분명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가 건설되고 10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조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필자가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토한 바에 따르면 태조대~정종대까지 국가 재정의 운영은 고려 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전제개혁은 새로운 사전분급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나, 애초 기획의 목표였던 국가 재정의 확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다.⁹⁾ 그 이유로

7) 『태종실록』 권2, 1년 8월 2일 무오 “己卯秋 有議屢值風波 人多殞命爲不便 南界之賦 復爲陸轉 不數年間 其弊有甚於水運”.

8) 조선의 건국과 소위 ‘과전법 도입’이라 이야기되는 전제개혁에 대한 연구서에서는 모두 이러한 역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 정리 글로는 위은숙,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초로서의 과전법」, 『한국사시민강좌』 35, 2004 참조.

9) 전제개혁은 불법적인 사전 팽창을 억제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사전 분급 체제를 도입하고, 과거 불법적 또는 편법적으로 국가에 조를 바치지 않던 토지를 국가의 수조지로 재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수조권이 아닌 소유권의 불법적 침탈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토지에 대한 침탈과 함께 일어난 대규모의 노비화(안량위천, 투탁 등으로 발생한)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찍부터 전제개혁의 불철저함을 지적한 논고가 있었다(김명택, 「고려말의 사전개혁」, 『한국사연구』 104, 1999). 필자는 거기서 한 발 나아가, 전제개혁의 본래 성격이 재정개혁이었으나 그 목표의 달성도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소순규, 「여말선초 전제개혁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 '사전개혁'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90, 2020).

는 다양한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우선 기사양전을 통해 확보한 전결 수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이었다. 전체 60여 만 결 중 사전 10만결을 제외한 50여 만 결 정도가 국가의 세수로 들어오는 토지였는데, 이것으로는 충분한 국가 세수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손실법도 세수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풍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손실법은 1결당 조세수취량이 해마다 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새로운 왕조에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입장에서 손실의 판정은 민간에 유리하도록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¹⁰⁾

또 50만 결의 토지 중 10만결 이상의 토지는 전세공물 위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¹¹⁾ 전세공물은 전세를 미곡 대신 공물로 납부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토지가 10만결 이상이 된다는 점은 국가의 미곡 확보에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다. 이러한 전세공물의 설정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미 조선초기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려후기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의 경작지 중 최소 1/6 이상의 토지에서는 해마다 전세를 미곡이 아닌 공물로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확보된 토지 전결 수의 미비, 그 중 상당수가 미곡이 아닌 공물로서 전세를 납부하고 있던 실정, 미곡 수취가 관철되는 토지에서도 해마다 풍흉에 따른 조세 감면이 상시화되고 있던 상황에서는 조선 건국 세력이 구상했던 국가 재정의 확보는 매우 요원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각 관서는 위전으로 할당된 토지의 세수가 항상적으로 부족하여 다른 관서에서 꾸어다 쓰는 傳講이 일반화 되었고,¹²⁾ 국가의 비축곡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급기야 태조 6년에는 관료들에게 분급한 사전의 전조까지 모두 국가에서 공수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결국 위와 같은 정황을 검토해 보면 왕조 건설 초기 조운제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지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전제개혁의 완수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과거 고려말의 재정 상황과 비슷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결국 태조~정종대 조세 물류의 수송 문제는 정책의 주요 현안이 아니었다.

다만, 태조대에도 조운의 문제가 한 차례 논의된 바가 있었다. 태조 4년 5월 경상도 조운선 16척이 안흥량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¹⁴⁾ 같은 해 8월에는 충청도와 경상도 조운선 26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¹⁵⁾ 이에 태조는 안흥량을 지나지 않고 조세를 운반할 수

10) 세종대 공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조선의 전세수세는 손실법이었다. 태조~태종대 손실법의 운영에 대해서는 강제훈, 『조선초기전세제도연구 -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02 참조.

11) 전세공물은 전조를 미곡 대신 포화잡물로 거두는 토지로서 조선초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였다. 전세공물에 대해서는 이재룡, 「조선초기 포화전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91, 1995 ; 강제훈, 「조선초기의 전세공물」 『역사학보』 158, 1998 ;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해안, 2011, 제 2장 2절 ; 소순규, 「조선초기 공납제 운영과 공간개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제 1장 2절 참조.

12) 『태종실록』 권4, 2년 9월 24일 갑진 ; 『태종실록』 권6, 3년 윤11월 29일 임신.

13) 『태조실록』 권12, 6년 10월 13일 신묘.

14) 『태조실록』 권7, 4년 5월 17일 기유.

있는 漕渠를 구상하였으나, 현장을 둘러본 관료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었다.¹⁶⁾ 이러한 구상 역시 조운제도 자체의 정비라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색이었으며, 그러한 노력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고려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건국 초의 상황은 태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바뀌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관제정비, 군제정비, 의례산정 등 제도문물의 정비를 통해 조선의 국가적 토대를 갖춘 군주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문물의 정비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정개혁이었다. 나라에 저축이 부족하고 관료들의 사전 수입마저 국가가 거두어가는 상황에서 강력한 왕권의 수립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태종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지난 3년간 비축한 곡식이 불과 2만석이다’¹⁷⁾라는 발언은 태종 즉위 초반 국가의 재정적 곤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태종은 재정개혁,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미곡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전개해 갔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당시 국가의 미곡 확보가 어려운 배경에는 전체 전결 수의 부족, 손실법의 운영, 대규모의 전세공물 위전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국고곡 확보를 위한 태종의 여러 정책들 역시 바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들로 이루어졌다.

우선 태종 4년~5년 새로운 양전을 통해 전결 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과거 기사양전 당시 전결수는 약 60여 만결, 수시로 양전을 통해 새롭게 확보된 토지로 태종 집권 당시에는 약 80만결 정도였던 조선의 전결은 을유양전의 결과 약 160여 만 결에 달하게 되었다. 을유양전은 이전 양전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생산력이 열악한 토지도 양안에 등재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낳았지만 수세대상 토지를 2배 이상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전결을 확보함과 동시에 손실법의 운영도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바꾸어 말하면 어지간한 손실로는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태종 9년 당시 충청도 관찰사 안노생은 흉년을 이유로 ‘中年’의 손실판정을 했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되기도 하였다. 이로 비추어 보건대 태종대에는 사실상 흉년으로 인한 전세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 결과로 국가의 수세량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15) 『태조실록』 권8, 4년 8월 7일 무진.

16) 『태조실록』 권7, 4년 6월 6일 무진.

17) 『태종실록』 권5, 3년 6월 6일 임자.

18)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태종대에는 상당한 흉년 임에도 불구하고 중년 이상의 연분 판정이 내려졌지만, 세종대 이후에는 이러한 연분 판정이 훨씬 하향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세종대 공법 논의 과정에서 세종 즉위 이후 도 단위로 최대수세량을 보인 해와 해당년의 수세액을 나열하고 있는데, 당시 최대수세액을 각 도별 전결수에 대입해 보면 대략 6~9두 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대부분 下上年 내지는 下中年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종대 국고곡 확보란 재정적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세종대 이후에는 손실법의 운영에서 연분 판정 역시 태종대에 비하여 하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 도별 최대수세액과 관련된 내용의 분석으로는 강제훈, 앞의 책, 210~211쪽 참조.

또 하나 전국에 10만결 이상 산재하는 전세공물 위전도 대대적으로 감축하거나 미곡 수세로 전환시켰다.¹⁹⁾ 전세공물 위전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세공물의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킴으로서 미곡 수세 대상 토지를 넓혀 국고곡을 확보한 것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이 과정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소 몇 만결의 토지는 이 조치를 통해 미곡 수세로 전환되었고, 그만큼의 국고곡 확보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태종은 저화의 사용, 연호미·호급둔전의 도입 등을 통해 태종은 국가의 미곡 확보에 박차를 가하였다.²⁰⁾ 실제로 『태종실록』에 산재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서울의 경우 태종 9년에는 중앙의 재고곡이 25만석, 전국의 재고곡이 125만석에 달하게 되었고,²¹⁾ 태종 13년에는 전국의 국고곡이 350만석,²²⁾ 태종 17년에는 전국의 국고곡이 415만석²³⁾에 이르게 되었다. 재위 직후 3년간 비축곡이 2만석에 미치지 못했던 상황에 비한다면 엄청난 재고곡을 단시간 내에 비축한 것이었다.

태종이 이러한 미곡 확보 정책을 추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수송의 문제, 즉 조운제였다. 지방 각지에 상당한 미곡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를 원활하게 서울로 수송할 수 없다면 정책의 결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중앙 재정에서 지속적인 미곡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송 문제의 해결은 필수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조선시대 조운제의 정비는 태종대부터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러한 정비의 배경은 바로 위와 같은 재정개혁에 있었던 것이다. 재정개혁, 그 중에서도 미곡 확보와 미곡의 서울 수송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조운제의 정비 역시 본격적인 정책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태종이 집권한 이후 시행한 조운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로, 남쪽 지방의 조세는 모두 수운, 즉 배로 수송하도록 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태조대부터 조운선이 패물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정종 원년에는 남쪽 지방의 조세를 조운이 아닌 육운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부피가 크고 무거운 미곡을 육지로 수송하는데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미곡 확보, 더불어 중앙저치곡을 늘려야 하는 태종의 입장에서 육운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사안이였다. 이에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경상도 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라, 경상도 지역의 모든 지역이 조운을 통해

19) 『태종실록』 권1, 원년 5월 3일 신묘.

20) 태종대 미곡 확보를 위한 연호미, 호급둔전, 저화 등에 대해서는 소순규, 「조선 태종대 저화 발행 배경에 대한 재검토 - '화폐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역사와 담론』 92, 2019; 소순규, 「조선 태종대 미곡 확보 정책과 호급둔전제의 시행」 『사총』 204, 2021 참조.

21) 『태종실록』 권17, 9년 1월 18일.

22) 『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6일.

23) 『태종실록』 권34, 17년 7월 20일.

조세를 수송하도록 결정하였다.²⁴⁾

둘째로 약 500여척의 조운선을 건조하도록 지시하였다.²⁵⁾ 고려시대 13조창에 의한 조운 시스템이 정비되었다가 와해된 이후, 조운은 주로 사선에 의한 수송에 의지해 왔다. 고려 말의 각읍조운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태종대 새롭게 조운선을 건조한다는 것은 국가 소속의 관선 조운선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처음 500여척을 목표로 제작이 시작된 조운선은 결국 절반인 250척만이 제작되었고, 경상도에 111척, 전라도에 80척, 충청도에 60척이 배치되었다.²⁶⁾ 각 선박이 500여 석을 적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략 12만 5천석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였다. 태종대 조운선 건조는 조선초 조운 운영에서 국가 소속의 관선 수송 비중을 크게 늘리고, 향후의 운영 역시 관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었다.

이처럼 조운제 정비에 착수한 이후 태종 2년 5월에는 새로 건조한 251척의 조운선을 각 지역에 배치하였고, 그해 6월 1일에는 이들을 통해 경상, 전라, 충청 지역의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였다. 당시 조운을 통해 서울로 수송한 미곡은 총 10만 2천석이었는데,²⁷⁾ 이는 충청, 전라, 경상도의 3도만을 대상으로 한 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태종은 본격적인 미곡 확보 정책의 추진과 짝하여 조운제를 정비해 갔던 것이었다.

태종은 조운을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미곡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았다. 바다에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조운선 침몰의 위험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태종의 국고곡 확보에 대한 의욕, 조운의 위험성 등이 복잡하게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경상도 지역의 조운제 개편 과정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고곡 확보를 위해 태종이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가 과거 전세공물 위전이었던 토지를 미곡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태종 원년 당시 사료에 나타난 전세공물 위전의 규모는 대략 10만 결 정도였는데, 이것이 전세공물의 총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원년은 아직 을유양전을 시행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사료에 나타난 전세공물 위전의 규모만 하더라도 전체 토지에 20%에 육박하는 많은 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이러한 전세공물 위전을 지속적으로 미곡 수세 토지로 전환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이 바로 저화의 유통이었다. 저화는 그간 연구사에서 ‘화폐의 발행’이란 측면에서 여러번 검토된 바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세공물 위전의 미곡수세 전

24) 『태종실록』 권2, 1년 8월 2일 무오.

25) 『태종실록』 권2, 1년 10월 11일 병인.

26) 『태종실록』 권3, 2년 5월 4일 병술.

27) 『태종실록』 권3, 2년 6월 1일 계축.

환, 그를 통한 미국 확보 정책의 수행, 조운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실패 등이 복잡하게 얽힌 ‘재정정책’의 일환이었다. 아래의 기사는 이러한 저간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이다.

A. 楮貨와 常五升布를 검용하도록 명하고, 경상도 紬布의 稅를 회복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交章하여 上言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경상도는 산이 막히고 바다가 막히어, 조세 輸納의 어려움이 다른 도의 배가 되기 때문에, 高麗朝 이래로 그 지방 産物의 편의에 따라 혹은 紬布로 거두고, 혹은 綿絮로 거두어, 일찍이 조[粟]와 쌀[米]을 거두지 않았으니, 백성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정하여 5백 년을 내려오며 행하였어도 폐단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국가의 財用이 乏絶됨으로 인하여, 각 品의 勸農으로 주는 布貨를 4匹准楮貨로 대신하고, 주포를 거두던 밭은 모두 租를 바치게 하여, 國用을 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司平府의 文簿로 상고하여 보면, 지난 신사년에 紬布田에서 거둔 곡식이 28,000여 석인데, 漕轉으로 상납한 수는 6,000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년 임오년의 초반·이번 祿俸의 傳請한 수가 10,000여 석에 이르니, 그렇다면 주포전에서 거두는 租가 다만 그 도의 軍資에 충당할 뿐이고, 京城의 저축에는 도움이 없습니다.²⁸⁾

다소 장황하지만, 위의 기사는 태종초반 조운제의 운영, 국가의 미국확보 정책, 저화 발행 등 저간의 재정정책을 일관되기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도 지역은 고려조에서부터 미국을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공물 즉 포화잡물로 전세를 대신 거두었고 이에 따라 수송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세공물은 미국에 비하여 무게가 가벼웠기에 육운으로 수송이 용이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건국 이후 경상도 조세의 해운 수송이 결정되었고, 태종이 집권한 이후에는 강력한 미국 확보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 전세공물 위전에서도 모두 미국으로 전세를 수세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단 수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운을 통해 이를 서울로 수송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태종은 즉위 이후 경상도 지역에 조운선 111척을 새로 건조함으로써 이미 이러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녹봉이었는데, 당시 녹봉은 쌀이나 콩 등의 미국 뿐 아니라 주포, 면포 등 다양한 포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녹봉용 주포는 모두가 경상도의 전세공물 위전, 즉 紬布田에서 수세하는 것으로 충당하였던 것이다. 만일 이들 주포전을 모두 미국 수세로 전환할 경우, 관료들에게 지급할 주포를 마련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28) 『태종실록』 권4, 2년 9월 24일 갑진 “命兼用楮貨常五升布 復慶尙道紬布之稅 司憲府司諫院文章上言 竊見慶尙道 阻山隔海 其租稅輸納之難 實倍他道 故自高麗氏以來 因其地產之宜 或收紬布 或收綿絮 而未嘗收其粟米 所以從其民望 以爲定制 垂五百年行之無弊 近因國家財用匱乏 各品祿俸布貨 代以準四匹楮貨 其紬布之田 悉令納租 以隆國用 此雖裕國之美意 然以司平文簿考之 去辛巳年紬布之田所收之粟 二萬八千餘石 其漕轉上納數 不過六千餘石 今壬午年初二番祿俸傳請之數 多至萬餘石 若然則紬布田所收之租 只充其道之軍資 而無補於京城之蓄”.

이에 태종이 내세운 대책이 바로 저화였다. 즉 주포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저화를 발행하여 이를 관료들에게 녹봉으로 지급하고자 한 것이다. 저화가 성공적으로 통용된다면 녹봉 지급용 주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상도 주포전에서는 미국 수취를 강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국고곡을 더 확보할 수 있으리라 계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위 기사의 내용이었다. 경상도 주포전의 규모는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으나, 태종 원년 해당 주포전에서 미국으로 수취한 양은 모두 28,000석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 중 서울로 수송되어 중앙의 비축곡으로 활용된 것은 불과 6,000석이었다. 아마도 당시의 조운 수송 능력 하에서 서울로 수송 가능한 양의 최대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는 중앙의 6,000석의 비축을 위해 경상도의 주포 수취를 모두 포기하고, 아울러 수송의 어려움까지 부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인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해 발행한 저화가 민간의 신용을 얻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국가는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저화 홍용책을 시행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태종은 국고곡 확보란 정책적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자, 저화의 단독 사용을 포기하고 경상도 지역의 주포전을 다시 전세공물 위전으로 설정하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경상도 지역의 전세공물 위전 중 상당수는 이때 다시 미국 수세에서 전세공물 수취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비단 전세공물 위전의 복구 뿐 아니라 경상도 조운 수송의 어려움은 결국 경상도에서 해운을 통한 조운 수송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태종 3년 5월에는 경상도 조운선 34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²⁹⁾ 당시 바다에서 운항하는 조운선 1척에 실리는 미국이 대략 400~500석임을 감안하면 해당 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15,000석 내외로 막대한 양이었다. 아울러 인명피해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초 이래로 2~3년에 한 차례 꼴로 경상도 조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태종은 결국 경상도의 해상 운송 체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높은 수송 비용이 들지만 인명 피해가 적은 육운 방식과, 낮은 수송 비용이 들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운 방식을 두고 태종과 관료들은 많은 논의를 거친 이후, 결국 육운 방식을 채택하였다.³⁰⁾ 육로로 산맥을 넘어 충주 금천창으로 조세를 수납하면, 그곳에서 남한강 수운을 통해 조세를 서울로 수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결국 고려시대부터 시작되고 간헐적으로 중단되었던 해운을 통한 경상도 세곡 수송은 태종대

29) 『태종실록』 권5, 3년 5월 5일 신사.

30) 『태종실록』 권5, 3년 5월 30일 병오 ; 『태종실록』 권5, 3년 6월 5일 신해.

이후 완전히 포기되기에 이르렀다. 태종은 이러한 결정 몇 년 이후 충주에 금천창을 세우도록 지시하였고,³¹⁾ 태종 12년에는 200칸의 규모로 금천창 창사가 완공되었다.³²⁾ 그 결과 경상도 지역의 조운 수송체제는 육운과 남한강 수운을 혼합한 것으로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었다. 아울러 세종대 이후에는 대일외교비용으로 왜료가 발생하면서 경상도 남부 35개 고을의 전세를 동래 등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서, 경상도 조세의 서울 수송량 자체가 매우 축소되기에 이르렀다.³³⁾

이와 같이 태종대에 이르러 조운제가 정비된 것은 단순히 시기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국가의 미곡 확보란 재정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곡 확보란 정책 목표는 조운 제도 및 저화 발행, 전세공물 위전 설정이란 구체적인 내용들과 서로 얽히며 윤곽을 그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는 경상도 지역에서 조운의 어려움으로 인해 난항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 경상도 지역의 조운 체제를 육운과 내륙수운의 결합으로 변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전라도 지역의 조운제 정비와 특성창의 개창

태종 즉위 직후 새로운 조운선 251척을 건조하며 조운제 정비에 박차를 가했으나, 태종 3년에 이르러 경상도 지역은 해운을 통한 조운이 포기되었다. 육로를 통해 문경새재를 통과한 이후 남한강 수운을 통해 충주에서 서울까지 수송되기로 결정되었으나, 이와 같은 체제로는 많은 양을 운송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경상도 지역에는 다시금 상당량의 전세공물 위전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수세된 미곡 중 서울로 수송되는 양에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아울러 세종대 이후에는 경상도 전세 중 상당수가 왜료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경상도 전세는 중앙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상도 조운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경상도 못지않은 경작지, 인구를 가진 전라도의 조운은 국가 재정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버금가는 충청도 지역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고 내륙수운과 해운을 모두 통할 수 있다는 점, 항해하는 지역에 위험요소가 매우 적다는 점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조운 운영이 가능하였다.

31) 『태종실록』 권22, 11년 11월 9일 15일 계유.

32) 『태종실록』 권22, 11년 11월 8일 을축.

33) 세종대 이후 대일외교비용으로서의 왜료의 규모와 수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종봉, 「조선전기의 왜료」 『역사와 경계』 77, 2010 ; 소순규, 「조선 초기 왜료 규모의 증가와 제도적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69, 2014 참조.

결국 태종이 기획한 국고곡의 확보, 그리고 중앙 재정의 안정적 운영은 결국 전라도의 조세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토지가 기름지가 조세가 많은 전라도 만한 곳이 없습니다”³⁴⁾ 라던 당대 관료의 발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경상도 못지 않게 전라도의 해상 조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B-①. 전라도 조선 수척이 침몰하였다.³⁵⁾

B-②. 왜적이 전라도 漕船 14척과 호송 병선 1척을 安行梁에서 약탈하여 갔다.³⁶⁾

B-③. 전라도 漕船 21척, 충청도 2척이 海風으로 침몰하여, 죽은 사람이 104명이었다.³⁷⁾

B-④. 전라도 조운선이 바람을 만나 패몰했는데,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³⁸⁾

태종 3년 경상도의 해운이 정지된 이후 발생하는 조운선 사고의 대부분은 전라도 지역의 조운선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왜구의 침탈도 전라도 지역의 조운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 12년 7월 104명이 사망하고 조운선 23척이 침몰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B-④). 앞서 태종 3년 경상도의 해운 수송이 포기된 것도 태종 3년 34척의 조운선 침몰 사고가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³⁹⁾ 태종 12년의 사고 또한 이에 못지않은 규모였던 것이다.

이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결국 전라도 조운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조정에서 논의가 분분해졌다. 결국 태종 12년에는 전라도에서도 육로 수송을 지속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C. “전라도 完山 領內 동북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淸州 領內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완산 서남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公州·洪州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南原·順天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동북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羅州·光州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서남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여…(중략)…임금이 그대로 따랐다.”⁴⁰⁾

34) 『태종실록』 권24, 12년 11월 3일 갑신 “土地之饒 租稅之多 莫全羅若也”.

35) 『태종실록』 권8, 4년 7월 3일 임인 “全羅道漕船數隻 沒水”.

36) 『태종실록』 권11, 6년 4월 8일 무진 “倭奪全羅道漕船十四艘及護送兵船一艘于安行梁”.

37) 『태종실록』 권24권, 12년 7월 17일 경자 “全羅漕船二十一艘 忠淸二艘颶沒 人死者百四”.

38) 『태종실록』 권24, 12년 10월 11일 계해.

39) 『태종실록』 권5, 3년 5월 5일 신사.

40) 『태종실록』 권24, 12년 8월 28일 경진 “全羅道完山領內東北各官 則輸至于淸州領內各官 完山西南領內各官 則輸至于公州洪州領內各官 南原順天領內各官則輸至于完山東北領內各官 羅州光州領內各官 則輸至于完山西南領內各官...從之”.

위의 논의는 전라도 지역의 전세를 차례로 보다 북쪽으로 수송하여 충청도 지역으로 옮긴 다음 거기서 배를 통해 수송하자는 계획이었다. 즉 광주, 나주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전라남도 서쪽 지역의 전세는 우선 전주 서남부 군현들로 옮기면, 다시 그 전세와 전주 서남부 군현의 조세를 모두 합쳐 충청도 공주, 홍주 인근 고을로 옮기는 것이다. 전라남도 동쪽 지역, 즉 순천과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세는 전주 동북쪽에 위치한 고을들로 옮긴 이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전세와 합쳐 이를 청주 인근 고을로 옮기도록 한 것이다. 이후 해당 조세를 충청도의 조세 운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로 수송하자는 계획이었다.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조운 사고의 여파로 태종 역시 이 안에 순순히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육운을 결정한 지 3달 만에 전라도 해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경상도의 해운이 정지된 상황에서, 조세가 가장 많이 걷히는 전라도 지역까지 육로로 수송할 경우, 국가의 미곡 유통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사실상 전라도 지역에서의 조운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군동지총제 홍유통은 전라도 조세를 해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홍유통의 건의에 대해 태종은 “앞서 육운 논의할 때는 한 사람도 불가하다는 사람이 없더니, 이제는 모두 해운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의 정책상 전라도 조운은 폐지할 수 없는 일인데, 인명사고 등으로 육운을 주장하였다가 다시금 해운을 주장하는 관료들의 태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 보인다. 그러나 태종 역시 홍유통의 건의를 바로 수용하며 해운을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수차례 사고와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해운을 재개하기로 결정되자, 조운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바로 안흥량에 운하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해운이 결정되고 보름 이후, 참찬의정부사였던 김승주를 순제로 보내어 운하 건설을 지시하였다. 이 운하 건설은 이미 태조 때에도 한 차례 검토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일이었고, 일의 실무를 맡은 김승주 본인도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심지어 태종 스스로도 일의 성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⁴²⁾ 그러나 해운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안흥량의 운하 건설은 추진되었고, 이듬해인 태종 13년 2월 역사가 완료되었다.⁴³⁾

그러나 운하가 건설된 이후에도 이를 통한 조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역사가 완료되었다는 2월의 기사 후에도 하륜이 순제 지역에 ‘鑿池’하여 조운하는 일을 폐할 수 없다고 주장

41) 『태종실록』 권24, 12년 11월 3일 갑신.

42) 『태종실록』 권24, 12년 11월 16일 정유.

43) 『태종실록』 권25, 13년 2월 10일 기미.

하는 기사로 보아,⁴⁴⁾ 13년 2월 운하 건설이 일차적으로 완성된 이후에도 조운을 소통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관료들의 반대가 심하고, 태종 스스로도 성공을 자신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결국 운하를 통한 조운은 좌절되고 말았다.⁴⁵⁾

육운 방안과 운하 건설을 포기한 이후, 다음으로 모색된 방안은 과전 및 공신전의 일부를 남쪽 지방으로 이급하는 일이었다.⁴⁶⁾ 조선 건국 직전 시행된 전제개혁에서 관료들에 대한 과전 및 공신전 등 사전은 모두 경기 지역에만 설정하도록 제한하였다. 고려 말의 사전폐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서울에 가까운 지역의 조세는 대부분 관료들 개인에게 지급되고, 국가로 귀속되는 조세는 대부분 수도에서 먼 지역에서 걷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먼 지역에서 걷힌 조세를 서울로 수송하는 것이 조운의 역할이었다.

관료들의 방안은 차라리 수송이 어려운 먼 지역에 사전을 배치하고, 국가 귀속의 조세지들을 경기 인근에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먼 지방의 조세 중 상당수는 관리들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구태여 조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은 조운 자체가 매우 험난하므로, 이들 지역에 사전을 배치할 경우 수송의 어려움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사실 이 방안은 이미 태종 초반 경상도 지역 조세의 조운 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한 차례 등장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애초 사전경기의 원칙을 세운 이유, 즉 사전팽창의 빌미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다.⁴⁷⁾ 태종 13년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역시 이 방안은 쉽사리 결정을 내지 못하였다. 태종 16년까지도 태종은 태조의 성현은 쉽사리 고칠 수 없다며⁴⁸⁾ 이 문제의 처리 방안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⁴⁹⁾

이처럼 조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두 포기되거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종 13년 5월에는 전라도 남원의 조운선 1척이 패몰하여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⁵⁰⁾ 이듬해인 태종 14년 8월 4일에는 조운선 66척이 태풍을

44) 『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1일 정미.

45) 『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10일 병진 ; 『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14일 경신.

46) 『태종실록』 권28, 14년 8월 18일 무오.

47) 태종~세종대 경기 과전의 하삼도 이급 논의와 실제 시행 경위에 대해서는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일조각, 1986, 제5장 참조.

48) 『태종실록』 권31, 16년 5월 20일 신해.

49) 다만 이때 논의가 시작된 과전의 하삼도 이급 논의는 태종 17년 경기 사전의 1/3을 하삼도로 이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세종 13년경 하삼도로 이급된 사전을 다시 경기로 환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태종실록』 권34, 17년 7월 22일 을해 ; 『세종실록』 권51, 13년 1월 24일 기축.

50) 『태종실록』 권25, 13년 5월 21일 기해.

만나 패물하고 200여 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다시금 일어났다.⁵¹⁾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조정에서 조운 논의가 촉발되었고, 전라도 지역의 조운 운반 방법은 다시금 한 차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D. 전라도에서 매년 豐儲倉·廣興倉으로 미곡을 漕運하는데, 아울러 40,060석입니다. 만약 모두 충청도 內浦까지 육지로 運輸한다면 人馬가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청컨대, 경상도의 예에 의하여 그 程途의 멀고 가까운 것과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全羅上道の 각 고을은 內浦에, 中道·下道는 龍安城 혹은 鎭浦에 정월에서 2월에 이르기까지 육지로 운수하여 창고를 짓고 수납하였다가, 3,4월에 이르러 모조리 조운하도록 하십시오.⁵²⁾

이 기사는 태종 14년 9월의 방안인데, 향후 10여년 이상 지속된 전라도의 조운 방안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도를 상, 중, 하로 나누어 상도 군현들은 충청도 내포 지역으로 조세를 육운 수송한 이후 거기서 조운을 통해 서울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중도와 하도 지역은 진포 지역으로 조세를 수송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조운을 통해 서울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진포 지역의 경우 안홍량을 피할 수는 없으나, 전체 조운 거리를 줄임으로서 빠른 일자 안에 수송되도록 할 수 있었다. 조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7-8월 사이에 행선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바로 전라도의 조세 수송량을 줄이는 문제였다. 위의 기사에 의하면 전라도 지역에서 풍저창과 광흥창으로 수송하는 미곡은 모두 4만석이었다. 그런데 이는 풍저, 광흥 양 창고의 수송량에 한정된 양이었다. 국가에서 1년의 경비로 소비하는 미곡은 풍저창, 광흥창 양 창고에 수납되었다가 사용되었지만, 재고곡으로서 저치되고 관리되는 미곡은 모두 군자감 소속 창고에 수납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양 창에 수납되는 미곡 외에 군자감으로 수납되는 미곡이 존재했고, 이를 합산하면 전라도에서 수송되는 미곡의 양은 4만석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E-①. 전라도의 1년간 租稅 숫자는 대체로 7만 석입니다.⁵³⁾

E-②. 전라도에서 1년에 漕運하는 것이 불과 9만 석입니다.⁵⁴⁾

51) 『태종실록』 권28, 14년 8월 4일 갑진.

52) 『태종실록』 권28, 14년 9월 12일 임오 “全羅道每年漕運豐儲廣興倉米 共四萬六十石 若皆陸輸于忠清道內浦 則人馬困斃 請依慶尙道例 考其程途遠近所耕多小 全羅上道各官則內浦 中道下道則龍安城或鎭浦 自正月至二月 陸轉作庫納之 至三四月 悉令漕運”

53) 『태종실록』 권24, 12년 11월 3일 갑신.

54) 『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10일 병진.

위의 E 기사들은 각각 태종 12년 11월(E-①)과 태종 13년 8월(E-②)의 기사들로, 모두 전라도 조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언된 것들이다. 태종대 당시에는 1년에 서울로 상납되는 조세의 양이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조세 수납액은 풍흉에 따라 해마다 달라졌고, 그 중에서 서울로 상납하는 양 역시 해마다 달랐다. 태종 12년과 13년은 각각 서울로 상납하는 조세의 수가 7만석, 9만석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달랐던 서울상납액이 고정되는 것은 세조대 공안과 횡간이 작성되면서부터였다.⁵⁵⁾

이를 염두에 두고 위의 기사들을 종합하여 이해해 보면, 전라도에서 1년간 중앙으로 상납하는 조세는 풍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년 약 7~9만석 사이였다. 그 중에서 풍저창과 광흥창으로 수송되어 해마다 국가의 경비로 사용되는 것이 4만석, 군자감으로 이송되어 국가의 저치곡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략 3~5만석 정도였던 것이다. 위의 D 기사에서 제기한 방안은 필수적으로 풍저창과 광흥창에 납입되어 한 해의 경비로 사용되는 양 4만석은 조운하되, 군자감의 저치곡은 전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최대한 수납하고 전라도에서의 수송량은 줄이자는 방안이었던 것이다. 다만, 당시 건의를 통해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수송량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국 태종은 이 방안을 수락하였고, 향후 전라 중도 및 하도의 조세 수납은 진포 일대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창고를 짓도록 명하였는데, 이 창고는 태종 17년 완성되었다.⁵⁶⁾ 바로 용안현에 신설된 덕성창이었다. 덕성창은 이후 약 10여 년간 전라도 지역의 유일한 조운창고로 활용되었고, 세종 10년 이후에는 위치를 옮겨 덕성창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나주의 영산창과 함께 전라도의 양대 조창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덕성창의 개창은 조선시대 조운 운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향후 『경국대전』에 수록된 9조창제의 제도적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앞서 태종대 조운제 정비 과정을 서술하였지만, 이전까지 전라도 조운은 큰 틀에서 고려 말의 각군현별 조운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한 틀에 국가에서 제작한 조운선이 투입되었을 뿐이었다. 앞서 태종 13년 조운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조운선은 ‘전라도 남원의 조운선’이었다.⁵⁷⁾ 아직 조운의 주체는 군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태종 14년 덕성창의 개창되면서, 전라도 중도와 하도의 조세는 조창인 덕성창에

55) 해마다 서울로 상납되는 조세의 양이 변동되는 것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실상 세종이 공법을 도입하려 했던 가장 큰 원인 역시 1년의 상납액을 고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었다. 1년 상납액의 고정이 이루어진 것은 세조대 공안 개정 당시 군현별 1년 상납액을 고정하여 기재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대해서는 소순규, 「세조대 공안(貢案) 수록 내용의 확대와 재정적 위상 강화」 『역사와 현실』 110, 2018 ; 소순규, 「세조대 공법(貢法) 도입의 재정적 맥락 - 원인, 결과, 영향 -」 『역사와 현실』 118, 2020 참조.

56) 『태종실록』 권34, 17년 11월 8일 기미.

57) 『태종실록』 권25, 13년 5월 21일 기해 “上慮全羅道漕運阻風 遣人視之 南原漕船一艘颶沒 死者十三人”.

집중되고 이후 국가의 조운시스템을 통해 서울로 상납하도록 정비된 것이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미 태종 3년경 경상도 지역의 조세를 육운으로 결정하면서 충주의 금천창을 조창으로 성립한 예가 있었으나, 이는 육운과 내륙 수운을 겸한 것이었다. 때문에 경상도에서 서울로 상납하는 양을 최소화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 반면 해운을 통한 조운창의 성립은 태종 14년 득성창이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후 세종대에 이르서는 전라도에 영산창을 신설하였고⁵⁸⁾ 세조~성종대 초반에는 전라도 중간 지역에 법성창을 신설하였으며⁵⁹⁾ 성종대에는 충청도 지역의 여러 조운수납처를 통일하여 공세곶창으로 일원화하였다.⁶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 상의 조창제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⁶¹⁾ 득성창의 개창은 이러한 9조창제의 가장 선구적인 원형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D 기사에서 언급한 조운체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세종 9년까지 유지되었다. 세종 9년, 조정에서는 전라도를 양분하여 북쪽 지역의 조세는 득성창으로 수납하고 남쪽 지역의 경우 나주의 영산창으로 납입하도록 결정하였다.⁶²⁾ 그리고 이듬해에는 득성창의 위치를 용안현에서 보다 하류인 함열현의 피포로 이동하고 창고의 명칭을 덕성창으로 변경하였다.⁶³⁾ 이리하여 세종 10년 이후부터는 전라도 지역의 조세가 두 개의 조창을 통해 집중, 수송되도록 하였다.

다만 세종대 이후 전라도 지역의 조운 변화에서 한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처럼, 태종대 여러번 전라도 지역의 조운 논의를 통해 전라도 상도 지역은 충청도로 육운 이후 해운하고, 중도와 하도 지역은 득성창으로 조세수납처를 일원화 한 것은 수차례 발생한 조운선 사고 때문이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조운을 운행할 경우 안홍량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곳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운 운항의 조건은 세종대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종대 이후 영산창, 법성창 등이 지속적으로 개창되고, 육운을 줄이는 대신 해운을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배경 역시 태종대와 그 이후 달라진 재정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태종대 조운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것은 자연환경적 요소 보다는 인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태종대 재정 정책의 핵심은 미곡의 확보, 그리고 이를 중앙으로 수송하여

58) 『세종실록』 권35권, 9년 2월 2일 경신.

59) 『성종실록』 권21, 3년 8월 13일 정축.

60) 『성종실록』 권86, 8년 11월 27일 경인.

61) 『경국대전』 권2, 호전, 조전.

62) 『세종실록』 권35, 9년 2월 2일 경신.

63) 『세종실록』 권42, 10년 12월 22일 기해.

저치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세 수취량도 많았고, 많은 수취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서울로 수송하였다. 즉, 조운의 수송량이 비상할 정도로 많았다. 이에 따라 조운선은 한 해 몇 차례 수송을 담당해야 했고, 이는 자연스럽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7-8월에도 조운선 운행을 감행하도록 만들었다. 아래의 기사들을 참조해 보자.

F-①. 전라도에서 1년에 漕運하는 것이 불과 9만 석인데, 3運으로 나누어 漕轉한다면 매 運에는 불과 3만 석입니다. 하나의 大船에 싣는 바는 불과 5백 석이고, 20船에 싣는 바는 불과 1만 석인 까닭으로, 大船 20척이 물이 깊은 곳에 와서 정박한다면 平底船 20척으로써 매 1척에 각각 2백 50여 석을 싣으니, 두 차례를 싣어 온다면 1만 석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⁶⁴⁾

F-②. 全羅道水軍都節制使 鄭幹이 漕轉하는 事宜를 올렸다. 報告는 이러하였다. "이 道의 船軍은 해마다 漕轉이 거의 4차례에 이르므로, 그 노고가 심하며, 또 失農합니다.⁶⁵⁾

F-③. 밤에 큰 바람이 불어 전라도 漕船 66척이 敗沒하여 익사한 자가 2백여인었고, 沈水한 쌀·콩이 아물러 5,800여 석이었다. 7월에 行船은 옛사람이 꺼리던 바였는데, 앞서 戶曹에서 移文하기를, "7월 그믐 때 실어서 8월 초에 떠나보내라." 고 하여, 水軍都節制使 鄭幹이 移文한 것을 따르다가 이러한 災殃에 이른 것이다.⁶⁶⁾

위의 F 기사들은 태종 13년(F-①), 태종 14년(F-②, F-③)의 것들인데, 보통 전라도에서 조운이 1년에 3차례 혹은 4차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나마 3차례로 언급하는 F-① 기사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렇게 하면 조운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즉, F-①의 3차례 조운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대한 논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전라도 지역에서 조운의 횟수는 F-②에서 언급한 것처럼 4차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상시적으로 4차례 조운이 이루어지고 수송량이 많다보니, 결국 선박 운행을 피해야 할 7-8월에도 상시적으로 조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종대 발생한 조운선 사고 중 상당수는 선박 운항이 위험한 여름 기간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태종 12년 7월 배 23척이 침몰하고 104명이 사망한 사건, 태종 14년 8월 배 66척이 파손되고 200여 명이 사망한 사건 모두 여름 기간 동안 무리한 조운 운행을 강행하다 벌어진 참사였던 것이다.⁶⁷⁾ 결국 태종대 조운 사고의 상당수는 수송 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수송 물량, 그로 인하여 위험한 기

64) 『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10일 병진 "全羅一年漕運 不過九萬石 分爲三運漕轉 故每運不過三萬石 一大船所載不過五百石 二十船所載不過一萬石 故大船二十艘 水深處來泊 則以平底船二十艘 每一艘各載二百五十餘石 兩度載來 則可輸一萬石".

65) 『태종실록』 권27, 14년 6월 2일 계묘 "全羅道水軍都節制使鄭幹上漕轉事宜 報曰 此道船軍 每歲漕轉 幾至四度 其勞甚矣 且失農業".

66) 『태종실록』 권28, 14년 8월 4일 갑진 "全羅漕船六十六艘敗沒 溺死者二百餘人 沈水米豆并五千八百餘石 七月行船 古人所忌 先是 戶曹移文云 七月晦時載船 八月初發送 水軍都節制使鄭幹從移文 以致此災".

67) 『태종실록』 권23, 12년 7월 17일 경자; 『태종실록』 권28, 14년 8월 4일 갑진.

간을 무릅쓰고 선박을 운항한 까닭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 태종대 미곡 확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태종 3년만 해도 1-2만석 정도라던 서울의 중앙저치곡은 태종 9년에 이르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경북공의 행랑을 이용하여 저치할 만큼 풍족해 졌다.⁶⁸⁾ 태종 13년에는 중앙의 저치곡만 25만석에 이르렀다.⁶⁹⁾ 태종 14년에는 호조판서 박신이 조운으로 수송해온 미곡을 수용하기 위해 강변에 50칸 규모의 창고를 새로 건설하자는 건의를 올리기도 하였다.⁷⁰⁾ 태종 13년 이후 서울의 저치곡 수치를 확인할 기사는 없으나, 태종 말년까지 전국의 저치곡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⁷¹⁾ 태종 퇴위시까지 중앙의 저치곡 역시 25만석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세종대 영산창 개창을 통해 전라도 지역의 해운을 확장한 것은 재정 정책의 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태종대 미곡 확보 및 수송을 위해 무리한 조운 운영을 강행하였다면, 세종대에는 그러한 정책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우선 태종대 상당한 미곡을 저치함으로써 국가에서는 중앙으로 무리한 미곡 수송을 감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조운 수송량을 감소시킨 결과 여름 기간 동안 행선을 감행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는 결국 사고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조운의 위험성이 대폭 감소된다면, 군이 득성창으로 창고를 일원화하여 전라도 민들에게 긴 육상 수송의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롭게 전라도 남부에 영산창을 개창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세조대 이후까지 이어져 새롭게 득성창과 영산창 사이에 법성창을 개창하여 전라도민들의 육상 수송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요컨대 태종대 조운제 정비는 태종대 시행된 재정 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앞장에서 살핀 것처럼 미곡의 확보와 중앙으로의 수송 필요성에 직면한 태종은 조운제 정비를 서둘렀다. 아울러 미곡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전라도 및 경상도 지역에 미곡 수취를 늘리고 이를 중앙으로 수송하고자하였다. 그러나 경상도의 경우 이러한 태종의 구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전라도의 조운제 정비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

이후 전라도 지역의 조운제 정비 또한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몇 차례 조운선 사고의 발생은 조정으로 하여금 여러 대책을 내놓게 하였으나 어떠한 것도 조운의 위험성을

68) 『태종실록』 권17, 9년 6월 5일 병오.

69) 『태종실록』 권17, 9년 1월 18일 신유.

70) 『태종실록』 권27, 14년 5월 18일 경인.

71) 앞 절에서 서술하였던 것과 같이 태종대 저치곡의 수치는 태종 9년 시점에서 중앙 25만석, 전국 122만석이었고, 태종 13년 시점에는 전국 356만석, 태종 17년에는 전국 415만석 규모였다. 『태종실록』 권17, 9년 1월 18일 신유 ; 『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6일 임자 ; 『태종실록』 권34, 17년 7월 20일 계유.

낮출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다. 결국 전라도의 가장 북쪽 해안에 득성창을 개창하고 전라도 남부 및 중부의 조세를 집결시키는 조창으로 건설하고, 전라도 북쪽의 경우 육운을 통해 충청도로 수송하여 조운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협책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진포 지역의 득성창은 충주의 금천창 다음으로 조선이 건설한 조창이 되었으며, 이후 차례로 정비되는 조선시대 조창의 원형이 되었다.

세종대 이후부터는 태종대 확보한 미곡을 바탕으로 하여 더 이상 무리한 미곡확보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는 무리한 조운선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득성창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영산창을 전라도 남부에 개창하고, 이후 세조대에는 두 조창 사이에 법성포창까지 개창함으로써 육운을 최소화하여 민력을 감소시키는 조운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결국 조운제의 정비와 방향, 그리고 그 성과들은 국가의 재정 정책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초 이루어진 조운제도의 정비 과정을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당시 재정정책의 방향에서 전라도 조운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전라도 지역의 조운제 정비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포 지역의 득성창 개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맺음말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조선은 건국 이전부터 전제개혁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다. 그러나 전제개혁은 새로운 사전분급제의 정착에는 성공적이었으나, 국가 재정의 정상화란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는 고려 말에 비하여 조선 초의 국가 재정이 크게 호전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었음에도 태조~정종에 이르는 국초 10년간은 조운제 정비에 이렇다할 만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수도 건설로 인한 조운 운영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을 뿐이었다.

조운제의 정비 필요성은 새로운 군주인 태종이 집권하자마자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고려 말과 다를 것 없는 재정 상황, 특히 국가가 확보한 미곡의 부족 현상은 강력한 왕권 확립을 통해 새 왕조의 기틀을 다잡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태종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강력한 미곡 확보 정책을 시행하였고, 아울러 확보한 미곡을 안정적으로 중앙으로 수송하는 조운제도의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은 국가의 미곡 생산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미

곡을 확보하여 중앙으로 수송하는 조운의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태종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상도 지역의 미곡 수송량 확대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경상도 지역은 해상 운송을 포기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송량도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태종대 초반 경상도 지역의 해상 조운 포기는 전라도 지역의 조운제 정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전라도 지역은 당시 중앙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조운에 의한 수송량 역시 상당하였다. 해마다 3-4 차례 조운선 운행이 시행되면서 여러 차례 대형사고에 직면하였고, 이 때마다 조정에서는 육운, 운하, 과전이급 등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결국 조정의 방법은 진포 지역으로 전라도 중, 남부의 조세를 집중시키는 한편, 전라도 상부 지역의 조세는 충청도로 육운하는 방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용안현에 덕성창을 개창하였다.

덕성창은 이후 조선의 9개 조창 중 바닷길을 통한 지역에 가장 이른 시기 성립된 조창이란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것이었다. 세종대 이후 국가의 미곡확보 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고 나자 조운 운영의 위험성도 상당부분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세종 9년 영산창이 개창되고 전라도 조세 수납을 2개 창고로 이원화시켰고, 덕성창은 과거보다 좀 더 하류 지역의 덕성창으로 이동하여 덕성창과 영산창의 2조창으로 전라도 지역의 조운을 운영하였다. 이후 세조대에는 두 조창 사이에 법성창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전라도 지역은 모두 3개의 조창이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초 조운제 정비는 단순히 조운 자체만이 제도적 정비라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 정책과 그 맥락을 정확히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태종대 이후 중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조운제 정비 역시 여타 지역에 비하여 일찍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전라도에 가장 먼저 조창으로 재확립된 덕성창은 당시 재정정책에서 상당히 주요한 위상을 차지한 조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문화콘텐츠 방향

발표 _ 이남희 (원광대학교)

- I. 머리말
- II. 진포는 어디에 : 현재적 검토
- III. 진포대첩 : 성격과 함의
- IV. 진포대첩과 익산 그리고 지역문화
- V. 지역문화콘텐츠와 디지털화

③ 발제 발표문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문화콘텐츠 방향

이남희 (원광대학교)

I. 머리말

이 글은 진포대첩 현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그 현장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¹⁾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진포대첩(鎭浦大捷)은 1380년(우왕 6) 8월 500선단을 꾸린 왜구(倭寇)가 진포 지역을 뚫고 익산 옹포의 덕성창(德成倉)에 쌓아둔 세곡(稅穀)을 탈취하는 것을 크게 물리친 전쟁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진포해전’(鎭浦海戰)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 시대에 500여 선단을 이끌고 왜적이 침략해왔다는 것도 놀라운 규모지만, 최무선이 화포(火炮)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100척의 고려 수군이 그것을 격퇴했다는 것이다.²⁾

역사적으로 진포대첩은 그 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혼란기 내지 질서재편기의 막바지

1) 진포대첩과 관련해서 익산에서 학술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 학술대회 「익산 옹포, 진포대첩 학술대회」(주최 익산시, 주관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처음인 듯하다. 이처럼 의미 있는 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양은웅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정이오(鄭以吾)가 쓴 「화약고기(火藥庫記)」에 따르면 화통(火筒)과 화포(火砲)가 왜구 선단을 불태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전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 대륙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자웅을 겨루던 시기, 즉 원명교체기에 해당하며, 일본 국내에서는 남조와 북조의 내란의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고려사에서는 홍건적,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전투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고려 후기의 무신집권과 원나라 지배, 그리고 신홍사대부의 등장 등과도 맞물려 있다. 황산대첩을 이끈 이성계는 그 같은 전환기와 전시(戰時)에 등장해서 중앙정계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으며, 그 연장 위에서 조선을 건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포대첩은 황산대첩과 더불어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전쟁이라 할 수 있겠다.

진포대첩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없지만, 진포가 어디인가 하는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진포대첩은 고려 시대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려시대로 돌아가서 당대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³⁾는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명의 경우, 고대사에 흔히 그러하듯이 명확한 경계 비정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한 같은 지명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가리키는 실체가 변하기도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강 내륙수로의 하류지역에 해당하며, 어느 한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거시적으로 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 진(鎭)과 포(浦)라는 단어 자체가 물가, 강가, 바닷가를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진포는 어디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진포대첩’을 통해서 그 지역으로서의 진포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해보고자 한다. 진포에서 진포대첩으로 나아갔겠지만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오히려 진포대첩을 그려가다 보면 진포가 자연스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진포대첩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구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진포대첩과 진포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익산 웅포 지역에 있었던 덕성창과 어떤 관련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 진포대첩 현장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아우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뮤지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그래서 향후 진포대첩의 문화적 활용과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박영철, 2020, 「鎭浦와 鎭城倉」, 『진북사학』 44, 28쪽.

II. 진포는 어디에 : 현재적 검토

진포는 “충청남도 서천군 남쪽에 있었던 해포(海浦)”라 한다. 일단은 포구, 해안포구라는 것, 그리고 소재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남쪽이라는 것이다.⁴⁾ 그러면서도 “금강 내륙수로의 하류지역에 해당하며, 어느 한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은 아니었고, 임천(林川) 고다진(古多津)에서 서천포(舒川浦)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금강 하류지역에 위치하였던 나루는 모두 진포를 건너는 곳이었다.”고 했다.

그래선지 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 하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고려해도원수나세진포대첩비(高麗海道元帥羅世鎭浦大捷碑)」가 서 있다. 오석(烏石) 4면비에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잘 갖추고 있으며, 비문은 나세(羅世) 후손 서예가 나동균(羅東均)이 썼다. 역사적인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1996년 그 자리에 비(碑)를 세웠다.⁵⁾

나세(1320~1397)는 1380년 8월, 왜적 500여척이 침입해왔을 때 해도원수(海道元帥)가 되어 심덕부(沈德符)·최무선(崔茂宣) 등과 함께 전함 100척을 이끌고 진포에서 최무선이 만든 화약과 화포를 실전에 처음으로 사용하여 왜선 500척을 대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진포대첩의 주역이었던 셈이다. 그 공으로 문하평리(門下評理)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원나라에서 귀화한 귀화인이다. 1359년(공민왕 8) 홍건적의 침략을 격퇴한 공적이 있으며, 그 공적으로 2등 공신이 되었다(1363년). 그 외에도 그는 왜적을 방어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서천군과 금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산에도 「진포대첩기념탑(鎭浦大捷紀念塔)」과 「진포대첩사적비(鎭浦大捷事蹟碑)」가 세워져 있다. 「진포대첩기념탑」은 1999년 군산개항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17.9m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조형물에는 최무선이 처음 사용한 화포가 하늘을 향해 화구를 겨누고 있다. 금강 하구둑 바깥의 금강시민공원,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진포대첩사적비」는 기념탑 옆에 서 있다[1999년 건립]. 오석(烏石) 4면비에 화강암으로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갖추었다. 진포대첩 전개 과정을 한글로 적었다.

아울러 군산향토사연구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군산대학교, 2000.10.10.)가 개최되기도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 명에 진포로(鎭浦路)가 생긴 것도 지적할 수 있겠다. 그 후 군산에서는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진포해양테마공원」을 2007년 10월에서 2010년 8월에 걸쳐 조성했다.⁶⁾ 군산 부두의 부잔교(浮殘橋)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4) 한국학중앙연구원편, 1991, 「진포(鎭浦)」,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한 가지 덧붙여 두자면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지난 2007년 「진포구 대첩 학술대회」(서천문화원, 2007.11.22)를 개최했다.

6) 디지털군산문화대전(<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

4,200톤급 위봉함[지하 2층, 지상 4층]을 비롯한 해경정, 수륙양용장갑차, F-86 전투기, 자주포 등 육·해·공군의 퇴역장비 13종 16대를 전시하여 공원을 조성했다. 기념관 안에는 진포대첩에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진포대첩 당시의 이야기 역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진포대첩을 기념하여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군산문화원 주최로 군산 내항에서 진포대첩 재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⁷⁾

한편 익산의 웅포(熊浦), 곰개나루에도 진포대첩 기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진포대첩 전장과 전투도도 그려 놓았다(<그림 1> 참조). 진포대첩지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1> 웅포관광지(곰개나루캠핑장)



<그림 2> 진포대첩지 안내판

“진포대첩은 1380년(고려 우왕6년)에 금강하구의 진포에 침입해 온 왜구를 고려 수군이 무찌른 해전이다.

고려 말(13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왜구는 특히 비옥한 호남평야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금강을 거슬러 익산지역의 웅포, 망성, 용안, 용동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강경일대를 중심으로 세력범위를 넓혀갔다. 이에 고려 정부는 침입하는 왜구를 무력으로 격퇴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강화하였으며,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화포 등 각종 화기를 제조함으로써 국방력을 향상시켰다.

한편 1380년(우왕 6년) 8월 왜구는 금강변에 있던 나라 세곡미가 보관되어 있었던 조창을 약탈하기 위해 50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곰개 포구 앞 넓은 곳에 정박을 하게 된다. 왜구의 대함대가 침입했다는 급보를 접한 고려정부는 최무선 장군을 급파하여 왜선을 소탕하도록 하였다. 최무선의 지휘 하에 화약 무기를 적재한 100여 척의 고려 함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화통, 화포를 주 무기로 한 공격전술을 통해 적선 500여 척과 왜구 3,000여명을 섬멸하였다.

큰 피해를 입은 왜구는 퇴로를 차단당하자 남원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으며, 이에 고려정부는 이성계로 하여금 왜구의 잔당들을 황산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왜구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진포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최초로 화포를 사용해 대승을 이룬 전투라는 점과 고려 말기 왜구 토벌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높다.”

7) 『연합뉴스』, 2010년 10월 21일자.

진포대첩 당시 옹포에는 덕성창(德成倉)이 있었다. 지금의 익산시 옹포면 고창리(古倉里)가 그곳이며, 호남북부 지역의 세곡을 한데 모아 물길로 개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조창(漕倉)이었다. 왜적은 옹포 앞 넓은 강[熊淵]에 500선단을 하나로 묶고 창고의 쌀을 옮겨 싣는데 길가에 흩어진 것이 1자(30.3cm)나 되었다고 전한다.⁸⁾ 진포대첩을 전후한 시기, 금강이 주요한 교통로, 뱃길이였을 때에는 옹포, 강경을 거쳐서 공주 등지로 배가 다녔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Ⅲ. 진포대첩 : 성격과 함의

역사서에서는 진포대첩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료를 찾아볼 수 있다.

[사료 ①] 왜적의 배 500척이 진포(鎭浦)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드디어 해안에 상륙하여 주군(州郡)으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으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었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면서 쌀이 땅에 버려진 것이 한 자나 쌓였다. 나세(羅世)·심덕부(沈德符)·최무선(崔茂宣) 등이 진포에 이르러 처음으로 최무선이 제작한 화포를 사용하여 그 배를 불태우자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가렸다. 왜구가 거의 다 타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 왜구가 포로로 잡은 자녀들을 모두 죽여 산처럼 쌓아놓으므로 지나가는 곳마다 피가 파도쳤으며, 오직 330여 인만이 탈출해서 왔다. 왜구 가운데 죽음을 벗어난 자들은 옥주(沃州)로 달아나서, 해안에 상륙해있던 적과 합세하여 이산현(利山縣)과 영동현(永同縣)을 불태웠다.⁹⁾

[사료 ②] 나세(羅世)는 본래 원(元) 사람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홍건적(紅巾賊)을 쳐서 패주시켜 2등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여러 번 자리를 옮겨 판도판서(版圖判書)가 되었다. … 그리고 심덕부·최무선(崔茂宣) 등과 함께 전함 100척으로 왜적을 추격하였는데, 이때 적선 500척이 진포(鎭浦) 입구로 들어와 정박하여 군사를 나누어 지키면서 해안으로 올라와 주군(州郡)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왜적이 노략질을 자행하니 산과 들에 시체가 뒤덮였으며 그들의 배로 곡식을 실어 날랐는데 쌀을 흘린 것이 1척 높이가 되었다. 나세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이용하여 그들의 배를 불살랐는데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뒤덮였으며 배를 지키는 적이 거의 타죽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 나세 등이 진무(鎭撫)를 보내어 승첩(勝捷)을 바치니 우왕이 기뻐하며 진무에게 각각은

8)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6년 8월조. 덕성창은 조선 전기 전국 9조창 중 하나로서 전라도 26개 고을[咸悅·全州·南原·益山·古阜·金堤·綿山·珍山·淳昌·臨陂·沃溝·萬頃·扶安·井邑·金溝·泰仁·任實·求禮·雲峯·長水·鎭安·龍潭·茂朱·高山·礪山·龍安]의 세곡을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경국대전』 권2, 이전 조운)

9) 倭賊五百艘入鎭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遂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載于其舶 米粟地厚尺 羅世沈德符崔茂宣等至鎭浦 始用茂宣所製火砲 焚其船 煙焰漲天 賊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賊盡殺所俘子女山積 所過波血 唯三百三十餘人自拔而來 賊脫死者 趣沃州 與登岸賊合 焚利山永同縣.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6년 8월)

50냥을 하사하였으며 백관이 축하하였다. 돌아와 잡희를 크게 열어 환영하였으며 나세 등에게 금을 각각 50냥씩 하사하고 비장(裨將) 정룡(鄭龍)·윤송(尹松)·최칠석(崔七夕) 등에게는 은을 각각 50냥씩 하사하였다.¹⁰⁾

[사료 ③] 경신년 가을에 왜선 3백여 척이 전라도 진포(鎭浦)에 침입했을 때 조정에서 최무선의 화약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무선을 부원수(副元帥)에 임명하고 도원수(都元帥) 심덕부(沈德符)·상원수(上元帥) 나세(羅世)와 함께 배를 타고 화구(火具)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렀다. 왜구가 화약이 있는 줄을 뜻하지 못하고 배를 한곳에 집결시켜 힘을 다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므로, 무선이 화포를 발사하여 그 배를 다 태워버렸다. 배를 잃은 왜구는 육지에 올라와서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하고 도로 운봉(雲峯)에 모였는데, 이때 태조가 병마 도원수(兵馬都元帥)로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왜구를 빠짐없이 섬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서로 잇달아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조(太祖)의 덕이 하늘에 응한 까닭이나, 무선의 공이 역시 작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개국 후에 늙어서 쓰이지는 못했으나, 임금이 그 공을 생각하여 검교 참찬(檢校參贊)을 제수하였다.¹¹⁾

이들 사료를 통해서 진포대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사료 ②]와 [사료 ③]은 나세와 최무선 등을 비롯한 고려군의 활약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사료 ①]은 민간의 피해까지 묘사하고 있다. 서로 보완이 된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진포대첩의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드러나는 몇 가지 특성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의 왜선 500여척은 왜적의 역사를 통틀어도 가장 압도적인 규모에 속한다.¹²⁾ 어떤 식으로 대함대가 등장했는지 확실히 알긴 어렵지만, 규슈의 남조 세력이 다카기·아마쿠사 일대의 선박을 대피시키기 위해, 그리고 남조의 본거지 기쿠치 일대가 포위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병량미를 얻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견해에 따르자면 이 1380년의 왜적은 다카기·아마쿠사 지역의 수군 세력은 물론, 규슈 최남단의 오오스미 지역의 호족 네지메씨 주변의 남조 세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시의 일본 남조는 북조의 규슈 공격이 시작되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활로를 뚫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

10) 羅世 本元人也. 恭愍朝 與諸將擊走紅賊 錄功爲二等 累轉版圖判書. … 又與德符崔茂宣等領戰艦百艘 追捕倭賊 時賊五百艘 入鎭浦口 維船 分兵守之 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輟于其舶 米粟地厚尺. 世等至鎭浦 用茂宣所製火炮 焚其船 烟焰漲天 賊守船者 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世等遣鎭撫獻捷 禍喜賜鎭撫銀各五十兩 百官陳賀. 及還 大設雜戲迎之 賜世等金各五十兩 裨將鄭龍尹松崔七夕等 銀各五十兩. 『고려사』 권114, 열전 권27, 나세

11) 庚申秋 倭寇三百餘艘至全羅道 鎭浦 朝議崔公火藥 今可試矣. 乃命爲副元帥 與都元帥沈德符上元帥羅世 乘船齎火具 直至鎭浦. 寇不意有火藥 聚船相維 欲盡力拒戰 茂宣發火具盡燒其船. 寇既失船 遂登岸劫掠全羅以至慶尙 還聚于雲峰. 上時爲兵馬都元帥 與諸將殲盡無遺. 自爾倭寇漸息 乞降者相繼 濟海之民 復業如舊. 雖由上德應天之所致 茂宣之功 亦不小矣. 至國初 以年老未見用 上念其功 授檢校參贊. 『태조실록』 권7, 4년 4월 임오

12) 참고로 임진왜란 당시 노랑해전에 집결한 규모가 300척이었다. 다만 왜선의 규모의 차이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적이 무장한 것은 일본의 내부 사정도 한몫 했다. 1192년 가마쿠리막부[鎌倉幕府] 이후 각 지방이 모두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적은 서로 교역을 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력 충돌과 병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무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¹³⁾

둘째, 500여척에 달하는 대규모 선단이 일본과 가까운 남해나 동해가 아니라 서해 쪽으로 침입해온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침략의 주요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라 해도 좋겠다. 그것은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에서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금강 유역, 특히 익산 웅포의 덕성창에는 호남 북부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稅穀), 즉 미곡이 비축되어 있었다. 왜적은 그것을 탈취하려는 것이 그들의 침략 목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덕성창은 지금의 익산 웅포면 고창리(古倉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세곡을 한 데 모아 뱃길로 수도 개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조창(漕倉)이었다. 따라서 왜적은 웅포 앞 넓은 강[熊淵]에 500선단을 하나로 묶고 창고의 쌀을 옮겨 실었던 것이다.

셋째, 조창의 운영과 운송을 위해서 진포에 수비대가 있었을 것이다. ‘진포(鎭浦)’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 위치는 바다와 금강이 만나는 금강 하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500여척에 달하는 왜적은 어렵지 않게 경계를 뚫고 들어와 곡식을 노략질 했을 것이다. 그 엄청난 군단은 배들을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있었으며, 상륙해서는 여러 주(州)·군(郡)으로 갑자기 흩어져 마음대로 불태우고 노략질을 했던 듯하다. 고려 백성들의 시체들이 산과 들에 뒤덮이는[屍蔽山野]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렇게 노략질한 곡식을 질질 끌면서 운반하느라 땅에 쌓인 쌀도 적지 않았다는 것, 길가에 흩어진 것 만해도 1자나 되었다고 전한다.

넷째, 고려 조정에서는 해도원수 나세, 심덕부 그리고 최무선에게 전함 100척을 주고 진포로 내려 보내 왜적을 막게 했다. 고려 수군은 백 여 척의 선박으로 숫자로 따지자면 열세였다. 하지만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화포에 힘입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¹⁴⁾ 화포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게다가 왜적은 배들을 서로 묶어 놓았고, 그것을 마치 기지처럼 삼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화포를 맞고 배를 잃어버린 왜적은 육지로 올라와서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했다. 그런 다음 남원, 운봉에 모였다. 바로 그 때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왜적을 섬멸했던 것이다. ‘황산대첩’이 그것이다. 따라서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은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섯째, 전투가 이루어진 주요 전장(戰場)은 어디였을까. 역시 일차적인 전투는 왜적이 배

13) 이영, 2008, 「고려 말 왜구와 남조 : 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1 참조.

14) 최무선은 평소에 방략(方略)이 많으며 병법(兵法)을 즐겨 말하는 편이었는데, 스스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보니 “왜적을 제어하는 일은 화약만한 게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화약 병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절기[『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4월 19일 임오] 참조. 권근은 「진포에서 왜선을 격파한 최무선 원수를 축하하며[賀崔元帥破鎭浦倭船]」라는 시에서 “넘쳐흐르던 적의 기운은 대포 연기 따라 흩어지고, 세상을 덮을 듯한 공명(功名)은 석양처럼 온 천하에 빛난다.[漫空賊氣隨煙散 盖世功名如日鋪]”고 그 공을 기리기도 했다. [陽村先生文集] 권4. 「崔元帥 茂先 破鎭浦倭船 公始作火炮」.

를 묶어 기지로 삼았던 익산 웅포 부근, 그러니까 웅연(熊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조금 더 넓히자면 웅포에서 금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 다시 말해서 진포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포대첩이라는 말 역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진포대첩은 익산 웅포의 덕성창을 1차 격전지[전장]로 하여 서천과 군산, 그리고 남원, 황산에 이르는 거대한 전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포대첩의 주요 전장은 ‘금강’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금강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어느 지역의 것은 아니다. 진포 역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주요 전장에서 승패가 결정 나자 패주한 왜적들은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전장 역시 각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확대되어 갔을 것이다. 부안, 김제, 부여, 공주, 옥천, 영동 등지에서 국지전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좋겠다.¹⁵⁾

여섯째, 진포대첩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해전이였다. 오랫동안 괴롭혀 온 왜적에 대해서 하나의 전기가 되는 전쟁이였다. 또한 화포를 사용해서 왜적을 바다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왜적 금압(禁壓)의 해결책을 제시한 전투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해상에서 왜적을 격파할 수 있다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진포대첩은 동아시아 혼란기 내지 질서재편기의 막바지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전투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진포대첩과 이어지는 황산대첩을 통해서, 특히 이성계의 부각을 상징해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분수령이였다고 해도 좋겠다. 또한 최무선이 발명한 화포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¹⁶⁾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함포 전투”라는 평가도 나와 있지만,¹⁷⁾ 조금 더 검증을 필요한 듯하다.¹⁸⁾

IV. 진포대첩과 익산 그리고 지역문화

진포대첩을 통해서 진포를 생각해본다면, 진포는 금강 하구에서 익산 웅포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적의 배 500여척, 고려의 배 100여척이 전투

15) 양은용 교수는 ‘주(主)전장’과 ‘부(副)전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6) 고려 조정에서 화약 무기를 써보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1373년 10월 공민왕은 화전(火箭)과 화통(火筒)을 시험해보기도 했으며 [觀新造戰艦 又試火箭火筒(『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10월 9일)], 그 해 11월 명나라에 배에 사용할 병기·화약·유황·염소(焰燄) 등의 물품 조달을 요청하기도 했다.(『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11월) 그렇지만 화약 만드는 노하우를 알게 되고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은 우왕 시기. 진포대첩을 기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세계 최초의 함포 전투, 진포 대첩’ (『디지털군산문화대전』).

18) 세계 최초로 함포가 운용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은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백년 전쟁 당시 해전에서 영국군이 핸드 캐논과 초보적인 함포를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를 벌이려면 좁은 지역일 수가 없는 것이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진포’는 당시 그 지역을 포괄하는 이름이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진포’를 오늘날의 특정한 지자체로만 규정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진포대첩이 전개되었던 금강은 오늘날의 지자체 군산, 서천, 익산을 지나고 있는데, 금강이 어느 지자체의 독점물이 아닌 것과도 같다. 진포 역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포’(浦)라는 단어는 흔히 바닷가의 지명에서 볼 수 있다. 목포, 삼천포 등. 그런데 진포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금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특성상, 강 양쪽에서 육지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 자체가 고대사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한 쪽만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과 서천이 금강 하구의 방어라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온 예로부터 내려오던 진지가 진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¹⁹⁾ ‘진’(鎭)이라는 단어 역시 군사의 주둔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포’라는 이름 자체가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진포와 함께 진성창(鎭城倉)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에서부터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진성창은 덕성창이 있던 옹포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진포대첩에서 익산의 옹포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설치된 덕성창 때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 하겠다. 덕성창은 이른바 ‘조운창’(漕運倉)이었다. 조창(漕倉) 혹은 조세창(漕稅倉)을 불리기도 하는데, 세곡의 수납, 보관, 운송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식을 관리하던 곳이다. 국가 운영의 바탕이 되는 미곡이 집중되었던 곳이다. 그러기에 왜적은 500여척의 배를 이끌고 미곡을 탈취하기 위해서 침입해왔던 것이다.

옹포 지역에 있던 덕성창은 나주의 영산창, 영광의 법성창과 더불어 대표적인 조운창의 하나였다. 조선 초기의 경우, 조운창은 크게 3곳이 운영되었다[옹포의 덕성창, 나주의 영산창, 영광의 법성창]. 옹포의 덕성창은 19곳의 조세를 모았다[나주의 영산창 17곳, 영광의 법성창 15곳]. 그 19곳은 전주·임실·남원·임피·김제·장수·금구·운봉·익산·만경·여산·금산·진산·태인·옥구·진안·고산·무주·함열을 포함한다.²⁰⁾ 이들 조운창에는 각 지역에서 받은 조세 미곡이 항상 쌓여 있었다. 고려 말 덕성창의 위상 역시 조선 초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조세로 받은 미곡을 강과 바다를 통해서 도읍 개성으로 운반해갔을 것이다.

19) “군사적으로 보면, 금강 하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진(鎭)이 강을 중심으로 남북지역을 같이 방수(防守)하지 않으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강의 양쪽에 다 같이 진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양은용, 2021.11.18. 「익산 옹포의 덕성창과 진포대첩」, 『익산 옹포, 진포대첩 학술대회발표집』)

20) 이종범, 2006. 「익산지역의 조운창」, 『익산향토문화』 5, 익산고원향토문화연구회, 91~92쪽.

이렇게 본다면 진포와 웅포는 조운(漕運)이 활발하던 발달하였던 시기, 조세 운반의 주요 수로 및 창고가 위치했던 곳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물길을 통한 운송과 교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²¹⁾

둘이켜 보면 진포대첩과 관련해서 연구와 행사는 주로 군산과 서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익산 웅포의 덕성창이 갖는 의미를 감안한다면, 바야흐로 익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러 유적과 함께 다양한 자료가 여기저기 보이기 때문이다. 세곡이 집적되던 웅포의 덕성창 지역은 현재 고창리(古倉里)라는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군관들의 무용(武勇)을 기르던 덕양정(德讓亭), 전몰장병을 제사지내던 용왕사(龍王祠) 등이 전해진다.²²⁾ 웅연(熊淵)의 강바닥에는 최무선 장군의 화포를 맞고 초토화된 왜적의 배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웅포, 덕성창, 진포대첩의 재조명 작업은 익산의 거시적인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익산은 한국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한(馬韓)의 건마국(乾馬國), 백제의 미륵사(彌勒寺) 조성과 익산 천도[王宮里 유적], 그리고 백제 멸망 후 고구려 유민들을 포용한 보덕국(報德國) 등을 들 수 있겠다. 근현대사에 이르게 되면 이리(裡里) 역을 중심으로 호남선, 군산선(1912), 전라선(1914) 철도 건설, 원불교 개창(1926) 등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아쉽게도 중세사, 시대적으로 고려, 조선 시대에 익산이 어떤 위상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듯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진포대첩에 대한 재조명은 고려 말, 나아가서는 여말선초(麗末鮮初) 시대를 익산이 가깝게 품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포대첩은 동아시아 국제사회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른바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륙에서의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 일본 내에서의 남조와 북조의 내란과 분출구, 고려 사에서는 몽고 지배와 무인통치, 그리고 신흥사대부의 등장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황산대첩을 이끈 이성계는 그 같은 전환기와 전시(戰時)에 등장해서 중앙정계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으며, 그 연장 위에서 조선을 건국하기 때문이다.

21) 하지만 호남선 개통과 더불어 육상교통이 활발해지자 내륙 수로로서의 운송 기능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2) 웅포면 고창리는 세곡을 집적했던 조운창 덕성창이 있던 마을이다. 웅포면사무소 북쪽에 있으며, 창고가 있던 자리에는 덕성정이 세워져 있다. 용왕사는 전면 1칸, 측면 2칸으로 기와를 올려 사당 형태를 띠었다. 약 400여년 전승되었다가 1945년 심한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다. 순절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풍어제 등을 지냈다.『益山郡事情』에는 “용왕사는 웅포리에 있으며 100년 전에 건립되었다. 신당(神堂)이 있으며, 금강 연안이라서 풍경이 절승이다”고 했다. 1982년 용왕사를 허물고 2층 육각정 형식을 세웠다. 덕양정은 사정(射亭)이란 이름으로 무예 도장 역할을 하던 곳이다. 숙종 대에 건립되어 250여 년간 지속되었다. 1982년 재건되었으나 유허지가 아니라 금강 변 캠핑장 입구에 세워졌다.([익산의 덕성창과 진포대첩], 『디지털익산문화대전(http://iksan.grand-culture.net/iksan)』)

V. 지역문화콘텐츠와 디지털화

진포대첩과 진포, 덕성창에 대한 재조명은 지역문화 차원에서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²³⁾ 현재 진포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온 듯하다.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고, 기념물 등을 세운 것이 갖는 의미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명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같은 지명이라 하더라도 가리키는 실체가 바뀌거나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 자체가 갖는 시대성, 한계성, 편파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게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결국 금강이 흘러와 바다로 들어가는 부분, 즉 ‘금강 하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그 같은 지형학적인 특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하나 진포의 특성상, 다른 바닷가 지역의 지명과는 다른 성격을 띠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금강 하류에는 양쪽으로 육지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兩岸)을 같이 포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포를 군산이나 서천 어느 한 쪽으로만 보려고 고집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그 의미를 좁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포와 진포대첩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가, 혹은 지자체들이 독점하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확증하기 어려운 진포 보다는 먼저 역사적인 현장으로서의 진포대첩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무엇보다 왜선 500여척이라는 대군단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는 것이다. 1차적인 목표는 역시 익산 옹포에 위치했던 조창 덕성창에 비축해둔 미곡을 탈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진포에 있던 고려 수군을 제압하고 약탈과 노략질을 저질렀던 것이다.

금강에 양안이 있으니 양쪽 물가로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미곡을 모아놓은 덕성창을 감안한다면 익산 옹포 쪽에 훨씬 더 집중되었을 것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고려의 수군이 해로를 거쳐 진포에 도착하게 되었다. 아마도 가장 큰 전투는 금강 하구에서 옹포에 이르는 금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배를 탄 수군들의 전투, 진포대첩의 핵심 포인트라고 해도 좋겠다. 알려진 것처럼 거기에 최무선의 화약이 놀라운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패주하는 왜구들은 각지로 흩어졌을 것이며 전투 역시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23) 1990년대 지방자치 시행과 함께 서울학(1993), 제주학(1997), 대전충청학(1998), 충북학(1999), 경기학(2000), 영남학(2001), 호남학(2001), 충청학(2001), 인천학(2002), 강원학(2002), 부산학(2003), 대전학(2004), 대구경북학(2005) 등과 함께 안동학, 전주학, 경주학, 제천학(1999), 원주학(1999), 안양학(2000), 강릉학(2001), 용인학(2005), 천안학(2008), 강진학(2010) 등 지역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창식, 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9~10쪽)

이렇게 본다면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나 지역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관련 지역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공동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래야 현장 사업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포대첩의 경우, 군산과 서천 그리고 익산이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관련 행사도 개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지역’이라는 개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포’라는 역사적인 지역 탐구를 향해 서천, 군산, 익산 나아가 전라북도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천이나 군산에 있는 기념탑, 기념비, 테마 공원 외에 종합적인 진포대첩 기념관, 구조물 등을 갖추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적절한 장소로는 이 글에서 드러났듯이 진포대첩의 주전장이었던 웅포 부근 혹은 웅포에서 금강 하구로 이어지는 적정한 지역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서는 진포대첩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과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필요하다.²⁴⁾ 그 지역의 역사, 생활민속, 인물, 문화유산 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재구성해 스토리텔링화하고,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런 작업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문화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금강에서 배를 타고 진포대첩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을 들으면서 군산-서천-익산의 격전지 일대를 둘러보는 유람선,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고증에 바탕을 둔 진포대첩 재현행사 같은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²⁵⁾ 군산시에서는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지만,²⁶⁾ 서천과 익산도 참여해서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재현해 보인다면 안팎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격전지에서 매년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재현해 보이는 것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 그것이 바로 ‘지역 축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24) 스토리텔링이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골격을 짜고 살을 붙여 흥미로운 스토리로 재구성해내는 작업이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지역마다 생생한 이야기 소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25) 좋은 사례로는 중국의 「인상유삼제(印象 劉三姐)」를 참고할 수 있다. 「인상유삼제」는 중국 광시성(廣西省) 구이린(桂林)의 산수(山水)를 실제 배경으로 꾸민 대형 무대극이다. 마을에 전해지는 민족의 설화를 줄거리로 하여 밭 갈고 고기 잡는 동네 농어민 600여 명을 아마추어 배우로 훈련시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웅장한 야간형 수상공연으로 성공하고 있다. (이남희, 2016, 『역사문화학: 디지털시대의 한국사연구』, 북코리아, 40~41쪽)

26) 김민영, 2016,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와 재현행사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28-3.

이 같은 작업 외에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디지털화’ 작업이라 하겠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진포대첩 VR체험관: 최무선장군처럼 왜구를 물리치자」(군산시 공식 블로그), 「세계 최초의 함포 전투, 진포 대첩」(디지털군산문화대전), 「익산의 덕성창과 진포대첩」(디지털익산문화대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지역문화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과 온라인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라는 틀을 가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디지털 작업 역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지역문화진흥법」(2014)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⁷⁾ 거기서 ‘지역문화’라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진포대첩이야말로 그 같은 “지방자치 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어울리는 주제라 해야 할 것이다.²⁸⁾

요컨대 ‘디지털화’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여러 요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모바일,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3D 프린터 등을 적극 도입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①디지털 뮤지엄이다. 디지털 뮤지엄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하는 문화서비스를 가상환경 하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상현실, 초고화질 등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융합하여 가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축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세계의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이 소장하는 작품들을 고해상도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촬영, 이용자가 마치 박물관에 실제 간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다. 넥슨 컴퓨터박물관 역시 ‘360 버추얼 뮤지엄(360 Virtual Museum)’을 구축, 온라인을 통해 박물관을 실제 관람하듯이 실감나는 인터랙션을 제공하고 있다. 진포대첩에 관심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디지털 뮤지엄에서 그와 관련된 유적지, 유물 등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②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²⁹⁾ 아카이브란 문서를 소장, 보

27) 이남희, 2017, 「지역문화콘텐츠 구축과 디지털 지역학」, 『인문콘텐츠』 47, 11~13쪽.

28) 아울러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 15조)

29) 이남희, 2005, 「동남아시아 ‘세계문화유산’ 디지털화의 현황과 전망」, 『인문콘텐츠』 5 참조.

관하는 문서국 또는 기록보관소, 문화산업을 위한 인프라(Infra)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³⁰⁾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의 인문학 관련 문헌 및 유·무형의 지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인문학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인 셈이다.³¹⁾ 그 지역과 관련된 저서와 논문, 기타 자료들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전통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³²⁾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원래의 자료들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도 있고 재구성해낼 수도 있다.³³⁾ 디지털화된 지역문화와 그 유산은 ‘국가 경쟁력’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종래의 국가, 정부 차원 이외에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local], 그 집합체로서의 개별 국가[Nation State], 그리고 세계화[Globalization]가 만나는 글로나컬(Glonacal)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디지털 아카이브에 구축된 다양한 사진, 동영상, 음향, 지도 등 시청각 영상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로 재구성될 수 있다. 에듀테인먼트는 교육 학습 활동에 오락적인 흥미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현재 문화산업에서 급격하게 신장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이버 테마파크, 디지털 전시영상 등 다양한 산업적 활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 하에 ①디지털 뮤지엄과 ②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를 총괄, 운영하는 ‘진포대첩 종합 정보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다. 필자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제안해보고자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진포대첩 연구와 조사, 아카이브(Archive) 구축을 통한 자료 수집, 분석, 재구성,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을 계속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축적될 자료를 다각도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

30) 산업 기반과 생활 기반을 의미한다.

31)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 디지털화는 시간이 갈수록 마모되거나 흩어져 없어질 수 있는 정보를 항구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다.

32)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검색하여 얻은 지역문화 자료를 창조적으로 변용, 활용할 수도 있다. 영화 <왕의 남자>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자. 『연산군일기』에 의하면 내시 김처선은 죽임을 당했으나 영화에서는 목을 매어 죽는다. 원형을 왜곡했다는 비판은 없었다. 동성애나 천민에 속하는 놀이패를 궁 안에서 기거하게 했는데, 이는 당시의 궁중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재해석하는 신선함을 보여주었다.

33) 이미 앞서가는 국가들에서는 국가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사회 전반의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 부문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학술, 역사, 문화 등 주요 지식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유통시키는 대규모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다. ‘진포대첩 종합 정보 연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지역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산학(産學) 연계,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유기적인 국제 교류와 연계, 예컨대 역사, 인물, 학술연구 등의 국제적인 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진포대첩과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진포대첩과 지역문화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특별강연

진포대첩의 현장

발표 _ 김복현 (전 익산문화원장)

- I. 진포대첩의 현장과 나
- II. 금강과 익산웅포의 진포대첩기
- III. 고창리(古倉里)의 덕성창지(德成倉址)
- IV. 덕양정(德讓亭)과 용왕사지(龍王社址)
- V. 금강이 안고 있는 웅포

진포대첩의 현장

김복현 (전 익산문화원장)

I. 진포대첩의 현장과 나

익산에서 태어난 나는 공적 사적 관계로 익산 각 지역 마을의 구석구석까지를 두루 방문하였다. 특히 익산문화원 원장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는 방문지역을 다시 찾아 마을의 역사·문화·인물·유적 등을 두루 찾았다.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이 『익산향토지』 3권¹⁾ 등 여러 책이다.

1380년(고려 우왕 6)에 일어난 진포대첩(鎭浦大捷)에 관해서는 일찍이 그 전말을 파악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창사업 등을2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00년에는 군산대학교에 열린 「진포대첩 학술대회」에 아나가 발표자들을 향해 “진포대첩의 현장은 익산 옹포인데, 군산을 현장으로 말하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다행하게도 이번에 이와같은 진포대첩 관련 학술대회가 익산에서 개최되어 묵은 한을 풀게 되었다. 이에 옹포일대의 대첩현장에 얹힌 이야기들의 일단을 밝혀보기로 한다. 각 마을마다 전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포대첩의 전개, 덕성창(德成倉)·용왕사(龍王祠)·덕양정(德讓亭) 등의 유허·유물, 그리고 마을의 전설을 밝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익산문화원 편, 『益山郷土誌』 I~III, 익산문화원, 2007.

II. 금강과 익산옹포의 진포대첩기

원래 금강은 100년을 주기로 그 물줄기가 변한다. 그 이유는 토사가 상류에서 밀려와 퇴적토가 강 어딘가에 쌓이기 때문이다. 치수를 하지 않았던 옛적에는 여름철에 내리는 장마와 홍수에 의하여 이 퇴적토는 강 중앙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강 좌우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땅을 하천부지라 하여 오늘날에는 농토로 이용하고 있다. 그 주기가 대략 100년이라고 한다. 토사가 쌓여 만들어진 땅은 새로운 땅이 된다. 이런 일로 인하여 진(鎭)이나 조세창(漕稅倉)이 시대에 따라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이다.

그러면 금강은 어떤 역사를 담고 있고, 익산 옹포는 또한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금강이 역사 위에 주목된 것은 백제가 공주로 천도한 475년 이후이며, 538년 부여로 천도하고, 무왕(600-641)시대에 이르러 익산에 왕도를 경영하면서이다. 그리고 660년 백제의 멸망기에는 나당(羅唐)연합군이 형성되고 당나라 소정방(蘇定方)군이 금강을 따라 상류하면서 대전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당시 소정방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여를 함락,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의 아녀자 2만 여명과 678년간의 백제 문헌자료를 송두리째배에 싣고 당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없이 보고 있어야만했던 금강이기도 하다.

특히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금강에 몸을 던진 백제인의 원혼이 강에 묻힌 곳이며, 당시 백제의 31대 마지막 왕인 의자왕도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 어딘가에 묻히고 비운의 역사를 남긴 금강이기도 하다.

고려말 최무선(崔茂宣)장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화포(火炮)를 제작하여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큰 전과를 올린 진포대첩의 진원지가 금강이며 옹포지역이라는 것이다. 왜구는 먹을 식량을 그리고 아녀자를 노략질의 대상으로 삼고 고려를 수없이 괴롭혀왔다. 본격적으로 왜구는 1380년(고려 우왕 6)에 선박 500여척을 이끌고 금강으로 침입해 온다. 당시 진성창(성산면 창오리)에 있는 조창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선단을 구성하여 온 것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금강 유역에 들어와 노략질을 일삼아 왔던 왜구였다. 왜구는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방화를 일삼고 아녀자를 잡아가며 식량을 탈취해 가는 온갖 못된 짓을 수도 없이 저질러 왔다. 당시 왜구 침입의 보고를 받은 당시 고려 우왕은 마침 화포를 만든 최무선장군에게 화포로 왜구를 무찌르라 명을 한다.

당시 왜구는 강폭이 제일 넓은 옹포 앞강에 500여척의 배를 밧줄로 묶어 썰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결박해놓고 진성창의 곡물을 마음놓고 실러가려고 했던 것이다. 고려에 화포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태연히 침입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무선장군이 만들어 낸 화포의 위력 앞에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왜구였다.

이때가 우왕 6년 1380년이다. 결박해 놓은 왜구의 배에 화포를 쏘니 배에 불이 나고 이 불은 500여척의 왜구놈들의 배에 옮겨 붙게 되니 절멸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진포대첩이다. 이때 육지에 올라와 노략질을 하던 왜구의 잔당들은 도주하기 시작했으며, 그중의 많은 왜구 잔당들이 남원방면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곳을 지키던 이성계 장군에게 다시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대첩이 유명한 남원 운봉의 황산대첩(荒山大捷)이다. 이때 이성계장군은 나라가 이렇게 허약해서야 어찌할 것인가 하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며 훗날 조선을 세우는 계기가 되는 단초를 제공하기 했다고 전하고 있다.

III, 고창리(古倉里)의 덕성창지(德成倉址)

고창리는 진포대첩이 일어나게 된 조운창(漕運倉) 덕성창이 위치했던 마을이다. 옹포면 고창리 마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덕성정(德成亭) 모정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조선시대까지 조창인 창고가 있었던 곳이다. 덕성창의 자리에 지어졌기 때문에 덕성정이라 부르고 있다. 덕성정은 기둥과 지붕을 콘크리트로 하고 바닥은 대청미루로 하였다. 특이하게 슬라브 지붕을 하였는데, 슬라브지붕과 기둥사이에 다시 기와지붕을 설치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을 하고 있다.

금강유역에 조창이 설치된 것은 1417년(태종 17)에 용안에 있었던 금두포(金頭浦)의 득성창(得成倉)이다. 수로의 폐쇄로 인하여 1428년(세종 10)에 함열현 피로(옹포면 고창리)로 올려 덕성창으로 개창하면서 옹포에도 조창이 설치되게 되었다.

이 덕성창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조선수를 보면 나주의 영산창 53척, 영광의 법성포창 39척, 함열의 덕성창 63척으로 이중 덕성창이 가장 많았다. 1482년(성종 13)에 다시 덕성창은 용안으로 옮겨 득성창이라 하였다. 그러던 것을 1512년(중종 7)에 전라도 관찰사 남곤의 치계에 따라 영산창을 파하여 법성창과 병합시켜, 전라도의 조세는 법성창으로 전수케 하고 용안의 덕성창은 군산포로 옮기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옹포지역에 조창이 설치되어 운영된 것은 세종 10년에서 성종 13년까지 약 54년간이다. 조창이 있었던 옹포면 고창리의 고창마을에는 그 자리에 민가가 들어서 현재로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춧돌이나 기와편이 보이는 등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마을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파괴하고 땅 속에 묻은 관계로 현재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위에 덕성정을 지어 마을의 모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IV. 덕양정(德讓亭)과 용왕사지(龍王社址)

현재 덕양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금강변이다. 원래 용왕사(龍王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라 전한다. 용왕사는 전면 1칸, 측면 2칸으로 지붕에는 기와를 올린 사당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바닥은 나무로 된 마루를 깔았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예전의 용왕사 건물은 약 400여년 동안 전승되어온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용왕사는 1945년 심한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 후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시 지었는데, 관리소홀로 인하여 점차 퇴락하여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82년 퇴락한 용왕사를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2층 육각정 형태의 정자를 세웠으며, 이 지방의 유지들에 의해서 유서 깊은 덕양정이란 이름의 깊은 뜻을 새기고자 정자 이름을 덕양정이라 하였다. 콘크리트로 세웠기 때문에 이를 헐어버리고 2005년에 목재 기와로 정자를 다시 건립하였다.



웅포 전경



웅포 덕양정

현재 덕양정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는 수령이 300년에서 400년쯤 보이는 팽나무가 5그루가 남아 옛 흔적을 전하고 있다. 원래 덕양정은 사정(射亭)의 이름이었다. 덕양정은 현 웅포 초등학교 다편의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웅포 주민들이 활을 쏘던 곳이었다. 조선 숙종 때 건립되어 250~260년간 지속되어 오던 사정으로 활 쏘는 장소뿐만 아니라 무예의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던 곳이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의병이 이 지방에서 일어나자 덕양정을 의병의 양성소로 생각한 일본헌병에 의해 폐쇄되었다. 덕양정이라는 현판 글씨는 조선 순조 때 태어난 명필 호산 서홍순(護山 徐弘淳)이 쓴 것이다. 서홍순은 웅포 출신으로 창암 이삼만(倉巖 李三晩)의 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글씨에 전념하여 고향인 함라산 문필봉의 흐르는 물이 마르느냐, 내 뜻의 먹물이 마르느냐의 기개로 끈질기게 서도에 전념하여 전주의 이삼만, 남원의 강남호와 더불어 호남 3대 명필로 꼽히고 있다.

이 현판은 덕양정 폐쇄후 후손이 가져갔다가 일본인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당시 함라의 만석꾼 조용규씨가 큰 값을 치르고 현판을 사서 간직하고 있다가 해방 후 옹포양로원에 회사하였다. 지금도 그 현판은 옹포양로원의 방문에 걸려 있다. 덕양정에 걸려 있는 현판은 그대로 복제하여 걸어놓은 것이다.

〈덕양정기(德讓亭記)〉

천리길 호남의 물결이 서해에 잇닿은 금강하구를 굽어보는 곰개라는 포구. 이곳은 고려 우왕 6년 최무선 장군께서 왜적 500여척의 전함을 격파시킨 진포대첩지로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일찍이 나라사랑하는 우리 군민은 여기 산마루에 용왕사를 짓고 순절하신 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고 풍어를 개원하여 위령제와 풍어제를 지냈다고 하나, 35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자취마저 찾을 길이 없다.

이제 민족수난사와 더불어 전국 5대 포구로 번창했던 옹포의 옛 모습도 사라졌으나 굽이쳐 흐르는 금강의 양양한 위엄과 서해에 지는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은 그리운 전설과 더불어 오늘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에 늦게나마 조상의 얼과 슬기를 되새기고 새로운 우리의 꿈을 심고자 산마루에 아담한 정자를 세우고 우리 고장이 낳은 명필 호산 서홍순 선생의 덕양정 현판을 이곳에 거니 그 뜻 더욱 빛나는 듯하다.

1962년 8월 익산군수 이건재(李健宰)

V, 금강이 안고 있는 옹포

과거 유일한 교통수단은 수로를 이용한 배편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금강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수없이 운행되었다. 1970년대까지도 금강의 옹포는 변화한 곳이었다. 특히 세곡미를 서울 서강까지 운송해야 하는 큰 역할을 했던 금강은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했다. 왜 금강이 그러한 중요한 일을 했을까?

금강은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강은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곡창지대를 배후세력으로 안고 있다.

둘째, 금강은 수심이 깊고 수량이 풍부하여 크고 작은 배들이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금강은 하류의 물자와 산악지대 곡창지대의 물자 교환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큰 상권이 형성되었던 항구가 강경포구 다음으로 웅포였다. 특히 군산과 강경의 중간지역에 있는 웅포의 역할은 평야지대의 상권이 집중되고 외부와의 상거래가 활발했던 곳이다. 강경은 산악지대와 공주지역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웅포는 평야지대의 상권이 집중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금강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서로 다른 생활문화와 물품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강경포구와 상인들이 웅포를 거쳐 왕래했기에 상호 보완관계의 역할을 했던 곳이 웅포이기도 했다.

따라서 진포대첩에 대한 관점도 금강을 중심으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아울러 살펴야 할 것이다. 이는 웅포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할 진포대첩의 현창사업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이다.

지정토론

토론 _ **허인욱** (한남대학교)

양정현 (순천대학교)

김영애 (에스앤아이팩토리/한국민화학교)



14세기 후반 금강 유역 침입과 고려의 대응 양상에 대한 토론문

허인욱 (한남대학교)

이 논문은 14~16세기 문헌에서 보이는 기록들을 바탕으로, 鎭浦가 특정 지점이 아닌 금강 하구, 또는 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일종의 범칭으로 사용되었음과 더불어 진포에 대한 왜구의 침입은 藤經光 사건 이후인 1376년부터 격화된 것으로 보면서 고려가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 화포를 개발하고 수전을 익히게 하는 등 해양 방어책을 모색하였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금강 유역 평야지대의 풍요함을 노리고 들어오는 왜적을 두 차례에 걸친 진포의 수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해하였다. 여러 부분에서 공감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논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토론자로서 궁금한 점 혹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진포에 대한 위치 비정을 하면서 금강 하류를 범칭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지명이 당대인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李穡의 「韓山八詠」 가운데 「鎭浦歸帆」을 인용하여, 진포가 범칭일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한산팔영」에는 「熊津觀釣」도 포함되는데, 웅진은 부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색이 「한산팔영」 가운데 언급한 「진포귀범」은 한산에 진포가 있었다기보다는 범칭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과 관련된 것이 존재하고 그곳이 유명해지면 그 주위까지도 아우르는 범칭으로 확장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혹 진포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2. 고려 말에 진포와 관련해서는 금강 서안과 관련된 표현보다는 ‘鎭浦의 龍安’, ‘龍安의 鎭浦’라는 표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권근은 1390년에 지은 「龍安城漕轉記」에서 ‘진포의 용안’이라는 표현 외에, “노공의 혜택이 마땅히 鎭浦·木浦 두 포구와 더불어 한없이 같이 가

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진포는 금강 동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김종직(1431~1492))의 시 「龍安阻風雨用壁上韻記之」는 용안성에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선생님은 이 시의 “母山風怒甚(모산 바람의 노함이 심하니) 鎮浦雨晴初(진포에 비가 막 개인 때로다)”라는 구절에서 ‘모산’을 ‘모악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직이 용안에서 전주와 김제 사이에 위치한 모악산의 기후현상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산’을 모악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4.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 사항인데, 진포라 불리는 지역들과 금강을 따라 지명들을 지도로 넣어주면 침입 경로 등이 시각적으로 보여서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 태종대 조운제 정비의 재정사적 맥락에 대한 토론문

양정현 (순천대학교)

발표문에 제시된 필자의 언급대로 조선 전기 재정사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조운과 재정 간의 연관성은 그동안 조운제도 연구의 부수적 내지는 주변적 주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지형을 고려할 때 필자의 문제의식은 조선시대 조운제도 연구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덕성창(덕성창)은 조운 제도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전반을 시야에 두고 설치 시점과 지리적 위치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그 위상과 의의가 이전보다 선명해졌다. 토론자는 발표문의 전반적 논지에 동의하며, 토론의 의무를 다하려는 목적에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문을 구성해보았다. 혹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경험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문의 논지 및 사실관계를 오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1. 국고곡의 비축 구조와 개념 범주

필자의 연구에서는 조선 태종대 이후 조운제 정비에 박차가 가해지는 배경을 미곡의 확보라는 당대 재정정책의 방향성과 연동하여 읽어내고 있다. 확보된 미곡을 수도로 수송하기 위해 조운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었다면, 당시 미곡을 국고로 저장하는 체계 및 경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조운을 통한 수도로의 수송 및 저장 방식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또한 필자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국고곡의 범주는 개념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예비적 재원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인지, 공간적 차원에서는 수도와 각 군현 및 군사시설의 창고를 총합한 규모로 보아야 하는지 발표문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국고곡의 개념과 관련지어 그 비축 구조 속에서 조운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다.

2. 지방 재정과 조운제 간 상관성

조운 제도는 수도로의 일방향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분석의 시선도 중앙 중심의 국가재정에 초점이 모아지는 인상이 들었다. 발표문의 논지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으나, 지역의 관점에서 내지는 지역 사료를 활용한 조운 제도 연구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다. 예를 들면, 발표문의 사료 A의 후반 부분에서 신사년에 세포전에서 거둔 租 가운데 조운으로 상납한 수 6,000석은 경성의 저축과 연결되고 나머지는 경상도의 군자에 충당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운으로 수송되는 양이 늘어났을 때 도의 군자곡은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파악한다면, 역으로 지방 재정도 조운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을지 여쭙고 싶다.

3. 진포와 익산의 지역성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의 공간적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진포, 나아가서 익산의 지역성이 어떻게 부각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발표문 내에서 다루고 있는 지리적 공간은 득성창(덕성창)으로 한정된 인상이 드는데, 연구 대상의 설정 배경에 진포와 익산이라는 지역의 성격을 역사적 맥락에서 드러낼 수 있는 주제라는 점이 전제되었다면, 그러한 지역성을 부각하는 내용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문화콘텐츠 방향에 대한 토론문

김영애 (에스앤아이팩토리/한국민화학교)

이남희 교수는 본 논문을 크게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진포는 어디인가라는 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명이나, 현재의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진포대첩을 통하여, 그 지역으로서의 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번째는 진포대첩의 성격을 살피는 과정에서 익산·웅포 지역에 있었던 조세창인 덕성창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문제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남희 교수는 익산지역에서의 진포대첩을 재조명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세번째는 진포대첩 현장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아마도 이것이 이남희 교수에게 주어진 발표 주제이며, 이 발표의 핵심내용이 될 것이다.

이남희 교수가 정리한 3가지 관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진포는 어디인가라는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이것은 군산, 서천(서천군 마서면), 익산(웅포 곰개나루) 등에 세워진 진포대첩비나 진포대첩 안내판이 각각 세워진 것으로 보아도 짐작이 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진포대첩지 안내판에 쓰여있는 대로, ‘금강하구의 진포’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강의 줄기에 자리잡은 군산과 서천, 그리고 익산, 부여까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각각의 지자체에서 자기들만의 유적지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진포대첩의 발발 원인과 전개과정을 살피는 과정이다. 여기서 이남희 교수는 진포대첩의 특성을 6가지로 요약했다. ① 당시(1380년) 큐슈 남조 세력이 왜선 500여척을 이끌고 침입한 사건이고, ② 이 배들이 일본과 가까운 남해나 동해가 아닌 서해로 침입한 것인데, 이것은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금의 웅포면 고창리에 위치한 덕성창의 미곡이 목표였다는 것이다. ③ 금강하구에 진열된 500여척의 군단은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상륙해서는 여러 주, 군으로 흩어져 마음대로 불태우고 노략질을 했으며, 그렇게 노략질한 곡식이 길가에 흩어진 것만 해도 1자나 되었다. ④ 고려조정에서는 나세, 심덕부,

최무선에게 100척의 전함을 주었고,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화포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참패한 왜적은 육지로 올라와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노략질했고, 이때 이성계가 왜적을 섬멸한 황산대첩이다. ⑤ 전투가 이루어진 주요 전장은 익산 웅포이고, 웅포에서 금강하구에 이르는 지역이 진포이며, 이 전투를 시작으로 서천과 군산, 그리고 남원과 황산에 이르는 거대한 전장을 이루게 되었다. 즉, 진포대첩의 주요 전장은 금강으로, 여기서 참패한 왜군들이 산발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⑥ 진포대첩의 역사적인 의미는 화포를 사용해서 해상에서 왜적을 격파할 수 있다는 큰 전환점이 되었고, 동아시아 혼란기에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전투였다. 그래서 ‘세계최초의 함포전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6가지 특성을 통해 보면,

특히 진포지역이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과 서천이 금강 하구에서의 군사적 이무를 수행해온 곳으로서의 진지가 진포이며, 당시의 중요한 미곡을 쌓아둔 진성창(대동여지도)이 덕성창이 있던 웅포지역이라는 것이다. 즉 진포대첩에 있어서 왜적들의 주요 타겟이 덕성창이며, 이는 조운창으로서 수납, 보관, 운송을 담당했던 곳이다.

따라서 기존의 진포대첩에 대한 연구와 행사가 주로 군산과 서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으로 익산 웅포의 덕성창이 갖는 의미를 감안하여 익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지역에서의 진포대첩의 재조명은 고려말, 여말선초 시대의 익산지역을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중국 대륙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 일본 내에서는 남조와 북조의 내란과 분출구, 고려에서는 몽고지배와 무인들의 통치, 그리고 신흥사대부의 등장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진포대첩을 익산지역에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며, 진포대첩의 발발계기가 된 덕성창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지역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곳에서 ‘디지털뮤지엄’과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를 총괄 운영하는 것이다. 즉,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축적된 자료를 다각도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자는 것이다.

이상으로 요약해보면 이남희 교수의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의 제안은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글로벌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결국 한 국가의 역사적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진포대첩은 고려말에 금강유역으로부터 침범한 왜구를 물리친 3대 대첩 중의 하나로 1376년 최영 장군이 홍산대첩을 시작으로, 1380년 진포대첩과 이성계의 황산대첩으로 이어지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다. 결국 황산대첩에 의해 이성계는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아 새

왕조를 개창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이에 토대가 된 것은 진포대첩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더군다나 진포대첩은 뛰어난 조선술에 의해 만들어진 대형의 전함으로 함포를 장착했다는 것과 최무선이 화포를 발명해서 사용했다는 점이 아주 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발표자인 이남희 교수의 ‘진포대첩 종합정보센터’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진포대첩의 역사적인 의미를 좀더 크게 부각시켜 글로벌화 하자는 것에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남희 교수의 글과 더불어 진포대첩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첫째, 진포대첩은 세계해전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한 전투였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조선술과 화포에 대한 것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진포대첩의 승리 이후, 이 여세를 몰아 1383년 남해대첩, 1389년 대마도정벌(박위) 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임진왜란 전까지 왜구의 침입이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진포대첩에 이은 황산대첩은 조선왕조의 개창에 일조를 하였으며 세번째 진포대첩에서의 수군의 전술은 임진왜란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선진적 전술이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과 거분석이 있기 200여년 전에 이미 뛰어나 조선술(造船術)과 화포, 그리고 수군의 전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최남선 같은 이를 좀더 영웅시화 할 필요가 있으며, 고려시대의 조선술, 수군의 전술 등을 좀더 확대 해석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결국 이남희 교수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모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콘텐츠를 디지털 지역학 아카이브 및 디지털뮤지엄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를 구축하기에 앞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할 곳과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5년전 전남대학교에서 한국학, 국학이라는 용어에 대응해 호남학의 정의를 잡는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다. ‘호남학정보센터’를 만들고, 호남학 정보를 축적하고, 호남학의 자료를 DB화하기까지 했지만, 학교 책임자가 바뀌면서 호남학이라는 명칭은 현재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두번째는 지역학이라는 조그만 역사적 사실이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적 사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느끼고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2016년부터 2018까지 3년간 10개 성(省)을 방문한적 있는데), 워낙 큰 땅이기도 하지만, 지역학이라는 것에 각 지역(省을 중심으로)의 정부, 학자, 출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한 지역의 지역학 시리즈를 지역마다 100권, 200권, 300권을 목표로 축적해 놓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이렇게 쌓아놓은 콘텐츠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앞선 적이 있었다.

세번째는 이남희 교수의 지적대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적극 도입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대의 흐름을 공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라고들 한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진포대첩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남희 교수가 말했듯이 ‘디지털 뮤지엄’이란 가상의 공간에서 유적지, 유물 등을 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스트리트뮤지엄’ 이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대면, 저절로 그 당시의 전투장면 등이 재현해낸다면 더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이남희 교수의 발표에 질문이라기 보다는 결론에 몇가지를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오늘 ‘진포대첩 종합정보 연구센터’의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학술대회를 기회로 조만간 센터의 발대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진
포
대
첩

익
산
웅
포,
학
술
대
회



인 쇄 2021년 11월

발 행 2021년 11월

발행처  **익산학연구소**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內

